일시적 개입

LOCAL IN THE MAKING

거제 섬도	GEOJE SUMDO
권은비	Eunbi Kwon
김현주 × 조광희	Hyunjoo Kim × Kwanghee Cho
노뉴워크	NoNewWork
다이애나랩	dianalab
로자바 필름 코뮨	Rojava Film Commune/ Komîna Fîlm a Rojava
브레이크워터 (최영숙 × 태이)	Breakwater (Youngsook Choi × Taey Iohe)
스몰 바치 스튜디오	Small Batch Studio
실험실 C	Lab C
예페 하인	Jeppe Hein
오버랩	OverLab.
우 말리 × 밤부 커튼 스튜디오	Wu Mali × Bamboo Curtain Studio
젤리장	Jelly Jang
코무니타스 구부악 코피	Komunitas Gubuak Kopi

일시적 개입

Local in the Making

2022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ARKO Art Center Thematic Exhibition

목차

Contents

2022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일시적 개입》을 개최하며 8
임근혜 관장

일시적 개입을 형성하는 로컬의 움직임들과 함께하며 12
차승주 큐레이터

장소와 예술의 다공성 경계들 24
조선령 교수

보이는 말들의 그물코 38
김종길 평론가

작가 소개 및 작품 목록 54

전시 전경 134

전시 연계 프로그램 158

리딩룸 168

크레딧 172

Holding the 2022 ARKO Art Center Thematic exhibition, *Local in the Making* 10
Jade Keunhye Lim

With Local Movements Forming Temporary Intervention 18
Seungjoo Cha

The Porous Boundaries of Place and Art 30
Cho Seon-Ryeong

Visible Mesh of the Language 46
Gim Jonggil

Artist's Profiles and List of Works 54

Exhibition Views 134

Exhibition Related Programs 158

Reading Room 168

Credits 174

2022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일시적 개입》을 개최하며

임근혜
아르코미술관 관장

2020년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술관의 일상 속에서도 시공의 감각이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다. 직원들은 로그인/로그아웃으로 출퇴근을 대신하는 재택 근무와 장거리 출장이 필요없는 화상 회의 플랫폼에 익숙해지고, 해외 여행 대신 가까운 지역을 찾는 새로운 휴가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공간이 단순한 좌표적 위상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의 개입에 의해 끊임없이 유동하며 새로운 관계와 의미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일시적 개입》은 이와 같은 기술 변화와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된 시공의 변화를 배경 삼아, 중심과 주변의 위계를 넘어서는 지역적 예술실천에 주목하는 전시다.

이는 "사회적 전환기의 예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예술의 가치 발굴과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표방한 아르코미술관이 지난해부터 주력해온 포스트 팬데믹의 새로운 전시 주제 발굴 및 담론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2021년도 인간과 비인간 또는 자연, 기계의 공생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에 이어, 2022년도 기획전은 이동, 경계, 공동체, 지역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 중 올해 마지막으로 선보인 《일시적 개입》은 그간 '중심'과 '변방' 또는 '주류'와 '비주류'의 이분법적 가치 체계에서 배제됐던 다양한 존재에 주목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대안적 예술실천 방법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프로그램의 의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아르코미술관은 미술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던 1974년도부터 최근까지 당대의 가장 유효한 방식으로 지역 미술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예는 《지방작가 초대전》(1974~6), 《지방미술단체연합전》(1980), 《시도 미술대전 수상작품전》(1984~97), 《대지와 바람: 지역작가들의 제언》(1998), 《지역 네트워크전》(2010~1) 등으로 이어진다. 이 전시들은 "지역 미술의 정체성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위상을 정립"(대지와 바람: 지역작가들의 제언, 1998)하고, "문화예술의 중심지 서울과 다양한 지역 거점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미술이 격차 없이 소통하는 융합의 장을 형성(지역네트워크전, 2010)"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 지원 기구로서 지역 미술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목적과 연결되지만, 표준으로서의 서울(중앙)과 그 외 지역(지방)이라는 구분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동시대적 관점에서 비판적 재검토와 사업적 재구조화가 필요했다.

《일시적 개입》은 미술관의 과거 전시가 보여준 지역적 위계를 탈피한 탈중심적 관점으로 지역의 예술에 접근했다. 그 결과, 지역 출신 작가를 중심으로 한 과거의 전시 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 맺으며 지역의 서사와 방법론을 창작 활동의 근간으로 삼은 14팀의 예술가를 초대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전 세대의 삶에서 지혜와 영감을 얻고, 지역의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며, 공감과 연대의 미래를 함께 그린다. 이번 전시가 지역 연구자와 활동가인 동시에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환경과 사회 그리고 통치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예술가와 그들의 예술 실천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Holding the 2022 ARKO Art Center Thematic Exhibition, *Local in the Making*

Jade Keunhye Lim
Director General of Arko Art Center

The sense of time and space is newly being reorganized even in the daily lives of art museums since the COVID-19, which began in early 2020. Employees are getting used to telecommuting that is replacing commuting with log-in and log-out and video conferencing platform that does not require a long business trip, and new vacation culture looking for nearby areas instead of traveling abroad is being placed. These experiences make us realize the fact that space is not simply a coordinate phase, but is flowing constantly by the intervention of humans and technology, forming new relationships and meanings.

With the changes in time and space accelerated by technological changes like these and the pandemic in the background, *Local in the Making* is an exhibition that pays attention to local art practices beyond the hierarchy of the center and surroundings.

This exhibition is accomplished as an extension of discovering new exhibition themes of post pandemic and developing discussion that ARKO Art Center has been focusing on since last year, which claims to advocate "a platform for discovering and sharing the value of art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art environment during the social transition period". Following the 2021 program about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or nature and machines, the 2022 exhibition dealt intensively with the matters of movement, boundaries, communities, and regions. Among them, *Local in the Making*, which was last introduced this year continues the intention of the previous program in the sense that it pays attention to the various existences that has been excluded in a while in the dichotomous value system of 'center' and 'periphery' or 'mainstream' and 'non-mainstream,' and that it explores alternative art practice methodologies that form new relationships. Meanwhile, ARKO Art Center has continuously promoted programs to introduce local art in the most valid way of the time until recently since 1974, when it was opened under the name of the art center. The examples are continued with *Invitation Exhibition of Local Artists* (1974~6), *Exhibition of United Local Arts Organization* (1980), *City and Province Arts Award Winners Exhibition* (1984~97), *Land and Wind: suggestions from local artists* (1998), *Regional Network Exhibition* (2010~1) etc. These exhibitions aimed to "establish a new status by seeking the identity of local art" (Land and Wind: suggestions from local artists, 1998) and to "form the place of convergence(Local Network Exhibition, 2010) to communicate with no gap between art in the center and the region through the network between Seoul, the center of culture and arts, and various regional hubs." Although it is linked to the business purpose of Arts Council Korea, which tries to constantly communicate with the local art arena as a representative art support organization of the country, the premise of the distinction between Seoul (central) and the other regions (local) as a standard required critical review and business restructuring from a contemporary perspective.

Local in the Making approached the local art from a decentralized perspective that deviated from the regional hierarchy shown by the museum's past exhibitions. As a result, 14 teams of artists were invited, who took local narratives and methodologies as the foundation of creative activities while building relationships with the regions in various ways departing from the composition of past exhibitions centered on local artists. They derive wisdom and inspiration from the lives of previous generations, seeking common solutions to local problems, and depicting the future of empathy and solidarity together.

I hope that this exhibition will be an opportunity to give a full-fledged introduction of the artists and their artistic practices, who respond proactively to the changes of environment and society, and governing structure, as local researchers and activists, and the members of earth community at the same time.

일시적 개입을 형성하는 로컬의 움직임들과 함께하며

차승주
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아르코미술관은 지난 약 50년의 전시사 안에서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다. 그 일환으로 여러 지역의 미술관들과 협업하여 지역 작가 선정 및 투어 전시, 네트워크 프로젝트 등 지역에서 벌어지는 창작 활동을 재조명하고 연결하며 지리적 경계 없애기를 시도했다. 이러한 사업 방향을 시의적으로 이어나갈 전시 기획 방향을 모색하면서 행정구역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이 생겼다. 사각지대를 들여다보고자 하는 미술관의 기존 사업 방향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드는 건 아닌지, 동시대 '지역'은 행정구역과 스케일 중심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지리학자, 로컬 연구자들이 언급해 온 복합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었고, 팬데믹 시기를 경유하며 나타나는 삶의 다각화된 방식들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지역'의 미세한 목소리들을 들춰내고 있었다. 때마침 주변의 어떤 이는 연고도 없는 낯선 지역으로 이주해, 마을 주민들과 공동체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또 어떤 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 바닷가 마을을 찾아가 이웃들과 알아가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했다. 팬데믹으로 막힌 하늘길은 주변의 이웃, 동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주목하게 했고, 거대 관광자본을 흡입하는 지역 대도시가 아니라 인적 드문 소위 '힐링'의 장소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이 담보된, 또 다른 가능성의 장소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단일한 물리적 거주지만을 삶의 터전이라고 부르기 애매해졌고, 온오프라인의 무한한 연결고리는 여러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되는 관계 맺음에 활기를 드리웠다. 이렇게 삶의 터전은 세계 곳곳으로 그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거처들을 확장해갔다.

1 이원재, '지역의 재구성과 새로운 문화운동' 〈문화/과학〉 2022 겨울호, pp. 92~93
필자는 '지역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관계들로 접근해야 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지역이란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이자 과정으로서의 시공간'으로 보았다. 그리고 '확정적이고 물질적인 영토라기 보다 불확정적으로 형성되고 재구성되는 물질적, 비물질적 시공간이고, 시민들 사이의 호혜와 연대 그리고 협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라고 언급한다.

관계 인구이자 관계 인구를 형성하는 예술가, 그리고 예술 프로젝트

지역은 '축적된 관계들'로 접근해야 하고[1] '로컬은 지역이자 생활권을 의미하며 반드시 행정 단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공간 모두 지역이며, 특정 동네가 지닌 지역성도 로컬을 상징'한다.[2] 또한 '로컬리티는 지역이라는 장소성뿐 아니라 기억과 심리는 물론 사회, 문화, 언어, 정치, 경제적 구조와 체계까지 포함하고, [..] 공동체는 로컬리티의 일부를 구성'하며, [..] '탈영토적 공간에서 문화혼종성과 이종성을 경험하는 비장소적 요소 역시 로컬리티를 구성'한다.[3] 나아가 '모든 로컬리티는 그 경계 너머의 연계들 속에서 이해되며, 장소는 닫힌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들의 열린 다공질적 네트워크로 [..] 상호작용하는 것은 장소 그 자체가 아니라 장소들 안에 있는 행위자들 간에 작동하는 사회적 관계'이다.[4] 다시 말하면, '로컬'은 지역으로 명명되는 지정학적 개념을 넘어 보다 세분화된 단위로 쪼개지는 장소들, 그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과의 연대 활동들, 비장소적 공동체 형태로 형성하는 가치들, 다양한 특질들로 구성된 총합이자 확장적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로컬 내외부에서 다양한 인적, 물적 상호 교류 및 유입과 유출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적 시공간을 형성하며 생성되고 변화한다. 이번 전시는 로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로컬에 개입하고, 로컬을 형성해나가는 국내외 열네 팀의 예술 활동들을 주목해보고자 했다.

2 류석진, 조희정, 김용복 저, 『로컬의 진화』, 스리체어스, 2020, p.8

3 이명수, 하용삼, 장세룡, 이은상, 설한, 『공동체와 로컬리티』, 심산, 2017, p.119

4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옮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p.220

예술가들은 오랫동안 로컬에 접근하는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로컬리티의 형성과 변화를 견인해왔다. 때로는 뉴장르 공공예술, 커뮤니티 아트 등으로, 때로는 사회 참여 예술 등의 수식어로 로컬에 개입하는 그 경계 내외를 넘나들며 지역 주민들, 활동가들, 예술가들과 협업하는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왔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밖에서' 벌어지는 활동들은 미술관이라는 '내부의' 물리적이고 형식적인 한계 때문에 다른 예술 유형에 비해 전시 형태로 소개되는 계기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다. 특히 예술 장르화할 수 없는 활동들, 과정 중심의 그것들이 전시로 가공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휘발되는 어떤 시간성과 가치 때문에, 또 결과물의 시각적 예술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일군의 인식들 때문에 전시화의 계기가 희박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공공미술관은 이러한 활동들의 유의미함을 주목하고,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활동들이 던지는 질문에 관객과 함께 답을 찾고, 전시가 물꼬가 되어 어떠한 향방으로 우리의 일상이 로컬과 만나게 될지 모를 일이었다.

우선 기존에 각 프로젝트 앞에 붙던 수식어들을 떼어내고, 다채색의 로컬의 풍경만큼이나 다종다양한 예술 활동 저마다의 개별성을 주목하기로 했다. 그 활동의 과정이 조금이나마 명확히 전달되는 아카이브 방식과 전시 주제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신작을 병행하며 말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내 미술관에서 비교적 소개가 드물었던

국내외 총 열네 팀의 프로젝트를 선보이게 되었다. 하지만 초반의 포부나 추동력은 어느 때보다 긴 시간의 리서치 과정으로 줄곧 그 기세가 꺾였다. 평소에 관심 있게 지켜보던 몇몇 프로젝트들이 있었으나, 상술한 유형의 프로젝트가 워낙 방대했고, 지역적으로 먼 제주도를 비롯하여 해외에서 벌어지는 미시적 활동들을 만나는 길은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멀고 험난하게 느껴졌다. 특히 로컬 자체를 재사유화하는 전시의 선례가 충분하지도 않을뿐더러, 특정 지역에서 태어나 거점화하여 활동하는 예술가부터, 일시적 프로젝트성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유형들 앞에서 리서치의 폭을 좁혀 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그 와중에 '관계 인구'라는 개념을 만났다.

주로 지역문제, 인구절벽의 주요 대안으로 종종 기사에 언급되는 정책적 단어이지만, 이 개념이 담고 있는 의미가 오랜 세월 예술가들이 해왔던 역할을 포함하기도 했고, 또 팬데믹을 지나며 로컬과 관계 맺는 삶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기 적절한 단어이기도 했다. 관계 인구란 쉽게 말하면 지역에 오래 사는 정주 인구와 관광 인구 사이의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5] 그리고 이들은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 특정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거주하는 인구는 아니지만, 지역문제나 상황에 공감하고 연대 활동으로 이어가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특정 지역의 특산품을 구매하기도 하며 우연한 계기로 방문했다가 아예 이주하는 예도 있다. 지역과 관계한 시간의 양보다 질적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듯한 이러한 인구 유형은 팬데믹 시기 유연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확산하였다. 전시에 참여한 열네 팀은 스스로 관계 인구이거나, 관계 인구를 형성하는 프로젝트를 지속해왔다. 태어나고 자란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연한 계기로 관계 맺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살펴보기도 하고,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 안에서 예술로 지역의 범주를 확장해가거나 경계를 와해하기도 한다. 즉 예술가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내외를 넘나드는 관계 인구들을 형성하며 생태적, 문화적 가치와 정서적 연대를 끌어내고, 지역들을 연결하며 비장소적 공동체를 일시적으로 형성한다. 일시적 계기를 형성하는 그 중심에는 예술가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 관계축이 생성되고 확산되면서 변화하는 로컬 풍경의 중심에 있었다.

5 조희정, 「빛의 사람, 로컬 관계 인구」, 아르코미술관 전시 《일시적 개입》 연계 집필, 2022, 본책 p.169.

왜 '일시적 개입'인가

열네 팀의 프로젝트들은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의 일시적 '개입'을 끌어내거나 여러 사람의 일종의 '개입'을 필요로 하기도 했고, 예술가들 자체의 일시적 개입에서 비롯되기도 했다. 말하자면 로컬의 변화를 이끄는 그 시작을 단순한 관심 이상의 어떤 '개입'으로 보았고, 그것이 비록 일시적으로 시작되었더라도, 그 시작의 네트워크가 공고해지고 확산하면 때때로 지속성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로컬리티는 연대의 힘이 발산하며 이끌어 내고 형성하는 그 무엇이다. 그리고 그 연대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다양성과 개별성을 희생시키며 지속해야 하는 어떤 것이라기보다, 부지불식간에 생성될 수도 있고, 혹은 느슨하게 엮여서 어느 순간 탈착되거나 또 다른 개입의 도화선이 되어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연대이다. 이는 때로는 공동체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재개념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그 연대(들)는 로컬의 풍경을 변화하는데 동력이 된다. 그 변화를 예측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로컬의 다양성을 견인하는 움직임에는, 모이고 확장하고 스며드는 여러 계기가 함께 작용한다. 젠지(GenZ) 세대에게 '미립자 정체성'이 중요하고, 로하스(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삶에서 가치를 찾듯, 우리는 이제 다양한 정체성으로 다양한 이웃들과의 관계 축을 따라 로컬의 여러 상황에 관심 두고, 개입하고, 로컬들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소위 공동체 기반의 예술은 오랫동안 이렇게 이웃들과의 연대를 유도하는 플랫폼이자 네트워크의 중추로, 또 예술가들이 떠난 후에도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연결성의 단초로 자리매김해왔다. 일시적 개입은 이러한 다공질의 네트워크를 촉발하는 사회적 관계 맺기의 시작이며, 네트워크의 확장은 삶의 다양성을 드러내고, 삶의 유의미한 가치를 회복한다. 그리고 어쩌면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한번도 만난 적 없지만, 늘 주변에 함께 했던

낯설었던 인도네시아 작은 농촌 마을에서 벌어지는 게임과 악기를 접하며, 공동 농작 풍경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코무니타스 구부악 코피), 심리적으로 멀게 느껴졌던 조선 산업과 해양 문화의 숨은 이야기들은 전시장 곳곳 큐알과 첨단 기기를 통해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거리를 좁혔다 (거제 섬도). 특정 지역의 역사와 생태적 의미는 산과 바다의 촉각적 소리 및 자연과의 교감이 형성하는 인간의 몸짓과 드로잉, 그리고 아날로그 뷰마스터의 작은 창구를 통해 관객과의 접점을 확장했으며 (실험실 C), 서로 다른 지역의 예술인들이 비대면으로 '함께' 창작한다는 것의 어려움과 가능성을 동시에 엿볼 수 있었고 (오버랩), 인간/비인간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일시적 가상 레지던시의 형성 과정과, 페미니즘의 향방이 평등과 연대로 확장되는 역동적이고 다층적인 접근 방식에 공감했다 (노뉴워크). 또 배리어 컨셔스(barrier-conscious)한 창작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시작과 과정, 그리고 그 예술적 결과물이 관객과 소통하는 방식에서 일종의 영감과 자극을 받았으며 (다이애나랩), 일시적 개입이 형성한 관계의 시작이 지속 가능한 환경 운동으로 확장한 예술 프로젝트의 좋은 선례를 되짚어보기도 하고 (우 말리 × 밤부 커튼 스튜디오), 사라져가는 문화적 가치가 영상의 예술 언어로 그 보존과 확산의 가능성을 획득해나가는 과정에 함께했으며 (로자바 필름 코뮨), 이주민 커뮤니티가 지닌 상흔들의 치유, 공감, 연대의 방식이 어떻게 집적되고 전환되어 예술적 결과물의 미적 가치들과 공명할 수 있는지 엿볼 수 있었다 (브레이크워터). 나아가 일상의 소소한 행동이 예술을 경유할 때 어떤 커뮤니티에는 유의미한 치유의 방식이 될 수 있으며, 대상화, 타자화하지 않는 연대의 가능성과 희망도 느꼈고 (권은비), 일시적 개입이 로컬의 이야기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서로에게 스며들고, 어떠한 활동들로 그 교감의 빗장을 열어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기도 했다

(김현주×조광희). 로컬 푸드에 대한 상업적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고 보다 복합적이고 혼합된 개개인의 손맛 드로잉이 구현한 레시피들로 '로컬들'의 음식을 만나보거나 (스몰 바치 스튜디오), 랜덤한 단어들의 조합이라는 단순한 행동이 한 번도 본 적 없고 상상해보지 않았던, 하지만 늘 주변에 있었던 이웃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젤리장), 파란색 선과 호흡을 연결하여 하나의 글로벌 액트로 연대하는 찰나의 희열도 느낄 수 있었다 (예페 하인).

전시를 열고 난 후에도 새롭게 관계 맺은 로컬의 이야기는 계속 축적되었다. 브레이크워터의 작품 일부인 코코 피트(흙)는 누군가에 의해 주제적으로, 매체적으로 사용되거나, 연대의 징표로 소장되고 재활용될 것이다. 전시 기간 열렸던 도미노 게임의 최종 승자는 인도네시아 솔록에서 벌어진 환경 보호용 식수 활동에 상징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상상의 일시적 레지던시에는 관객들이 생각하는 안전망의 모습들이 쌓여갔고, 의정부의 빼뻘 마을에 사는 마을 주민들의 인터뷰는 관객들의 심리적 거리를 밀착시키며 저마다 다른 목소리로 전시장에서 되살아났다. 서울 로컬리티 레시피에는 관객들의 혼재된 로컬 레시피가 쌓이며 400개가 넘는 다양한 맛의 로컬리티가 형성되었다. 저 먼 시리아에서 온 카페트는 재활용 센터에서 다른 계기로 쓰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과 함께 일시적으로 진행한 예페 하인의 호흡 수채화는 전시 종료 후에도 작가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세계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지속적인 호흡의 선으로 채색될 것이다. 거주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활동과 움직임들, 많은 이의 관계 맺음으로 변화의 상황 안에 놓이는 로컬의 모습들,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황들에 공감하고 연대하며 예술적 창발성과 전환으로, 예술가들의 개입으로 형성된 로컬들과의 만남이었다. 일시적인 정서적 연대였으나,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의 방식들을 고찰해보고, 주변 이웃부터 장소, 동네, 지역, 지역들로 확산하는 실질적 '연결에의' 감각들로 재편되는 계기였다. 들여다보고 주목해야 할 로컬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고, 그 변화의 여정에 이제 한 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With Local Movements Forming Temporary Intervention

Seungjoo Cha
ARKO Art Center curator

The ARKO Art Center has sought continuously a link with the 'region' within its exhibition history of the past 50 years. As part of this project, we collaborated with art museums in various regions to select artists and conduct tour exhibitions including projects centered on networks with local artists as well as intensive solo exhibitions of artists active in the region. Like this, we tried to eliminate the geographical boundaries of art activities in various regions, without letting go of the opportunity for re-examination of local artists and regional connections, with the art center in Seoul as a base camp. In the process of seeking the direction of exhibition planning to carry on this business direction in a timely manner, the fundamental question arose about the 'region' as an administrative district. We had doubts whether the existing business direction of the art center to look into the blind spots creates another blind spot, or whether the contemporary 'region' should be approached in a complex way that has long been mentioned by geographers and local researchers, rather than focusing on administrative districts and scales. And the diversified ways of life through the pandemic period were revealing the fine voices of the 'region' to support this. Just in time, some of the neighbors moved to unfamiliar areas and reported that they started community activities with the villagers. While others said it was a small pleasure to visit a seaside village once or twice a week to get to know their neighbors. The pandemic-blocked skyway has attracted attention to stories happening in neighboring neighbors and neighborhoods, and the so-called rare 'healing' place, which is not a local metropolis that sucks in huge tourism capital, has begun to draw attention as another place of possibility, where safety is guaranteed, away from the invisible threat of life. Now it is no longer clear that a single physical residence is the home of life and the infinite links of on-line and off-line has revitalized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s formed in various ways with various regions. In this way, the home of life has expanded psychological and physical habitats to all over the world.

A region should be approached as "accumulated relationships,"[1] and "local means a region and a living zone and does not necessarily coincide with the administrative unit. [...] All the spaces we live in are regions, and the locality of a particular neighborhood also symbolizes the locality."[2] In addition, "locality includes not only the placeness of a region but also memory and psychology as well as society, culture, language, politics, economic structure and system, [...] Community constitutes a part of locality," [...] "Non-place elements that experience cultural hybridity and heterogeneity in a de-territorial space also constitute locality."[3] Furthermore, "all localities are understood in connections beyond their boundaries, and the place is not closed, but an open porous network of social relationships [...] which is interacting is not the place itself, but the social relations that operate between the actors in the places."[4] In other words, 'local' should be viewed as a total sum and an extended concept consisting of places split more subdivided units, solidarity activities with various situations happening there, values formed in the form of non-local communities, and various characteristics, beyond the geopolitical concept named as a region. And through various human and material mutual exchanges and inflows and outflows inside and outside the local, it creates and changes while forming a continuous relational space-time. Based on this perception of locality, this exhibition focused on the artistic activities of 14 domestic and foreign teams who intervene locally in different ways and form localities.

Artists who are relationship population and shape the relationship population, and art projects

Artists have long drive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locality through various artistic activities approaching local. It has continued to collaborate with local residents, activists, and artists, crossing the boundaries of local intervention, sometimes with new-genre public art, community art, and sometimes with modifiers such as social participation art. However, it seems that there were relatively few opportunities for activities that naturally take place 'outside' to be introduced in exhibition form compared to other art types due to the physical and formal limitations of the 'inside' of art museums. In particular, the activities that cannot be art genre, process-oriented activities, they may have had a scarce opportunity for exhibitions due to the time and value of inevitably volatilizing activities while processed into an exhibition, and the group's perception that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visual artistry of the outputs. However, at least the public art museum should pay attention to the significance of these activities and we think that it should be a contact point to meet

1 Won Jae Lee, "Regional reconstruction and new cultural movements", *Culture/ Science*, No. 112 (Winter), 2022, pp. 92–93. The author described that in order to reconstruct the region, we must approach the accumulated relationships, and he saw the region we need as a time and space for practice and process to restore relationships between various subjects. He also refers to material and non-material space-time that is formed and reconstructed uncertainly rather than a definitive and material territory, and it is mentioned as a social foundation for reciprocity, solidarity and cooperation among citizens.

2 Suk-Jin Ryu, Hee-Jung Cho, and Yong-Bok Kim, *Evolution of Local*, Threechairs Company, 2020, p. 8.

3 Myung-Soo Lee, Yong-Sam Ha, Se-Ryong Chang, Eun-Sang Lee, Han Seol, and Gil-Young Park, *Community and Locality*, SimSan, 2017, p. 119.

4 Doreen Barbara Massey, *Space, Place, and Gender*, translated by Hyunjoo Je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5, p. 220.

with the audience. Finding answers to the questions raised by the activities together with the audience, we don't know in what direction our daily lives would meet local as the exhibition became a gateway to the questions asked by the activities.

First of all, we decided to remove the modifiers that were attached to each project in the past, and pay attention to the individuality of each of the various artistic activities as much as the colorful local scenery. In parallel with the archival method that clearly communicates the process of the activity, the results of the projects that are organically linked to the theme of the exhibition, and the new works. And finally, a total of 14 domestic and foreign teams, which were relatively rare to introduce in domestic art museums, were presented. However, the initial aspirations and driving force have been dampened by a longer research process than ever before. There were several projects that we usually watched with interest, but the above-mentioned type of project was so vast, and the road to meet microscopic activities taking place abroad, including Jeju Island, which is a faraway region, felt as far and tough as physical distance. In particular, there is not enough precedent for the exhibition to rethink the local itself, and a lot of time has been spent narrowing the scope of research from various types of artists born in a specific area and working as a base, as well as temporary projects. In the meantime, we met the concept of the 'relationship population'.

This is a policy word that is occasionally mentioned in articles as a major alternative to regional issues and population cliffs, but the meaning of this concept also includes the role that artists have played for many years. It was also an appropriate word to explain the various ways of life that relate to the locals as passing through the pandemic. In simple terms, relationship populations are all populations between the long-lived sedentary population and the tourist population,[5] and they relate to the region in various ways. Although they are not born, raised, and residing in a specific region, they sympathize with regional issues and situations and carry on solidarity activities. There are examples of visiting regularly, purchasing special products from a specific region, or visiting by chance and then migrating completely. This population type, which seems to prioritize qualitative value over the quantity of time related to the region, has spread in a flexible and complex way during the pandemic. The 14 teams that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are themselves a relationship population or have continued projects that form a relationship population. Even if it is not the region where they were born and raised, they make connections through chance and look at the cultural values of the region, expand the category of the region with art within a specific region or community, or break the boundaries. In other words, artists take the initiative to form relationship populations that cross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region, draw ecological and cultural values and emotional solidarity, connect regions, and temporarily form non-place communities. There are artists at the center of forming a temporary opportunity and there were projects with them. And they were at the center of the local landscape, where the social relations axis was created and spread, as it transformed.

5 Hee-Jung Cho, *People of Light, Local Relations Population*, Linked writing of ARKO Art Center Exhibition *Local in the Making*, 2022, this book p. 169.

Why Temporary Intervention?

The 14 teams' projects all drew the audience's temporary 'intervention' in a variety of ways, or required some kind of 'intervention' from several people, and also stemmed from temporary intervention by artists themselves. So to speak, the beginning that leads to local change was viewed as some 'intervention' rather than just interest, and even if it was temporarily initiated, the network of the beginning becomes solid and spreads, sometimes it becomes an opportunity of persistence. Locality is something that the power of solidarity radiates, draws out and forms. And the solidarity rather than something that must be sustained at the expense of diversity and individuality toward a common goal, it is such an alliance that can be created unconsciously, or loosely tied, and can be detached at any moment or become a fuse for another intervention and change. This sometimes critically views and re-conceptualizes the appearance of the community, and, whether temporary or continuous, the solidarity(s) becomes a driving force to change the local landscape. The change may or may not be predictable, but in the movement that drives local diversity, many opportunities that gather, expand, and permeate, work together. As 'particle identity' is important to the GenZ generation and finds value in the life of 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there is no choice for us but to pay attention to various local situations, intervene, and live within local people along the axis of our relationship with various neighbors with various identities.

The so-called community-based art has long been a platform that induces solidarity with neighbors, the backbone of networks, and a starting point for connectivity that can sustain it even after artists leave. Temporary intervention is the beginning of social relationships that trigger this porous network, and the expansion of the network reveals the diversity of life, restores the meaningful value of life, and perhaps makes it sustainable.

We've never met, but we've always been together

Experiencing games and musical instruments in a small rural village in Indonesia, that were unfamiliar to you, imagine the collective farming landscape (Komunitas Gubuak Kopi). And the hidden stories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and marine culture of Chosun, which felt psychologically distant, narrowed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tances through QRs and high-tech devices throughout the exhibition hall (GEOJE SUMDO). The history and ecological significance of a specific region has expanded contacts with the audience through human gestures and drawings formed by the tactile sounds of mountains and seas, communion with nature, and through the small window of the analog view master (Lab C). We are able to get a glimpse of the difficulties and possibilities of artists from different regions could simultaneously create non-face-to-face 'together' at the same time (OverLab.). We sympathized with the process of forming a temporary virtual residence where human/non-human beings are not subject to any discrimination and can stay safely, and also with the dynamic

and multi-layered approach in which the direction of feminism extends to equality and solidarity (NoNewWork). In addition, we received some kind of inspiration and stimulation from what barrier-conscious creation is, its beginning and process, and the way its artistic output communicates with the audience (dianalab), we looked back on the good precedents of the art project, which has been started the relationship formed by temporary intervention, that extended into a sustainable environmental movement (Wu Mali × Bamboo Curtain Studio).We were together in the process of acquiring the possibility of preserving and spreading the disappearing cultural values through the art language of video (Rojava Film Commune), and it was possible to get a glimpse of how the healing, empathy, and solidarity of the scars of the immigrant community can be accumulated and converted to resonate with the aesthetic values of artistic output (Breakwater). Furthermore, when the small daily actions of everyday life pass through the arts, it can be a meaningful way of healing method for some communities, it felt the possibility and hope of solidarity without objectification and otherization (Eunbi Kwon), we were thinking about how temporary intervention permeates each other with the local residents for forming a local story and what activities could open the door to that rapport. (Hyunjoo Kim × Kwanghee Cho). Without being misled by commercial messages about local food, the recipes of more complex and mixed individual taste drawings were used to meet ‘locals’ food’ (Small Batch Studio), or the simple act of combining random words has never been done nor imagined, but it was an opportunity to meet neighbors who were always around (Jelly Jang), we could also feel the momentary joy of solidarity as one global act by connecting the blue line and breathing (Jeppe Hein).

Even after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the story of the new relationship established with locals continued to accumulate. Part of Breakwater’s work, coco peat (soil), will be used thematically, media-wise, or kept and recycled as a sign of solidarity by someone. The final winner of the domino game held during the exhibition symbolically joined in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drinking water activity in Solok, Indonesia. In the imaginary temporary residency, the images of the dwelling place that the audience thought of were piled up, and the interview with the villagers living in the Ppaeppeorl village in Uijeongbu was revived in the exhibition hall with different voices, closely keeping the psychological distance of the audience. In the Seoul Locality Recipe, more than 400 localities of various flavors were formed by the accumulation of local recipes mixed by each audience. Carpets from far away Syria will be used for another occasion in the recycling center, and Jeppe Hein’s breathing watercolors, which was conducted temporarily with many people, will be colored with continuous breathing lines on the artist’s online platform with people from various regions of the world, even after the exhibition is over. Numerous activities and movements that take place in places where you don't live, local aspects that are placed in a situation of change due to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with many people, all of them was a meeting with the locals by sympathizing and making solidarity with the situations in different ways, and by artistic creativity and conversion formed through the intervention of artists. It was a temporary emotional solidarity, but it was an opportunity to consider more active ways of social intervention and to reorganize into practical senses of ‘connections’ that spread from neighboring neighborhoods to places, villages, region, and regions. There are countless local stories to look into and pay attention to, and we have just taken one step on the journey of that change.

장소와 예술의 다공성 경계들

조선령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공간과 장소, 글로벌과 로컬

1989년 출간된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에서 마르크스주의 지리학자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모더니티와 함께 시작된 "시공간 압축"[1]이 포스트모더니티의 시대에 극명해졌다고 주장한다. 하비에 따르면, 자본회전시간의 가속화는 장소의 특수성을 삭제하고 공간적 장벽을 붕괴시켰으며 "시간을 통한 공간의 절멸"[2]을 극단화시켰다.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달은 르네상스가 만들었던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붕괴시켰으며, 이에 따른 경험과 실재의 불일치는 현기증과 방향상실을 초래했다. 이러한 위기에 맞서 '지역성'을 옹호하는 대응 전략을 하비는 본질적으로 퇴행적이고 보수적인 것으로 본다. 진보적인 노동운동도 특정 장소의 정체성에 기반 할 경우 배타적 지역주의나 민족주의의 희생양이 되기 쉬우며[3], '고향'에 뿌리박은 독일 민족의 신화를 신봉한 나치즘은 그 극단적 귀결이라는 것이다.[4] 반면 다음 세대 지리학자 도린 매시(Doreen Massey)는 '장소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하비와 입장을 달리한다. 매시는 특정 장소에 고유한 본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관점을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하비와 노선을 같이 하지만, 하비가 장소와 로컬에 근거한 운동 자체를 퇴행적으로 본 것에는 반대한다. 반대로 매시는 로컬 연구의 중요성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시공간 압축'이 모든 지역, 모든 집단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5] 어떤 집단은 시공간의 압축 때문에 오히려 특정 장소에 갇히기도 하고, 동일한 시공간도 인종과 젠더에 따라 전혀 다르게 경험된다. 따라서 로컬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는 "권력의 기하학"[6]을 섬세하게 살펴보는 방법이 된다.

장소와 로컬에 대한 관심 자체를 퇴행적으로 보는 하비의 관점 뒤에는 공간과 시간의 이분법적 대립이 도사리고 있다고 매시는 지적한다. 매시는 존재(Being)보다 생성(Becoming)을 더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하비의 관점[7]이 공간을 정태적, 수동적인 것으로 보고 시간을 역동적, 능동적인 것으로 보는 서구의 역사적 전통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공간을 여성적인 것으로, 시간을 남성적인 것으로 보는 젠더차별적 시각과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한다. 매시는 하비가 보편적이라고 믿는 원칙이 사실은 '서구, 백인, 남성, 이성애자'의 시각에 다름 아님을 지적한다. 매시는 또한 하비가 지적하는 비장소성의 문제가 비단 오늘날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제3세계 피식민지인들에게는 "집(고국)이라고 불리는 장소의 경계가 이미 오래전에 와해되었으며"[8], 여성의 경우도 남성의 공간에서 배제된 자로 간주되었기에 안정된 장소 정체성 바깥에 위치해왔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매시는 그 어떤 장소도 단일하거나 본질적인 정체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장소 정체성은 항상, 그리고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다."[9] 장소는 갈등과 차이를 지닌 역동적 실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시는 특정 지역의 정체성이 내재적 역사에 의해서만 형성된다는 관점 역시 비판한다. 이와는 반대로 로컬의 정체성은 '외부'와의 관계, 즉 다른 로컬과의 관계, 그리고 글로벌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형성된다는 것이다. 매시에 따르면, 로컬이냐 글로벌이냐 하는 것은 스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벌이 추상적이고 로컬이 구체적이라는 시각은 "지리적 스케일과 사유의 추상화 과정을 혼동한 것이다."[10] 로컬 역시 추상적 원리로 설명될 수 있으며, 글로벌 역시 구체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로컬은 글로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동시에 글로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로컬과 글로벌은 상호작용을 주고 받는다. 로컬 연구의 역할을 단지 '사례 연구'로 간주하거나 로컬을 지리적 경계로 한정하려는 시각을 비판하면서, 매시는 로컬리티가 "단순히 선으로 경계를 그을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는 것"[11]이 아니라 "일련의 사회적 관계나 과정을 통해 정의될 수 있다"[12]고 주장한다.

매시는 항상 자본의 승리로 결론을 내리는 하비의 비관적 전망에 반대하며, 사회적 관계들이 로컬을 변화시키고 글로벌을 변형시키는 능동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하비는 책 말미에 약간의 대안으로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언급하는데, 이 경우도 그는 이를 '국제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매시의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로컬이 획득한 새로운 성격이다. 로컬을 내부로부터 폐쇄된 안정된 테두리로서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교차하는 특정하고 고유한 지점"[13]으로 보게 되면, "진보적 장소감"[14]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시의 견해이다. 매시를 비롯한 일련의 이론가들이 주창한 '관계적 지리학'은 로컬리티의 이러한 다중성, 복합성, 유동성을 중심에 두는 연구방식이다. 정현주에 따르면, 페미니즘적 연구는 관계적 지리학에서

1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희, 박영민 옮김, 한울, 1994, p.282

2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p.263

3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p.353

4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p.324

5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옮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p.265-266.

6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p.267

7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 모더니티의 조건』, p.414

8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p.300

9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p.309

10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p.233

11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p.250

12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p.250

13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p.278

14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p.272

중요한 기여를 했다.[15] 예를 들어 '이주의 여성화'를 연구하는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거대기업의 자본에 의한 세계화만이 아니라, 그 패러다임에서는 무시되지만 실제로 제1세계의 경제 유지에 큰 역할을 하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현상에 주목했다. 고국의 가족을 떠나 외국에서 가사도우미 등으로 일하면서 본국에 돈을 송금하고 본국의 가족들과 계속 유대를 갖고 있는 이주 여성노동자들이 그 주체들이다.

하비의 책이 출간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시공간 압축'에 압도되거나 방향을 상실한 상태에 있지 않다. 세계화가 가져다준 장소의 탈구는 이미 보편적 현상이다. 장소의 물리적 실재와 장소 경험의 불일치는 일상이 되었다. 물론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는 대체로 장소가 네트워크의 집합점이라는 매시의 주장을 잘 이해한다. 온라인과 같은 가상공간은 단순히 '장소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로 경험된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 사실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집 앞 100미터에 있는 가게는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은 줌 미팅룸을 통해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이다. "시공간 압축이라는 이 시대에 부합하는 장소감은 어떤 것일까?"[16]라는 매시의 질문은 우리 시대에 잘 어울린다.

식민지와 분단, 내전을 경험한 한국의 경우, 특정 장소의 변하지 않는 내적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혼란과 균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좌파 민족주의'라는 특이한 담론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지역 문화 운동에서도 종종 나타났던 이러한 방향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우리 지역만의 특성'을 찾으려는 시도로 이어졌으며 종종 방어적 지역주의로 귀결되었다. 이 현상 뒤에 놓여 있는 것은 서울로 대표되는 '중앙'과 '지방(지역)'의 대립이 다. 반면 오늘날 스스로를 '로컬 디자이너' 혹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지칭하는 일군의 문화기획자들(그 상당수가 청년 세대이다)의 활동은 과거의 지역 문화 운동과 상당히 다른 맥락을 갖는다. 이들은 특정 지역의 본질적 정체성을 찾는 데 관심이 없으며,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생활을 관심 대상으로 삼되 그것을 다른 지역과의 개방적 관계 속에서 유연하게 바라본다. 이들의 활동이 이미 존재하는 대립 구도를 온전히 극복할 수는 없다 해도, 새로운 로컬리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매시의 이론을 참조하는 아르코미술관의 전시 《일시적 개입(Local in the Making)》은 이처럼 '관계적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여러 지역에서 기획자, 작가로 활동하는 콜렉티브들의 작업을 조명해보는 전시이다.

15 정현주, 「이주, 젠더, 스케일 :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제6호, 2018, pp.894 - 913

16 도린 매시, 『공간, 장소, 젠더』, p.263

로컬리티의 재구성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인 '관계인구'는 《일시적 개입》에 초대된 콜렉티브들의 활동 영역과 느슨히 겹친다. '관계인구'란 특정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통근, 통학, 업무 등으로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여러 이유로 거주지가 아닌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등을 지칭한다. 《일시적 개입》에도 '관계인구'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획자, 작가들이 다수 참여했지만, 중요한 것은 '출신지'나 거주지 그 자체가 아니라 이들이 만드는 새로운 관계적 로컬리티이다. 또한 이들이 개입하는 로컬의 특성 자체가 혼성적이고 다중적(예를 들어 미군 부대가 들어와 있는 의정부 '빼뻘' 마을)이거나 그 어디에도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는 지역(예를 들어 바다)이기도 하다.

《일시적 개입》에 초대된 콜렉티브들의 활동이 '내부적'인지 '외부적'인지 경계를 긋는 것은 어렵다. 예를 들어 '섬도'의 경우를 보자. 경남 거제에서 활동하는 섬도의 김은주 대표는 거제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김은주 대표는 거제를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타지에서 온 사람'으로 지칭된다. 우리는 때로 특정 지역에만 거주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지역의 특색을 집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한다. 지역인의 시각은 종종 너무 주관적이거나 반대로 지역을 타자화하는 '중앙'의 시각을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외부에서 온 사람, 여러 지역을 경험해본 사람이 지역의 특징을 더 잘 파악할 수도 있다. 섬도가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은 배타적인 지역 정체성 옹호와 그 반대편에 있는 정체성 상실을 모두 극복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바다는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추상적 바다 일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제, 부산, 울산, 마산의 바다가 있다. 섬도는 거제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원예를 통한 힐링을 제공한 〈블루컬러의 정원〉(2015)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한반도 남해안의 해양산업을 다룬 리서치, 워크샵, 전시, 세미나 등을 개최해왔다. 2020년, 문 닫은 조선소에서 작가, 심리치료사, 디자이너, 건축가 등이 함께 꾸렸던 전시 《첫 번째 파도》에 이어, 2022년에는 선박을 타고 남해안을 탐사하는 리서치 여행과 퇴역한 해양탐사선에서의 전시로 구성된 《두 번째 파도: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를 기획했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들의 현실을 담는다는 점에서 장소 특정적이면서도 지역의 경계를 넘는 바다를 무대로 한다는 점에서 폐쇄적 경계 긋기를 벗어난다. 이러한 특성은 부산에서 활동하는 '실험실 C'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숲 큐레이터' 박미라와 아트 큐레이터 창파(김혜경)를 주축으로 여러 협업자들이 함께 하는 실험실 C는 2018년부터 생태, 지역, 예술을 키워드로 부산의 로컬리티를 탐구하는 프로젝트들을 기획해왔다. 이들은 2020년에 부산시 동구의 수정산을 배경으로 두 차례의 '산책' 프로그램과 아카이브 전시로 구성된 〈소요의 시간〉을 선보였다. 흔히 부산의 지역 정체성을 '바다'에 두는 상투적 시각으로 보면 이는 뜻밖의 선택이다. 그러나 부산은 바다만이 아니라 산이 많은 지역이다(이는 '부산'이라는 이름에서도 드러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객-여행자들은 수정산을 함께 산책하면서 지역의 생태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작품들을 감상/체험했다. 바다를 선택할 경우에도 이들은 특정 바다의 구체적 현실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본다. 2022년의 〈1제곱미터의 우주〉는 부산 사하구의 다대포 해변과 몰운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이었다. 참여자들은 한때 목재산업의 중심지였던 다대포가 어떻게 쇠락해갔는지를 이해하고, 다대포의 자욱한 안개를 틈타 일본으로

밀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모인 작가들의 일시적 설치 작품들이 곳곳에서 참여자들을 맞이한다. 작품들은 다대포의 생태나 역사를 모티프로 삼는 한편 지구의 역사와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바다 같은 거시적 지점으로 확장된다. 지역의 생활과 생태를 탐구하면서도 '부산만의 것'을 찾기보다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라는 보편적 주제에 접근하는 실험실 C의 활동은 '외부의 시선'인 동시에 '내부의 시선'이다. 이들의 활동은 경계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것을, 매시의 표현처럼 "다공성(porous)"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경계는 해체될 뿐 아니라 재구성된다. 경계의 재구성은 특정 국가 안에서만이 아니라 초국가적으로도 나타난다. 《일시적 개입》에는 국가를 매개로 하지 않고서도 로컬과 로컬을 연결하는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광주에 기반하면서 필리핀 비사야 제도의 작가들과 협업하여 작품을 함께 만들어온 오버랩의 활동, 2차 대전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독일 베르나우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한국식 빨래를 하고 비누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권은비의 작업 등이 여기 속한다. 난민, 망명자, 무국적자 등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는 로컬리티의 취약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시리아 북동부의 로자바(Rojava)는 시리아 정부에서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온 쿠르드인이 중심이 되어 2012년 만들어진 자치 지역이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가 로자바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곳은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시리아 내 어떤 지역보다 평등한 문화와 높은 생활수준을 자랑한다. 2015년 결성된 로자바 필름 코뮨(Rojava Film Commune)은 페미니즘, 생태주의, 다양성 존중을 기치로 하는 로자바의 실험을 영화라는 매체에 담는 콜렉티브이다. 지역민들을 교육하고 함께 영화를 만드는 '로자바 영화 아카데미'와 '로자바 국제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이들은 어떻게 민족, 국가, 종교, 젠더의 단단한 경계가 연대와 상생에 기초한 새로운 수평적 네트워크로 대체될 수 있는지 모색한다.

어떤 지역이 외부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됨으로써 로컬리티 개념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다.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의 농촌지역 솔록(Solok)을 거점으로 하는 코무니타스 구부악 코피(Komunitas Gubuak Kopi)의 활동이 여기 속한다. 이들은 여러 지역에서 작가, 기획자, 연구자,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전시, 축제, 워크샵, 토크, 프리젠테이션, 상영회 등 만남의 플랫폼을 만든다. '지역 청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기본 기치로 삼는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비디오 매체는 솔록의 현실을 담는 도구이자 외부로 향하는 네트워크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 음식을 매개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스몰 바치 스튜디오(Small Batch Studio)의 〈서울 로컬리티 레시피〉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고유한 식재료'가 없다는 사실을 역으로 이용해 서울 거주자들 각자의 기억 속에 있는 음식 레시피를 소환하여 서울의 로컬리티를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이다. 흔히 지역성을 초월한 '보편적 장소'로 명명되는 서울을 로컬의 일부로 전시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일시적 개입》은 진전된 시각을 보여준다.

예술의 다공성 경계

일반적으로 미술관은 일상과 구별되는 '가상의 공간'으로 이해된다. 물리적으로는 물론 현실의 일부이지만, 현실의 법칙들이 상징적으로 정지되는 예외적 장소이기 때문이다. 좌대가 있는 조각이 주변 공간과 물리적 속성을 공유하지만 상징적으로는 '다른 공간'에 속하듯이, 전시장은 일상이 중지되는 곳 혹은 장소의 특성을 삭제한 일종의 '비장소'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적지 않은 수의 전시장은 일상의 다른 장소들과 상징적으로도 구별되지 않는다. 《일시적 개입》은 작품을 보여주는 전시도, 아카이브를 보여주는 전시도 아니다. 전시장은 관객에게 '실제적 체험'의 장소로 제공된다. 전시장은 방이나 게임룸처럼 꾸며져 있다(VR이나 만화경 같은 도구, 게임 테이블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너들이 곳곳에 있다). 전시 기간 동안 계속되는 퍼포먼스, 워크샵, 관객 체험 프로그램 등도 이러한 성격의 연장이다. 수행과 전시,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는 로컬의 경계만큼이나 다공성임이 드러난다. 일상적 공간과 전시장이 상징적으로도 분리되지 않는 이러한 전시 유형은 일시적 유행일까,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징후들일까?

예술작품을 관조의 대상이나 결과물로 보지 않고 실천적 행위, 집단적 수행으로 보는 시각은 사실 니콜라 부리요(Nicolas Bouriaud)의 『관계미학』(1998) 이래 낯설지 않다. 그런데 부리요는 이 책에서 자신이 관계미학과 연결시킨 작업들이 "미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17]고 계속 강조한다. 그가 '형태'라고 부른 (상당히 모호한) 개념은 이 미학적 특성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다. 부리요의 이 강조가 무색하게도, 클레어 비숍(Claire Bishop)은 관계미학이 "미학적인 것과의 관계를 부인한다"[18]고 비판한다. 윤리와 미학의 관계는 하비에게도 중요한데, 하비는 비숍과 정반대로 말한다. "미학으로의 회귀"[19], "미학이 윤리를 압도"[20]하는 것은 하비에게 항상 퇴행의 징후로 해석된다. 미학 그 자체가 퇴행적이라는 하비의 완고한 견해에 우리가 동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행적 작업에서 '미적인 것'이 무엇인지 답하지 못한다면 하비의 말을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단지 수행이 어떤 '아름다운 형태'를 갖는다는 의미일까? 그렇다면 '미적인 것'은 불필요한 장식이거나 최악의 경우 내용을 덮어 가리는 방해물일 것이다. 아니면 작업이 지시대상 없이 '미지의 X'를 겨냥한다는 의미일까? 그렇다고 보기엔 최근의 수행적 작업들은 뚜렷한 대상을 갖는다. 하지만 로컬에 대한 '예술적 접근'은 특정한 대상이 그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과학적 연구나 논리적 기록과 구별되는 '미적인 것'의 역할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일시적 개입》은 장소와 로컬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예술의 경계에 대해 질문을 던져준다.

17 니콜라 부리요, 『관계의 미학』, 현지연 옮김, 미진사, 2011, p.28

18 Claire Bishop,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 Verso, 2012, p.36

19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p.379

20 데이비드 하비,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p.380

The Porous Boundaries of Place and Art

Cho Seon-Ryeong
Associate professor of Art, Culture and Imag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Space and Place, Global and Local

In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published in 1989, Marxist geographer David Harvey argues that "time-space compression"[1] that began with modernity became stark in the postmodern era. According to Harvey, the acceleration of time of capital turnover eliminated the specificity of the place, collapsed spatial barriers, and polarized "annihilation of space through time."[2] The rapid development of capitalism collapsed the concept of homogenous and universal time and space created by the Renaissance, and the resulting discrepancy between experience and reality resulted in dizziness and loss of direction. Harvey asserts that a response strategy that advocates 'locality' in the face of this crisis is essentially regressive and conservative. The progressive labor movement is also a victim of becoming the scapegoat of exclusive regionalism or nationalism[3] based on the identity of a particular place, and Nazism, which beliefs in the myth of the German people rooted in their "hometown", is the ultimate consequence.[4] On the other hand, the next-generation geographer Doreen Massey takes a different stand from Harvey, insisting on the need for a "place study". Massey shares the route with Harvey in the sense of criticizing the perspective of claiming that a particular place has its own essence. however, she disagrees with Harvey's regressive view of the movement itself based on location and locality. On the contrary, Massey argues the importance of local study because 'time-space compression' does not occur equally in all regions and groups.[5] Some groups are rather trapped in certain places due to the compression of space-time, and the same space-time is experienced completely differently depending on race and gender. Therefore, the study of local specificity becomes a way to examine the "Power-geometry"[6] in detail.

Massey points out that behind Harvey's view of the interest itself in place and locality as regressive, there is a dichotomous confrontation lurking between space and time. Massey claims that Harvey's view[7] of regarding 'Becoming' as more progressive than 'Being' comes from a Western historical tradition of viewing space as static and passive and time as dynamic and active and it has many parallels with a gender-discriminatory view of space as feminine and time as masculine. Massey indicates that the principle that Harvey believes to be universal is in fact, no other than the perspective of "western, white, men, and heterosexuals". Massey also says that a matter of non-place Harvey points out is not occurring just today. For the third-world colonists "the boundaries of places called homes (home countries) have already collapsed long time ago,"[8] and women were also have been located outside the identity of stable places because they were considered excluded from men's space. Furthermore, Massey asserts that no place has a single or essential identity. Conversely, "place identity is always and continues to be produced".[9] Place is a dynamic entity with conflict and difference.

From this point of view, Massey also criticizes the view that the identity of a specific region is formed only by intrinsic history. On the contrary, local identity is formed only by relationships with the 'outside', namely, those with other locals, and global. According to Massey, since whether it is local or global is a matter of scale, the view that global is abstract and local is concrete "confuse geographical scale with the process of abstracting thinking".[10] Local can also be explained by abstract principles, and global also works specifically. Local is influenced by global and at the same time, it also has an effect on global. That is local and global exchange interactions. Criticizing the view of local study as merely a 'case study' or limiting local to geographical boundaries, Massey claims that locality "can be defined through a series of social relationships or processes,[11] not simply mean a spatial extent that can be drawn by lines."[12]

Massey opposes Harvey's pessimistic outlook that always concludes with a capital victory, and thinks that social relationships play an active role in changing local areas and transforming the global. Harvey mentions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of workers as an alternative at the end of the book, which he also calls 'internationalism'. However, from Massey's point of view, the creation of a global network itself is a new character acquired by the locals. Massey's opinion is that it is possible to talk about "a progressive sense of place"[13] if the local is viewed as a "specific and unique spot where networks intersect"[14] rather than as a stable boundary closed from the inside. 'Relational Geography' advocated by a series of theorists including Massey is a research method that puts emphasis on the redundancy, complexity, and fluidity of locality. According to Jeong Hyun-Joo, feminine research made a highly important contribution to relational geography.[15] For example,

1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 Modernity*, Translated by Koo Dong-hee and Park Young-min, Hanul, 1994, p.282

2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 Modernity*, p.263

3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 Modernity*, p.353

4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p.324

5 Doreen Massey, *Space, Place, Gender*, translated by Jeong Hyun-joo,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and Culture Center in 2015, p.265~266

6 Doreen Massey, *Space, Place, Gender*, p267

7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p.414

8 Doreen Massey, *Space, Place, Gender*, p300

9 Doreen Massey, *Space, Place, Gender*, p309

10 Doreen Massey, *Space, Place, Gender*, p233

11 Doreen Massey, *Space, Place, Gender*, p250

12 Doreen Massey, *Space, Place, Gender*, p250

13 Doreen Massey, *Space, Place, Gender*, p278

14 Doreen Massey, *Space, Place, Gender*, p278

feminist scholars studying the 'feminization of migration' noted not only the globalization by the capital of large companies but also the phenomenon of 'globalization from below', which is ignored by the paradigm but practically plays a huge role in maintaining the economy of the first world. The main subjects are the migrant female workers who leave their families and work as housekeepers in foreign countries, send money to their home countries, and continue to have close ties with their families in their own countries.

Today, more than 30 years after Harvey's book was published, we are no longer overwhelmed or in a state of disorientation by "time-space compression". The dislocation of places brought by globalization is already a universal phenomenon.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hysical reality of the place and the experience of the place has become a daily routine. Of course, although there is fear of uncertainty, today we generally understand Massey's argument well that places are the gathering point of a network. Virtual spaces like online do not simply mean 'deprivation of places', but are experienced as 'new places'. The COVID-19 pandemic has shown this fact in an extreme way. Although the store 100 meters away in front of the house is inaccessible, the person thousands of kilometers away is right next to me in the zoom meeting room. Massey's question, "what will be the sense of place that corresponds to this era of time-space compression?"[16] goes well with our times.

In the case of Korea which has experienced colony, division, and civil war, its attempts to find the unchanging internal identity of a particular place appeared strong as a defense measure against confusion and cracks. The unusual discourse of 'left-wing nationalism' is the very case in point. This direction that often appeared in local cultural movements led to attempt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our own region that are not found in other regions' and often resulted in defensive regionalism. What lies behind this phenomenon i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central' represented by Seoul and the 'local(region).' On the other hand, the activities of a group of cultural planners (many of them are young generations) who refer to themselves as 'local designers' or 'local creators' today have a considerably different context from the local cultural movements of the past. They are not interested in finding the essential identity of a particular region, but rather interested in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the lives of local people objects giving a flexible look at them in an open relationship with other regions. Even if their activities cannot completely overcome the existing conflict composition, it could be said that they show the possibility of a new locality. *Local in the Making*, the exhibition of ARKO Art Center referencing Massey's theory is an exhibition that sheds a light on the works of collectives working as curators and artists in various regions from the perspective of a 'relational network'.

15 Jeong Hyun-Joo, *Migration, Gender, Scale: New Trends and Issues in the Feminist Migration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43, No. 6, 2018, pp.894~913

16 Doreen Massey, *Space, Place, Gender*, p263

Reconstitution of Locality

The concept of 'Related population' that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loosely overlaps with the area of activity of collectives invited to *Local in the Making*. 'Related population' refers to not people who have lived in a particular area for a long time, but those who temporarily reside in the area, who regularly visit the area for commuting to work, commuting to school, or business, and who have a continuing relationship with a non-residential area for various reasons. Even though a lot of planners and writers who can be called 'Relational population' participated in *Local in the Making*, the important thing is not the 'Place of origin' or the place of the residence itself, but the new relational locality they create. In addition, the local characteristics they intervene in are hybrid and multiple (e.g., Uijeongbu's 'Ppaepeorl' village where U.S. troops are located) or areas that do not belong exclusively to anywhere (e.g., sea).

It is difficult to draw a boundary on whether the activities of the collectives invited to *Local in the Making* are 'internal' or 'external'. Let's have a look at the case of 'SUMDO' for example. Kim Eun-joo, leader of GEOJE SUMDO, who works in Geoje, Gyeongsangnam-do, is from Geoje and returned to her hometown after attending university in Seoul. However, leader Kim Eun-joo is referred to as a 'stranger from out of town' by those who have never left Geoje. We sometimes experience that people who have lived only in a particular area cannot pick ou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area. This is because the perspective of the local people is often too subjective, or on the contrary, internalizes the perspective of the 'center' that otherizes the region. Rather, people from outside and those who have experienced various regions may have a better grasp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The GEOJE SUMDO's slogan of the "Sea belongs to no one" seems to be a willingness to overcome both the exclusive advocacy of regional identity and the loss of identity on the other side. Although the sea is not anyone's, there are no abstract general seas, but the seas of Geoje, Busan, Ulsan, and Masan. Starting with the program of *a garden of bluecollar* (2015), which provided healing through gardening to workers working at Geoje Shipyard, it has held research, workshops, exhibitions, and seminars, etc. dealing with the marine industry on the south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Following the exhibition *Wave 1* organized together with artists, therapists, designers, architects, etc. at the closed shipyard in 2020, it planned *Wave 2: Steel Ark, Drifting Agora* consisting of a research trip to explore the south coast by ship and an exhibition on a retired marine exploration ship in 2022. Their activities are place-specific in the way that they include the reality of the regions, and they are beyond the closed boundaries in the way that they make the stage the sea that crosses the boundaries of the region.

This characteristic also appears in the case of Lab C which works in Busan. Lab C, working with several collaborators centering around 'forest curator' Park Mira and art director Chang Pa (Kim Hye-kyung), has been planning projects to explore Busan's locality with the keywords of ecology, region and art since 2018. In 2020, they presented *Time to Ramble* consisting of two 'Walking' programs and archive exhibitions against the backdrop of Sujeong Mountain in Dong-gu, Busan, This is an unexpected choice from the conventional view of

putting Busan's regional identity in the 'sea'. However, Busan is not only a sea but also a mountainous area (this is also revealed in the name 'Busan'). While taking a walk together on Sujeong Mountain, audience-travel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listened to stories about the ecology and history of the region, appreciated, and experienced the works. Even in case of choosing the sea, they look at the specific reality of a particular sea from various angles. *Cosmos in one square meter* in 2022 was a program touring Dadaepo beach and Molundae in Saha-gu, Busan. Participants understand how Dadaepo, once the center of the timber industry, fell into decline, and listen to the stories of people who smuggled to Japan under the cover of thick fog in Dadaepo. In addition, the temporary installation works by artists gathered from various regions welcome participants everywhere. While using Dadaepo's ecology or history as a motif, works expand to macroscopic points such as the sea which is like the history of the earth and source of life. Lab C's activity, which approaches the universal theme of nature-human relations rather than looking for 'Busan's own thing' while exploring the life and ecology of the region, is both an 'external gaze' and an 'internal gaze'. Their activities show that the boundary has many holes, as Massey's expression of 'porous'.

Boundaries are not only dismantled but also reconstructed. The reconstruction of boundaries appears not only within a specific country but also transnational. *Local in the Making* includes activities that connect local to local without the need for a national medium. These contain the activities of OverLab. that have been conducted in collaboration with artists from Visayan Islands in the Philippines while based in Gwangju, and the works by Eunbi Kwon who conducted a program to do Korean-style laundry and make soaps with the residents in Bernau, Germany, where the trauma of World War II remains. The place where refugees, asylum seekers, stateless people, and others temporarily reside shows the vulnerability and flexibility of locality at the same time. Rojava, in northeastern Syria, is an autonomous region created in 2012 centered on Kurdish people whose existence the Syrian government had denied without recognizing them as citizens. Although almost all countries on the planet do not recognize Rojava as a nation, it practices direct democracy based on cooperatives and boasts an equal culture and higher standard of living than any other region in Syria. The Rojava Film Commune, formed in 2015, is a collection of Rojava's experiments based on feminism, ecology, and respect for diversity in the medium of film. By hosting the 'Rojava Film Academy' and the 'Rojav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hich educate the local people and make films together, they explore how the hard boundaries of race, nation, religion, and gender can be replaced by a new horizontal network based on solidarity and co-existence.

There is a case where an area expands the concept of locality by becoming a meeting place for various people from outside. This includes the activities of Komunitas Gubuak Kopi based in Solok, a rural area of Sumatra in western Indonesia. They invite artists, curators, researchers, and activists from various regions to create a meeting platform, including exhibitions, festivals, workshops, talks, presentations, and screenings involving local people. The video media, which is liked to be used by those who take 'cultivating media literacy of local young people' as their basic banner, serves as a tool to include Solok's reality and plays a bridgehead role for the outward-facing network. *Seoul Locality Recipe* by Small Batch Studio which plans food-based programs, is a work to reorganize Seoul's locality by summoning food recipes in each Seoul residents' memories, reversely taking advantage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unique ingredient' in the city of Seoul. *Local in the Making* shows an advanced perspective in the way that Seoul, commonly referred to as a 'universal place' that transcends locality, was included in the exhibition as part of the locality.

The porous boundaries of art

In general, art museums are understood as 'virtual spaces' that are distinguished from everyday life. Although it is physically of course a part of reality, this is because it is an exceptional place where the laws of reality are symbolically stopped. Just as a sculpture with a pedestal shares physical properties with the surrounding space, but symbolically belongs to another space, the exhibition hall was regarded as a place where daily life was suspended or a kind of 'non-place' that dele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lace. However, a fair number of exhibition halls today are not symbolically distinguished from other places in everyday life. *Local in the Making* is neither an exhibition showing works nor an exhibition showing archives. The exhibition hall is provided to the audience as a place for a 'practical experience.' The exhibition hall is decorated like a room or game room (there are corners everywhere where the audience can participate directly using devices such as VR or kaleidoscope, game tables, etc.). Performance, workshops, and audience experience programs, etc. that continue during the exhibition period are also the extension of this character. The boundaries between performance and exhibition, art and non-art turn out to be as porous as the boundaries of the locality. Is this type of exhibition, where everyday space and exhibition halls are not symbolically separated, a temporary trend, or signs showing more fundamental changes?

In fact, it is not unfamiliar to see artworks not as objects of contemplation or results but as practical actions and collective performance since Nicolas Bourriaud's *Relational Aesthetics* (1998). However, Bourriaud continues to emphasize in this book that the works he has linked to relational aesthetics should be "evaluated according to aesthetic standards".[17] The concept he called 'form' (considerably ambiguous) is another name referred to as this aesthetic trait. Overshadowing Bourriaud's emphasis, Claire Bishop criticizes relational aesthetics as "denying its relationship with aesthetics."[18]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s and aesthetics is also important to Harvey, who speaks the opposite of Bishop. "Return to aesthetics" and "Aesthetics overwhelms ethics"[19] are always interpreted as signs of regression for Harvey. It is difficult for us to agree with Harvey's stubborn view that

17 Nicolas Bourriaud, *Relational Aesthetics*, translated by Hyun Ji-yeon, Mijinsa, 2011, p.28

18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p.379

19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p.380

aesthetics themselves are regressive. However, it may not be easy to contradict Harvey's words unless we can answer what "an aesthetic thing" is in performance work. Does it simply mean that performance has a certain 'beautiful form'? Then 'an aesthetic thing' would be an unnecessary decoration or, in the worst case, an obstacle that covers the content. Or does it mean that the work is aimed at 'unknown X' without a direct introduction? In that sense, recent performance tasks have clear targets. However, the 'artistic approach' to locality may be a way to prevent a specific object from remaining as the object. Here may be the role of 'an aesthetic thing' that is distinguished from scientific research or logical records. *Local in the Making* asks questions about not only the matter of place and locality, but also the boundaries of art.

보이는 말들의 그물코

김종길
미술평론가

“상상적 공동체를 일시적으로 형성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술 활동으로 고찰해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계들이 교차하며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로컬의 재구성을 바탕으로”

“이를테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지역 문제에 예술적 활동으로 개입하기도 하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서로의 이웃들과 맺는 새로운 활동을 작업의 근간으로 삼기도 합니다.”

_ 전시 오디오북 스크립트에서

≠0. “뒤 열려 감(往)이요, 앞 닫혀 옴(來)이다. 가옴에 숨(氣)이다.”[1]

《일시적 개입》의 작업들은 앞 닫힌 시간들의 뒤를 다시 열어서 말의 그물코를 지어 올린 서로 다른 이야기들의 봉죽 깃발이요, 다섯 색깔의 룽다 같았다. 앞 닫힌 시간은 과거(過去)요, 뒤 열린 시간은 미래(未來)다. 뒤가 열려 가는 감이요, 앞이 닫혀 오는 옴이다. 가고 오는 그 사이에 늘(常)이 있다. 늘은 앞뒤가 열린 시간이다.

아르코미술관에 펼쳐진 작업들은 더불어 여기를 살아도 늘 거기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뒤 열린 흐름에서 다소 비껴간 가장자리였다. 그들의 닫힌 말들은 뒤를 열지 못한 채 어제에 갇혔고, 예술가들은 그 갇힌 말들을 꺼내서 ‘예술하기’로 이미지 문장을 새로 지었다. 중심과 주변을 구분하지 않으면 결코 뒤를 열지 못하는 억지힘의 아집과 욕망이 문장의 껍질에서 엿보였다. 서둘러 앞을 닫아야 했던 억지힘 가진 사람들의 껍질을.

1 경향신문 문화면, 「김종길의 다석 늙은이(老子) 읽기(72)-가는데 줄이 없고」, 2023.1.5.

그러나 그 속은 앙버티어 이겨낸 삶의 무늬들로 솟아올랐다. 전시를 보는 내내 산숨(生氣)이 훅훅 다가온 이유일 터.

모든 작업들이 어떤 결계를 풀듯이 앞 닫힌 시간을 풀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앞뒤가 늘로 열려 있는 시간들은 살아 온 무늬가 그대로 쌓여서 빛났고, 또 말들이 그물을 이루며 펼쳐진 어떤 이야기들은 낮은 목소리로 타고 들면서 숭고했다. 예술가들은 ‘일시적 개입’으로 들어간 자리에서 예술이라는 씨알의 앎을 텄다. ‘앎’(知)은 우리말로 “알다, 깨닫다, 느끼다, 분별하다, 기억하다, 들어서 알다, 보아서 알다, 사귀다, 나타나다, 다스리다”의 뜻을 가졌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이러한 ‘앎’(知)의 뜻말처럼 감각적이고 심리적이며 관계적이고 정치적이기까지 해서 쉽게 스며들지 않는다.

예술을 ‘나의(혹은 우리의) 예술하기’로 바꿔 나갈 때 필요한 것은 단지 ‘남들을/상황을/사건을’ 이해하는 생각만이 아니라, 솟아오르는 말글로의 완전한 전환이요 창조여야만 할 터이다. 오롯이 ‘나의(혹은 우리의) 말글’로 바꾸려는 예술하기의 실천이 시작되어야만 비로소 예술은 내게로 들어올 수 있을 테니까. 그런 혁명적 실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삶이 잉태한 말글과 말뿌리에 대한 탐색이 아닐까. 싱싱한 말글로 전환된 이야기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삶과 그 말글 속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말이다.

《일시적 개입》의 작가/팀은 이미 익은/익힌 말글과 말뜻에 현혹되지 않았고, 삶이 지어낸 날것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길어 올린 말과 이미지들은 그래서 비릿하고 미끌거렸다. 사부작사부작 걸어간 발자국이 온몸에 느껴졌다. 날것과 익힌 것들을 사유하는 시간들이 흥미로웠다.

≠1. “사회적 관계들이 교차하며 변형하고 생성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로컬리티”[2]

《일시적 개입》이라는 전시를 어떻게 풀어 말할 수 있을까? 이미 있는 전시들로 이 전시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있는 전시들도 앞 닫힌 시간 속에 존재하기에 그렇다. 그러면 이 전시는 완전히 새로운 전시일까? 아니다. 전시라는 문장의 형식은 비슷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

유라시아 서쪽과 동쪽지역의 무늬로 기획하고 예술의 언어로 지은 이미지 문장들이 미술관에 섰으니, 전시는 전시이되 짓고 일으키는(作) 사건의 이야기들이 품(品)을 이룬 그물코여서 보아도 쉽게 쥐어 잡을 수 없는 전시였다. 수다한 말들이, 그 쌓인 말들의 이야기가, 앞 닫힌 시간조차 헤아리기 어려운 사건들이 그물코에 걸려서 버둥거렸으나 전시로 당긴 벼릿줄은 하나여서 그물은 짱짱하기 그지없었다.

대체로 미술관에 전시하는 작품들은 딱 떨어지는 회화 조각 영상 사진 설치들이라 할 수 있다. 예술가와 작품이라는 근대적 창조자/창조물의 위상이 먼저 아른거린다. 지금도 그런 위상이 전시라는 판타지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동시대 큐레이션의 역할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일시적 개입》은 딱 떨어지지 않았다. 이 전시의 언어는 짓고 일으키는

2 #1~#3까지의 아포리즘은 《일시적 개입》 오디오북 스크립트에서 인용한 것이다.

창조적 술수로 그물코를 이루기 때문이다. 여기에도 회화 조각 영상 사진 설치가 있지만 그것들은 '단독자'가 아닌 온갖 서사의 그물코에 잇대어서 존재할 뿐이다. 서사의 무늬는 그 자체로 완결된 품(品)이 아니다. 보는 각도, 관점, 방향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다.

공간과 장소에 관한 미학적 사유를 언급할 때 자주 이-푸 투안(Yi-Fu Tuan)의 『공간과 장소』를 참조한다. 중국 태생의 미국 지리학자인 그는 공간의 추상성과 장소의 구체성에 대한 사유를 탁월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동일한 하나의 공간과 장소는 '공간/장소'에 관한 인식의 유무, 경험의 유무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장소'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다시 말하면 공간은 낯설고 추상적인 곳이다. 반면, 장소는 친숙하고 구체적인 곳이다. 그에게 있어 공간의 개념은 움직임이며 개방이며 자유이며, 위협이다. 장소는 정지이고,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들의 안식처이며, 안전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고요한 중심이다. 인간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미지의 공간은 친밀한 장소로 바뀐다. 즉 낯선 추상적 공간(abstract space)은 의미로 가득 찬 구체적 장소(concrete place)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 친밀한 장소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지역에 대한 느낌(또는 의식), 즉 장소감(sense of place)을 가지게 된다. 예술가는 '낯선 추상적 공간'에서 '의미로 가득 찬 구체적 장소'를 상상하고 체험하는 이들이다. '장소감'은 그들이 체험하는 가장 신비롭고 영적인 사건일 것이다.

《일시적 개입》의 장소들을 살펴보자. 경상도 지역의 선박(船舶) 문화를 구조적으로 탐색한 맵핑 아카이브, 의정부 기지촌 마을 사람들의 산 역사로 이야기 그물을 짜는 프로젝트, 드러남과 사라짐으로 연결하는 여성주의 예술가 레지던시, 제주도의 인권 문제와 소수자를 위한 차별없는가게의 꿍꿍하기-실천하기, 부산 앞 바다의 환경에 관한 생태학적 보고서, 광주와 필리핀을 가로지르며 '예술하기'의 사건을 이어가는 트랜스 로컬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솔록의 지역 문제를 공유하는 공동체, 기억의 맛으로 되살리는 지역공동체 레시피, 전쟁 경험자들을 위한 치유 그리고 연대....

≠2. 연대와 돌봄에 관한 삶의 복합적 방식, 변화하는 로컬리티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

전시 그물이 짱짱해서 그것을 다 풀어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가끔씩 눈여겨보다가 깊게 주저앉아서 보고 듣고 쥐어 잡았던 감응의 느낌을 풀어본다. 사실 전시의 모든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만큼 이 전시가 펼쳐놓은 그물의 그물코가 많고 다양했다.

코무니타스 구부악 코피(Komunitas Gubuak Kopi)는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의 솔록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문화단체다. 전시는 이 단체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놀이의 공간으로 만든 '포스 론다'에 관한 기록이었다. 연구노트를 비롯한 여러 시각적 오브제들은 사회적 관계로 연결하면서 '(구체적) 장소'로 움직였던 포스 론다의 자취들이자, 기억의

그림자였다. 장소의 기억이라고 할까? 관객은 전시공간에서 그 장소의 '현존성'에 대한 후체험을 할 수 있다. 그 자취, 그림자, 장소의 기억과 연결될 수 있다면!

문학평론가 장석주 말하기를, 장소는 인간이 몸으로 겪는 직접 경험과 기억을 빚는 실존의 외부성일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응고되는 그 무엇이라고 했다. 우리가 장소라는 실재를 바탕으로 각자의 영혼을 빚을 때 장소는 특정한 지역을 차지하는 땅덩어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복합적인 것이고, 그 해석이 거느리는 스펙트럼의 폭은 넓다는 것.[3] 또 에드워드 렐프는 "장소는 나의 장소, 너의 장소, 거리, 동네, 시내, 시·군, 지역, 국가와 대륙 등 공간적 정체화가 가능한 모든 수준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장소가 반드시 이렇게 깔끔하게 위계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장소는 서로 겹치고, 서로 섞이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4]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장소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의미의 땅이라 할 수 있다. 무릇 장소는 사람이 거주하면서 주체의 내면에 정체성이 생겨나고 장소로 거듭난다. 장소는 사람·시간·행위와 더불어 섞이고 겹치며 하나로 뭉뚱그려진 채 움직인다. 우리의 기억이란 장소·사람·시간·행위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것일 테다.[5]

거제 섬도의 작업은 항만과 조선소를 리서치한 데이터의 시각화였다. 낯선 공간에 잇대어서 체험된 장소를 얹혀놓은 일종의 '겹지도'는 관객의 직접적인 체험보다는 낯선 새로움에 관한 인식하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선박의 구조를 미학적으로 재구조화 한 공간은 쉽게 인식될 수 있는 '크기/규모'는 아니었으나, 지속적으로 꿍꿍(想像)을 피어 올리게 하는 매력적인 힘이 있었다. 해양지리지를 그리려는 이들의 작업은 흥미롭게도 조사와 연구를 통한 자료의 축적, 그러니까 한국해양산업 아카이브에 초점이 있었다. 〈두 번째 파도: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는 VR영상으로 펼쳐졌는데, 바다를 미끄러지듯 타고 가는 방주(배)야말로 나고 자라는 '늘'의 시간성을 닮아 있었다. 바다 위에서 배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닐 터이다. 언제나 지금을 열고 여기를 닫으면서 나아가니까!

실험실 C가 눈앞에 드러내는 이야기는 '장소에서의 경험'이다. 《일시적 개입》의 기획자는 이들을 "경험을 기획하는 큐레토리얼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듯이, 작업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공간과 어떤 장소에 관한 드러냄이다. 그래서 이들은 '전시'라고 말하지 않는다. 리서치의 재배치 혹은 새로운 배열이기 때문이다. 〈델타 스페이스〉는 델타의 뜻이 그렇듯이, 흐르다가 때로는 멈추고 그것이 쌓이면서 달라지는 장소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를 위해서 그들은 부산의 구봉산, 수정산, 절영로, 몰운대를 리서치했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전시장에 재배치하고 배열했다. "먼 곳에서 흘러와 우리 앞에서 어우러지고 멈춘 이야기들의 땅"이 그곳에 펼쳐졌다. 실험실 C의 작가들은 또 서로를 연결하면서 리서치한 이야기들과 장면들로 새끼 그물을 짰다. 거기, 씨줄날줄이 엮이는 그물코에서 사람과 자연이 짓고 일으킨 풍경의 숨(氣)이 쉬어졌다.

오버랩의 작업은 트랜스 아트 프로젝트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증좌'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3 장석주, 「경기도의 문화예술 지리학을 위하여」, 『경기천년도 큐페스타: 경기 아카이브_ 지금』도록, 2018, 경기도 미술관

4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논형, 77쪽.

5 장석주, 위의 글.

연결되어 있다)고 고백하듯이 그들의 작업은 인터넷과 현실을 오가며 이루어진 감응이요, 교감이며, 연결이었다. 물론 인터넷의 가상현실과, 현실 속 리얼리티는 "커서의 착각에서 비롯한 헤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를 인터로컬에서 트랜트로컬로 확장하는 실험을 지속한 듯하다. 팬데믹 상황에서 그들이 고민한 흔적들은 결코 '헤프닝'이 아니었다. 만남은 데이터가 아니지 않는가. 전시장 벽을 타고 이어지는 선들과 사진은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트랜스로드에 다름 아니었다.

노뉴워크는 〈가상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위한 안정망〉을 기획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일시적 정치공동체'를 꾸렸는데, 참여한 이들은 만화가, 판화가, 반성폭력 활동가, 공연예술창작자, 시각예술가, 현성주의 미술가, 교육활동가, 미술사학자, 장례지도사, 관람가 등이다. 이들이 고민한 것들은 이미 익은/익힌 현대사회가 고질적 병폐로 쏟아내고 강요하는 '배제와 소외'의 폭력이다. "창작과 연대가 일어나는 장으로서의 레지던시"가 고려하거나 혹은 고려되지 않는 어린이, 반려동물, 장애/비장애, 인종, 국적, 성적 취향에 관한 문제들이 깊게 논의되었다. 전시는 이 논의를 '사회적으로(혹은 정치적으로)'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예컨대 관객은 스스로 이 안정망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안정만이 사회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할 수 있다. 노뉴워크가 고민하듯이 관객은 이방인으로, 외지인으로, 방관자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대'는 늘 열려 있다.

다이애나랩의 '차별없는가게' 프로젝트는 기사를 통해 이미 접한 적이 있다. 장애인과 소수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가게지도를 본 순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야말로 지독하리만큼 '차별사회'의 뒷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들 프로젝트의 과정이 아름다운 것은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실행에 옮긴다는 점이다. 우에타 지로가 협업한 〈우리는 이미 펜스를 만난 적이 있잖아요〉는 앞 닫힌 감각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닫힌 감각을 뒷하늘로 열어서 낯선 존재와 연결될 수 있으며, 함께 있다고 느낄 수 있는지를 탐색했기 때문이다. 다이애나랩과 blblbg는 〈지도에 없는 이름〉에서 묻는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 없는 것들에 대한 지도, 언젠가 만들 것들에 대한 지도를 더듬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네'와 '아니오'가 아닌 연대가 필요한 이유다.

태이와 최영숙의 콜렉티브 브레이크워터가 지향하는 미학적 태도에 깜짝 놀랐다. 그들은 "기후변화와 탈식민주의, 노동의 문제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풍경의 정치성, 영적인 지식, 다양한 종간의 우정과 치유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19세기에서 21세기로 길항한 세계사의 무대는 침략, 식민, 전쟁, 학살, 분단으로 점철된다. 이성이 일으킨 근대성의 밑바닥에는 신과 영성의 죽음이 깔려있다. 브레이크워터는 계약노동제, 이주노동, 디아스포라 등의 어두운 역사의 그늘로 파고들어 되살림의 침을 놓듯이 사람들의 마음에 잃어버린 신화를 되살리고 영성을 불어 넣는다. 상처를 소환하고 자장가를 부르고 민들레주를 나눠 마시고, 트라우마를 마주하는 순간들. 그 순간들은 씻김의 순간이요, 진혼의 순간이며, 해혼의 순간이리라. 한 땀 한 땀 수놓은 민들레는 밝게 빛났다. 하늘과 땅을 잇는 신목(神木)처럼 그들의 작품은 우뚝했다.

김현주와 조광희는 "망각되거나 뒤엉킨 삶으로부터 방치된 또 다른 삶의 목소리들을 바깥 세계로 불러" 세웠다. 〈빼뻘 아카이브〉는 한국전쟁 직후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와 함께 형성된 의정부 고산동의 빼뻘마을에 관한 이야기다. 그곳은 기지촌이어서 바깥으로 밀려났다. 오랫동안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이 마을과 사람들의 역사. 작가들은 이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던진다. 그 존재성은 우리 사회의 근대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압축적 근대화'라는 시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작가들이 아카이브하여 배치해 놓은 〈빼뻘 아카이브〉는 관람의 거리두기를 확 좁힌다. 관객이 직접 손으로 열고 닫지 않으면 그 역사를 목격하지 못한다. 나는 그들이 〈낭독의 방-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의 공간에서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와 마주했다. 구술은 문장이 될 수 없는 말들로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전시는 전시일 수 없었다.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관람은 더 이상 전시라는 문법을 따르지 않도록 유도했다. 그물코에서 쏟아지는 묻고 되묻고 또 되묻는 말들로 나는 혼줄이 났다.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으로 타고 들어서 속을 뒤흔드는 이야기들은 예술이 본래 가졌던 괴력난신(怪力亂神)과 술이부작(述而不作)으로 들끓었다.

≠3. 로컬이 생성되고 확산해 가는 여러 가지 양상을 예술적으로 관계 맺기

팬데믹은 도둑처럼 왔으나, 사실 그 원인은 인류가 오랫동안 자행한 오만과 위선과 욕망에 있을 터이다. 역설적으로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성찰의 시간을 던져 주었다. 《일시적 개입》은 그런 성찰의 시간과 비슷하다. 갑자기 멈춘 일상 속으로 '(예술적) 개입'이라는 짓고 일으킴의 사건을 투사하기 때문이다.

20세기는 작품에서 '품(品)'이라는 오브제에 집착했다. 물론 지금도 크게 변한 것은 아니다. 작가의 머리가 꿍꿍(想像)하고 그것을 받아 마음이 낸 오브제는 미술이 오랫동안 지켜온 장르로서의 물성(物性)이었으니까. 장르를 벗어나지 못하는 물성은 서사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14명(팀)이 펼쳐놓은 《일시적 개입》의 현장은 품이 아니라 '작(作)'에 가까웠다. 그들은 짓고 일으켜 사건이 되는 '관계'를 드러내는데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브제로 딱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일시적 개입》이 풀어놓은 관계의 미학은 느슨하게 혹은 가로지르듯 연결하는 지역들로 보였고, 때로는 삶의 무늬가 겹겹을 이루며 쌓여가는 지역으로도 읽혔다. 거기에는 무수한 언어의 무늬가 윤슬로 빛났다. 예컨대, 보이지 않는다던 상상의 공동체는 너무도 선명했고, 날 비린내 나는 싱싱한 사람의 체취가 풍겼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을 터 이룬 이웃들도 있었다. 이제는 새카맣게 먼지가 앉아서 학술적 개념으로만 가끔씩 꺼내 보았던, 연대 돌봄 마을 여성 인권 소수자 생태 환경 치유라는 말이 살가웠다. 그들은 전시라는 그물코로 관객을 사로잡아서 '빛나는 존재'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다. 나와 우리를 짓고 일으키고 있었다.

팬데믹 이후 뒤바뀐 생활문화 중의 하나는 다른 곳에서 마주하거나 다른 곳으로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남아서' 깊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기 삶의 지역에 대한 체험이다. 자기 밖의 풍경이 아닌, 자기 안의 풍경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술가는 인류의 촉각이다. 그들도 삶의 가장자리 안쪽으로 눈을 돌려 그 내부의 '서로'와 마주하기 시작했다. 《일시적 개입》의 기획에 놀란 것은 제도권 미술관이 짓고 일으키는 '작(作)'의 언어를 전시로 가져온 것이고, 더군다나 흔적만 남았을 관계의 언어와 무늬를 펼쳐냈다는 점이다. 체험되어진 관계는 사실 마음에만 남을 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예술가들은 베틀을 짜듯 그들의 촉각으로 예술을 지었다.

술이부작(述而不作)은 있는 그대로 '기술(記述)'하되 짓고 일으키지(作) 않는다는 뜻이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은 "첫머리에 말한다. 대체로 옛 성인들이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풀려 하면 괴이, 완력, 패란, 귀신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았다."면서 뭇 삶을 입으로 전하는 '이야기'에 주목했다. 떠도는 말들의 흔적들에는 말을 퍼트리는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이 스며서 지배자의 언어를 간단히 묵살하는 통쾌함이 있다. 그리고 그 말들에는 거짓과 환상으로 가득한 것 같으나 진실을 묘파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늘 현존한다. 《일시적 개입》은 그런 창조적 술수(術數)의 보이는 말들로 가득했다.

Visible Mesh of the Language

Gim Jonggil
Art Critic

"……An imaginary community is temporarily formed to study community issues through artistic activities. Through the recomposition of locality where an assortment of relationships intersect and are formed……"

"It includes intervening as an artistic activity in the lives and cultures of people other than their own residence, as well as on the new encounters and solidarity with neighbors based on a region."

_ Excerpt from exhibit audiobook script

#0. "Departs as the rear opens, and arrives as the front closes. Breathes as it departs and arrives."[1]

The works presented in *Local in the Making* seemed like pole flags of interwoven stories building mesh of the language by re-opening the rear of times that are front-closed, or the Lungdar in five colors. Past is the time with the closed front, and future is the time with the open rear. It departs as the rear opens, and it arrives as the front closes. In between, there is always. Always is the time when both the front and rear are open.

The works shown in ARKO Art Center are stories of people who were condemned to be stuck in there while living in here together. They show the peripheries from the rear-opened flows of living communities. Their closed language became imprisoned in the past without opening the rear, and artists excavated their trapped languages and created new sentences of images through 'art.' On the surface of the sentences, I could get a glimpse of forceful egotism and desires that

1 Culture Section of *Kyunghyang Shinmun*, "Kim Jonggil, Reading Daseok's *Old Man* (Laozi) (72) - There finds no string in departing", January 5, 2023.

can never open the rear unless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the center and peripheries. The shell of people who were too full of themselves so that they had to close their front in haste. However, inside the patterns of life bloomed as they also persevered. It might be the reason I could feel the vigor as I go through this exhibit.

Meanwhile, not all works tried to untangle the time with the closed front as if it tried to break down some kind of barrier. The times that are always open in front and back shined as they exposed the culmination of the patterns of people's lives and experiences. Some stories that unfolded as the language formed meshes were sublime as they flowed with the lower voice. Artists budded the knowledge from the seed called art in the space where they entered for 'temporary intervention.' 'Knowledge' in our language means 'to know, to realize, to feel, to distinguish, to remember, to know by listening, to know by seeing, to make relationships, to indicate and to control.' As these various meanings of 'knowledge,' to know something could have sensuous, psychological, relational, or even political nuances to prevent it from easily permeating.

What we need when we change the art to 'doing my own (or our own) art' is not only the thoughts to simply comprehend 'others/situations/events,' but the complete transition to the springing written language, and the creation. Only when it begins the practice of art that completely translates into 'my (or our) written language,' the art can reside inside me. The essential ingredient for such a revolutionary practice will be the exploration of the written language and the root of the language conceived by our lives. If we want to see through the stories translated into fresh language, we will need to commit ourselves to those lives and languages they want to portray.

Artists and the team who created *Local in the Making* were not obscured by the language and meaning they were already familiar with. They are the people who explore the depth of the raw stories woven by life. The words and images they drew were therefore fishy and slimy. My whole body could feel their footsteps, taken one at a time into this expedition. It interested me the times to contemplate the things that are raw and processed.

#1. "Locality as the process of intersecting, morphing and forming social relationships"[2]

How can I explain the exhibit *Local in the Making*? It is not easy to explain this exhibit with the ones that came before. It is because any other exhibits exist in the times with the closed front. Then, is this exhibit totally original? No, it takes the form of a sentence as an exhibit. If so, what makes this exhibit distinctive?

As the sentences of images created with the language of art, planned in the patterns of Western and Eastern regions of Eurasia, stand in the art center. This exhibit felt somewhat elusive as the stories that make up the exhibit are a formulated interwoven mesh. Countless talks, the stories formed with them, and events unable to fathom the times with the closed front struggled tangled in the meshes. However, the sole guide rope created around the exhibit made a sturdy net

2 Aphorisms in #1~#3 were cited from the audiobook script of the *Local in the Making*.

trapping all aspects of the stories.

Normally artworks exhibited in an art gallery are easy-to-recognize paintings, sculptures, videos, photographs and installation art. The institutionalized standing as modern creators and creations is present first. Such a standing not only creates the fantasy called ‘exhibits,’ the role of contemporary curation is not too different. However, the *Local in the Making* does not quite fit the bill. The language in this exhibition forms the mesh comprised of creative schemes that become a part of something bigger. While this exhibit has paintings, sculptures, videos, photographs and installation art, their existence is only meaningful in the extension of the meshes of myriad narratives, instead of standing alone. Patterns of the narrative are not the completed form by itself. It differs from the angle, perspective, and direction from which they are observed.

Space and Place by Yi-Fu Tuan is often cited when mentioning aesthetic contemplation on space and place. This American geologist born in China provides an excellent reflection on the abstractness of the space and concreteness of the place. According to Tuan, one space and place can be separated into completely different concepts of space and place, based on whether there was cognition or experience of the space and place. In other words, the space is foreign and abstract. Meanwhile, the place is familiar and concrete. To Tuan, the concept of space is characterized by dynamic, openness, freedom and threat, while that of the place is static, the shelter to which individuals assign value, and the silent center where people can feel security and affection. People collect diverse experiences directly and indirectly, and uncharted spaces turn into familiar places through those experiences. It is the process in which the abstract space transforms into a concrete place filled with meanings. Then, when a certain region comes to us as a familiar place, we finally acquire the feeling (or consciousness) in that region or the sense of place. Artists imagine and experience ‘concrete places filled with the meaning’ in ‘foreign and abstract spaces.’ This ‘sense of place’ will be the most mystic and spiritual event that they experience.

Now, let us look at places featured in the *Local in the Making*. A mapping archive that structurally explores the vessel culture of the Gyeongsang-do region, a project that weaves the net of stories with the living history of residents who have lived in Uijeongbu U.S. military base village, a feminist artist residency that connects with appearance and disappearance, an Imagination and Practice of a discrimination-free store for human rights issues and minorities in Jeju island, an ecological report on the Busan offshore environment, a trans-local project that continues the lineage of events of ‘art practice’ across Gwangju and the Philippines, a community that shares local issues of Solok, Indonesia, recipes of local communities that revive with the taste from the memory, and healing and solidarity for people who experienced a war....

#2. “Complex method of life regarding solidarity and care, new change of perception as to the changing locality”

The net created by the exhibit is tight and dense, so it is not easy to explain everything in detail, I would like to share my impression, which I gave a glimpse from time to time, looked at, listened to and tried to grab. It might be impossible to listen to all the stories in the exhibits. That’s how this exhibit spreads an extensive and large a variety of mesh.

Komunitas Gubuak Kopi is a non-profit cultural organization based on Solok region of Western Sumatra, Indonesia. The exhibit featured the records of ‘Pos Ronda,’ which the organization created as a space for conversation and entertainment to resolve local issues. Several visual objets including the research notes were the traces of Pos Ronda that moved towards a ‘(concrete) place’ by connecting people through social relationships. They also pointed to the shadows of memory. Maybe a memory of a place? Visitors can appreciate the post-experience in the exhibition venue, about the ‘presence’ of that particular place once they can connect to the traces, shadows, and memories of the place!

Literary critic Jang Sukjoo once said that the place is not only an existential externality that formulates direct experience and memories in person but also something that is coagulated inside. When we form our souls based on the tangible existence — a place — the place does not mean a chunk of land that a specific region occupies, but it is a complex construct, and the interpretation of space can extend to a large spectrum.[3] In addition, Edward Relph said that “Places occur at all levels of identity, my place, your place, street, community, town, county, region, country, and continent, but places never conform to tidy hierarchies of classification. They all overlap and interpenetrate one another and are wide open to a variety of interpretation.”[4] On this note, a place can be construed as a land of meaning created by people. As people reside in places, the residents form identities inside themselves and the land they sit on become a place. A place then moves forward in one large chunk, mixing and overlapping together with people, time and actions. Our memories have been formed in consolidation of places, people, time and actions.[5]

The work of GEOJE SUMDO was the data visualization of research on ports and shipyards. A type of ‘overlapping map’ can be said, for the audience, developing new unfamiliar perceptions rather than direct experiences them. The space which restructured the structure of a ship aesthetically was not in the ‘size and scope’ that people can easily recognize. However, it had an attractive pull that continuously sewn the seeds of imagination. Interestingly, the works that tried to draw the maritime atlas concentrated on the accumulation of data through surveys and research, which centered around Korean maritime industry archives. *Wave 2: Steel Ark, Drifting Agora* was presented in the form of a VR video. The Ark(ship) that slides through the ocean resembled the temporality of ‘always’ that signifies birth and living. On the ocean, ships won’t be either the past or the future. The ships always open the present and close here to flow ahead!

The story that Lab C presented in front of my eyes was the ‘experience at places.’ As the planner of the *Local in the Making* put the works as a “curatorial program that plans an experience,” the works are the

3 Jang Sukjoo, “For the cultural-artistic geography of Gyeonggi-do”, in art brochure *Gyeonggi Millenium Docufesta: Gyeonggi Archive_ Now*, 2018,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4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translated by Kim Deokhyeon, Kim Hyeonjoo, Shim Seunghee, Nonhyung, p.77.

5 Jang Sukjoo, *ibid*.

presentation of some space and someplace that constantly changes. Therefore, they don't say the presentation of their works as an 'exhibit.' It is a rearrangement or a new arrangement of the research they have done. In *Delta Space*, as how delta means, shows the place where flows go, pause, and make different contours as the flows stack together. For this exhibit, they conducted research on Gubongsan, Sujeongsan, Jeolyeongro, and Molundae in Busan. They rearranged their research and coordinate. When they finished, the "land of stories where the flows came from afar harmonized in front of us and stopped" unfolded in the exhibition venue. In connecting elements with each other, the artists for Lab C wove smaller webs with the stories and scenes that they researched. At each mesh where the woof and the warp intertwined, the landscape formed and raised by the people and nature breathed.

The works by OverLab. can be 'proof' of how a trans art project realizes. As if they confess that *We Are Linked*, their works were impression,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Of course, there can be a possibility that virtual reality on the internet and the reality in our real life may well end up as a "fluke based off of a mistake from a cursor." Nevertheless, it seemed that they continued their experiment to extend interlocal to trans-local, from region to region, and from city to city. In the pandemic situation, the trace of their deep contemplations was not a 'fluke,' as an encounter is not a form of data. Lines and pictures connect through the wall of the exhibition venue were no less than trans roads where the events of encounter arise.

NoNewWork planned the *Safety Net for a Virtual Feminist Artist Residency*. They formed a 'temporary political community' for this exhibit. Participants include cartoonists, lithographers, anti-sexual assault activists, performing arts creators, visual artists, feminist artists, education activists, art historians, funeral directors and spectators. The topic they contemplated was the violence of 'exclusion and marginalization' that was spewed and forced by the established modern society. A "residency as a venue of creation and solidarity" deeply discussed the issues of children, pets, persons with or without disabilities, ethnic and national backgrounds, and sexual orientation, whether they were socially considered or not. The exhibit was structured to extend this discourse 'socially (or politically).' For instance, any audience can choose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within this security net, an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where such a security net could extend socially. As NoNewWork contemplates a solution for it, an audience member can always choose to remain as a foreigner, alien, or bystander. However, the 'invitation' is always open.

I once heard about the 'We Welcome All' project by dianalab through a newspaper article. When I saw the map of the store where persons with disabilities or minorities can roam without the fear of discrimination, I came to realize once again how much our society has held onto the hidden side of a 'discriminating society.' What makes the process of this project beautiful above all else is that they are practicing the solutions by contemplating and studying side by side with the social minorities. *We have encountered fences before*, created with a collaboration of Ueta Jiro, was a stunning narrative related to the sensation of the closed front, as it allowed us to realize that we can harness these closed sensations to channel the connection with foreign existence in the skies behind us and explore how we can feel together. dianalab and blblbg ask in *Nameless on the Map*. "Can we arrive at a place by searching a map of where we have never been to, a map to something that does not exist, and a map that leads to something we will create someday?" This is the reason why we need solidarity, not 'yes,' or 'no.'

I was genuinely surprised by the aesthetic attitude held by Breakwater, the collective of Taey Iohe and Youngsook Choi. They "recognize the close connection among climate change, post-colonialism and labor issues, take interest in *politicality of the scenery, spiritual knowledge, and friendship and healing among different species*, and direct towards the works based on social activism." As the scene of world history struggled from the 19th century into the 21st century, it has been filled with invasions, colonializations, wars, massacres and separations. The bottom of modernity that has been erected by rationalism is supported by the death of God and spirituality. Breakwater delves into the shadows of dark history, ranging from contract workers, immigrant works and diaspora. Then, like giving acupuncture of life, they revive the lost myths in the peoples' hearts and fill the people with spirituality. The moments when people recall the past wounds, sing lullabies, share dandelion wine and face the trauma. Those moments are moments of cleansing, moments of mourning, and moments of release. Dandelions woven one sew at a time shines brightly, and their works stood tall as the god's tree that connects the heavens and the mortals.

Hyunjoo Kim and Kwanghee Cho "called up the voices of other lives discarded in forgotten or messed-up lives into the limelight." *Ppaeppeorl archive* are stories about Ppaeppeorl village in Gosan-dong, Uijeongbu, which formed with Camp Stanley, an American military installation, just after the Korean War. As it was a village behind a military base, it became a pariah. The history of this village and its people who could not escape from the war and the violence for the longest time. The artists pose an existential question of who are they. As its existence intertwines with our society's modernity, it also relates to the temporality characterized by 'compact modernization.' *Ppaeppeorl archive* which were comprised of materials archived and curated by artists, quickly close the distance from the audience. The audience cannot witness the history unless they open and closes it by themselves. I encountered a voice of a person when they were in the *Room of Reading – Voices heard outside*. Oral dictates came to me as lively as possible in the form of voices that cannot make a sentence.

This exhibit could not be just an exhibit. The exhibit that cannot distance itself with the audience anymore directed people to stop following the rules of an exhibit. Voices giving question after question from each mesh of the vastly interwoven web almost gave me chills. The stories that unsettle my stomach flowing from the eyes, ears, nose, mouth, and all over my body

were populated with the nature of art, or supernatural forces and crystal realism.

#3. “Creating artistic relationship in various trend which the locality creates and expands”

While the pandemic sneaked into us like a thief, in its room there would be long-standing arrogance, hypocrisy and greed of the people. Ironically, the pandemic gave us the time to look back and reflect after laying down all the greed. The *Temporary Intervention* (the Korean title of this exhibition) is similar to those time to reflect, and it projects the event of creation and erection called ‘(artistic) intervention’ into the sudden pause of daily routines.

In the 20th century, in an artistic work, people obsessed with an objet called a ‘craft.’ Of course, that trend did not change. An objet conceived by a creator’s imagination and processed through their heart is the materiality of most genres of art that have been kept for a long time. However, the materiality that cannot escape the confines of the genre could present a limitation in the expandability of a narrative. The scene of the *Local in the Making* unfolded by the team of 14 artists was close to ‘creation,’ rather than craft. They concentrated to showcase the ‘relationship’ where their creation and structures form an event. That is why their works did not fit into a fixed type of objet.

The relational aesthetics revealed by *Local in the Making* appeared sometimes as regions connected loosely or transversely, and sometimes were read as regions where patterns of life layer one upon another. In it, countless patterns of language shine like glistening ripples. For instance, the invisible imaginary community could be seen so vividly, the raw scent of living persons struck my nose, and there were neighborhoods formed with connected people who had never seen each other before. I felt an affinity to the words like solidarity, care, village, women, human rights, minority, ecology, environment, and healing, whereas I only used those words sparingly in an academic context that collected the thickest dust for decades. The artists trapped the audience in the mesh of an exhibit, and whispered of the ‘bright being.’ They were re-creating us and they were building us.

Another living culture we experienced a change since the pandemic was the experience in my living region, where we were forced to ‘remain’ to study in depth because we could not depart or face it in another context. We now started to concentrate on the scenery of our interior, rather than our exterior. Artists provide people with the sense of touch. They, too, turned their eyes into the peripheries of our lives and started to face ‘each other’ that we found inside. What surprised me about the direction of the *Local in the Making* is that it brought the language of ‘creation,’ which established art institutions tend to control to create and develop in an exhibition, as well as it managed to showcase the language and patterns of relationships of which only the trace thereof remain. Experienced relationships tend to remain inside our heart, but rarely expose to the exterior. Like weaving in a loom, artists wove their art with their sense of touch.

Crystal realism (述而不作) means conveying and stating what is happening as they are, but not creating. Iryeon, the author of Samguk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seemed to focus on the ‘stories’ handed down by mouth by mouth writing that “I start this writing by observing that in wise people building a nation with etiquette and music and spreading the teachings of the morality of righteousness, nobody writes about strange things, strong forces, disorderliness and supernatural beings.” In the trace of fleeting words, the thoughts and philosophies of people spreading the words permeate and it provides a cathartic experience to dismiss the language of overlords ever so simply. And in those words, while seemingly filled with lies and fantasies, there always are strong messages that penetrate the truth. The *Local in the Making* was full of visible words adorned by those creative schemes.

작가 소개 및 작품 목록

Artist's Profiles and List of Works

오디오가이드
Audio Guide

거제 섬도

거제 섬도는 거제도를 기반으로 섬의 생태와 기반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2020년 조선소 노동자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유휴 조선소 전시를 진행하였고, 2021년부터 한반도 동남권의 항만과 조선소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여 한국 해양산업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바다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해양지리지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GEOJE SUMDO

GEOJE SUMDO has been pursuing projects on island ecosystems and the infrastructure industry based on Geojedo. Starting with horticultural program for the shipbuilding laborers in 2020, it held exhibits on idle shipyards, and since 2021, it has been collecting data on ports and shipyards in the southeast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visualize it. GEOJE SUMDO aims to continuously accumulate data through surveys and research to construct an archive for the Korean maritime industry, and to draft new marine geography focusing on the oceans and industry in the mid- to long-term.

❶ 거제 섬도, 〈파도 2 :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 2022, 해도 (리서치 트립 + 세일링 포럼), 디지털출력

❷ 거제 섬도, 〈파도 2 :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 전시 투어링〉, 2022, VR, 165×93cm - 협업 : 바인딩 binding

❸ 거제 섬도, 〈파도 2 :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 전시 클립 영상들〉, 2022, QR CODE LINK, 가변크기 - 협업 : 바인딩binding

❹ 거제 섬도, 〈파도 2 :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 브로슈어〉, 2022, 종이에 인쇄, 59.4×42cm

❺ 거제 섬도, 〈파도2 :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 세일링 포럼 발표자료 3종〉, 2022, 종이에 인쇄, 21×29.7cm

❻ 기계비평가 이영준, 〈우주로 향하는 지식의 항해_국가무역항 유람기 01, 02〉, 2021. 종이에 인쇄, 29.7×21cm

❼ 기계비평가 이영준, 〈세일링 포럼의 단상 3편〉, 2022, 종이에 인쇄, 29.7×21cm

❽ 기계비평가 이영준, 〈우리가 본 선박들의 구구절절 이야기들_통영편〉, 2022, 종이에 인쇄, 29.7×21cm

❶ GEOJE SUMDO, *Wave 2: Steel Ark, Drifting Agora*, 2022, nautical chart (research trip + sailing forum), digital print

❷ GEOJE SUMDO, *Wave 2: Steel Ark, Drifting Agora Exhibition Touring*, 2022, VR, 165×93cm - With Binding

❸ GEOJE SUMDO, *Wave 2: Steel Ark, Drifting Agora Exhibition Clip Videos*, 2022, QR CODE LINK, variable size - With Binding

❹ GEOJE SUMDO, *Wave 2: Steel Ark, Drifting Agora Brochure*, 2022, printed on paper, 59.4×42cm

❺ GEOJE SUMDO, *Wave 2: Steel Ark, Drifting Agora Sailing Forum booklet*, 2022, printed on paper, 21×29.7cm

❻ Lee Young June, *Voyage of Knowledge_Report from the Tour around National Trading Ports 01, 02*, 2021, printed on paper 29.7×21cm

❼ Lee Young June, *Thoughts on Sailing Forum*, 2022, printed on paper, 29.7×21cm

❽ Lee Young June, *Stories of the Myriad Ships We Have Spotted_Tong Young*, 2022, printed on paper, 29.7×2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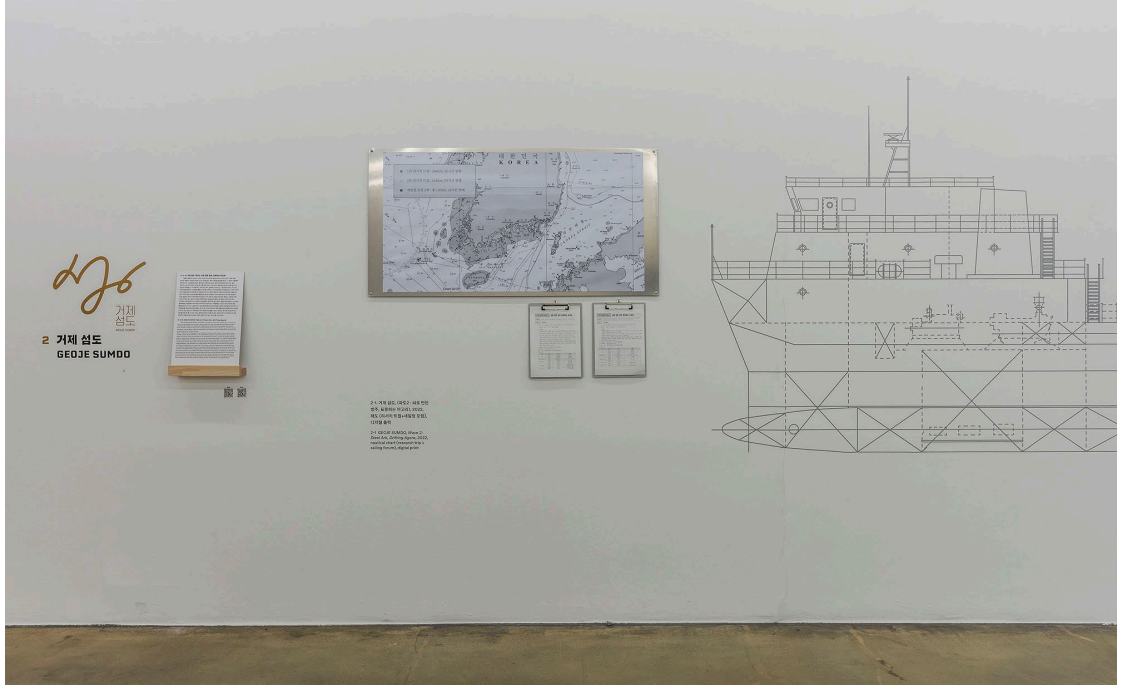
❷



❶~❸



❹~❽



❶

❶~❽
**〈두 번째 파도 :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

물결이 출렁이는 바다는 인간이 소유하거나 장악한 대상이 아니다. 인간이 접근 가능한 만큼, 해신이 허용하는 만큼의 바다에 인간의 장치를 갖다 대어 나름대로 활용할 뿐이다. 그 장치란 이를테면 항만과 선박, 그것들을 운용하는 체계 같은 것들이다. 섬도는 한반도의 동남권에 있는 부산, 울산, 경남 마산 등 국가 관리의 무역항 세 곳을 돌며 인간이 그런 장치의 힘을 빌려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했다. 〈두 번째 파도: 쇠로 만든 방주, 표류하는 아고라〉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전시이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VR영상을 통해 이 전시를 소개하고자 했다. 2020년에 했던 〈첫 번째 파도〉가 거제 지역의 조선 산업에 대한 전시였다면 〈두 번째 파도〉는 조선 산업이 펼쳐지는 바탕인 바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사진과 영상, 글, 데이터들을 통해 보는 바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바다가 아니며, 끊임없이 산업시설들이 생겨나고 땅이 메워져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는 생장의 바다이다. 물론 그 그늘에서 죽어 나가는 바다도 있다. 섬도는 이러한 다양한 바다의 모습을 선진호라는 배 위에서 보여주고자 한다. 선진호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시험선으로 운용하던, 특이하게 생긴 반잠수 쌍동체의 퇴역으로, 선진호의 올망졸망한 선실들에서 마치 미로 찾기 하듯 전시되어 있는 기록물에는 조선소와 선박, 해운과 항만, 해양산업시설, 그리고 노동자라는 네 개의 범주에 걸쳐 인간이 바다에서 살아온 이력들이 새겨져 있다. 그 이력들을 잘 읽어보면 바다의 문화가 보이고 역사가 보일 것이다. 또한 해양산업의 현장에서 눈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상과 그 이면에 담긴 여러 층위의 논점들을 노순천, 다미라트, 최수환, 한소현 작가의 작품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바다는 절대로 인간의 것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이 무모하게도 바다에 개입하여 만들어온 삶과 산업의 이력은 어쩌면 가치 있는 역사가 될 것이다.

❶~❽
**〈Wave 2: Steel Ark,
Drifting Agora〉**

The undulating sea belongs to humans. This doesn't mean that humans own or control the sea. As far as humans can access it, they can only use their own devices in the ocean as much as the sea god allows. The devices are things like ports, ships, and the systems that operate them. Sumdo traveled to three state-managed trade ports in the southeast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such as Busan, Ulsan and Masan, and recorded how humans depend on the sea to live by using the power of such devices. *Wave 2: Steel Ark, Drifting Agora* is an exhibition that show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ave 1*, held in 2020, was an exhibition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in the Geoje Islands, while *Wave 2* shows the record of the sea, the basis of the shipbuilding industry. The sea we observe through photos, videos, texts, and data is not the ocean we have always known. It is a sea of growth where industrial facilities are constantly being created and land is being filled, creating new cities. Of course, there are also seas dying in its shade. SUMDO shows these various seascapes on a ship called Seonjinho. The Seonjinho is an oddly shaped twin-fuselage ship operated by the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s a test ship. The archives, which are displayed in a labyrinthine area in Seonjinho's side-by-side cabins, are inscribed with the history of human life at sea across four categories: shipyards/ships, shipping/ports, marine industrial facilities, and workers. If you read the records carefully, you will see the culture of the sea and its history. The sea can never be owned by humans. Nevertheless, the history of life and the industry that humans have recklessly made by rushing into the sea will become a valuable history.

권은비

권은비는 사람의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눈여겨본다. 그리고 기울어진 땅에서 중립으로 서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화두로 자본, 정치, 사회, 국가, 식민 등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대다수의 예술프로젝트를 관객들의 참여와 협업으로 진행해왔다. 《경이로운 전환》(부산현대미술관, 2021), 《형평의 저울》(경남도립미술관, 2022), 《자매들, 우리는 커진다》(대안공간 루프, 2022)에 참여하였다.

❶ 권은비,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Angst Essen Seele Auf)〉, 2022, 단채널 영상, 15분, (좌) - 독일 동독지역 베르나우 지역주민 참여

❷ 권은비, 〈빨래프로젝트 2〉, 2022, 단채널 영상, 7분, (우) - 구소련 독립국가 이주민 참여

❸ 권은비, 〈붉은 비누1〉, 2015, 글리세린, 붉은색소, 오일, 향료, 종이, 가변크기 - 독일 동독지역 베르나우 지역주민 참여

❹ 권은비, 〈붉은 비누2〉, 2022, 글리세린, 붉은색소, 오일, 향료, 종이, 가변크기 - 구소련 독립국가 이주민 참여

❺ 권은비, 〈불안〉, 2015, 잉크젯 프린트, 594×841mm

Eunbi Kwon

The artist focuses more on the back than the front side of people. It is impossible to stand neutrally on sloped land, according to Kwon. She has been interested in various issues such as capitalism, politics, society, and colonization based on the theme of the social role of art. Most of her art projects were created through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with audience. Some of the projects she participated in are *The Phenomenal Transition*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2021), *Scale of Equality* (Gyeongnam Art Museum, 2022), and *Sisters, We Grow* (Alt Space Loop, 2022).

❶ Eunbi Kwon, *Fear Eats the Soul(Angst Essen Seele Auf)*, 2022, single channel video, 15min, (left)-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of Bernau in East Germany

❷ Eunbi Kwon, *Wash Project 2*, 2022, single channel video, 7min, (right) - Participation of migrant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❸ Eunbi Kwon, *Red soap 1*, 2015, glycerin, red pigment, oil, flavoring, paper, dimension variable -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of Bernau in East Germany

❹ Eunbi Kwon, *Red soap 2*, 2022, glycerin, red pigment, oil, flavoring, paper, dimension variable - Participation of migrant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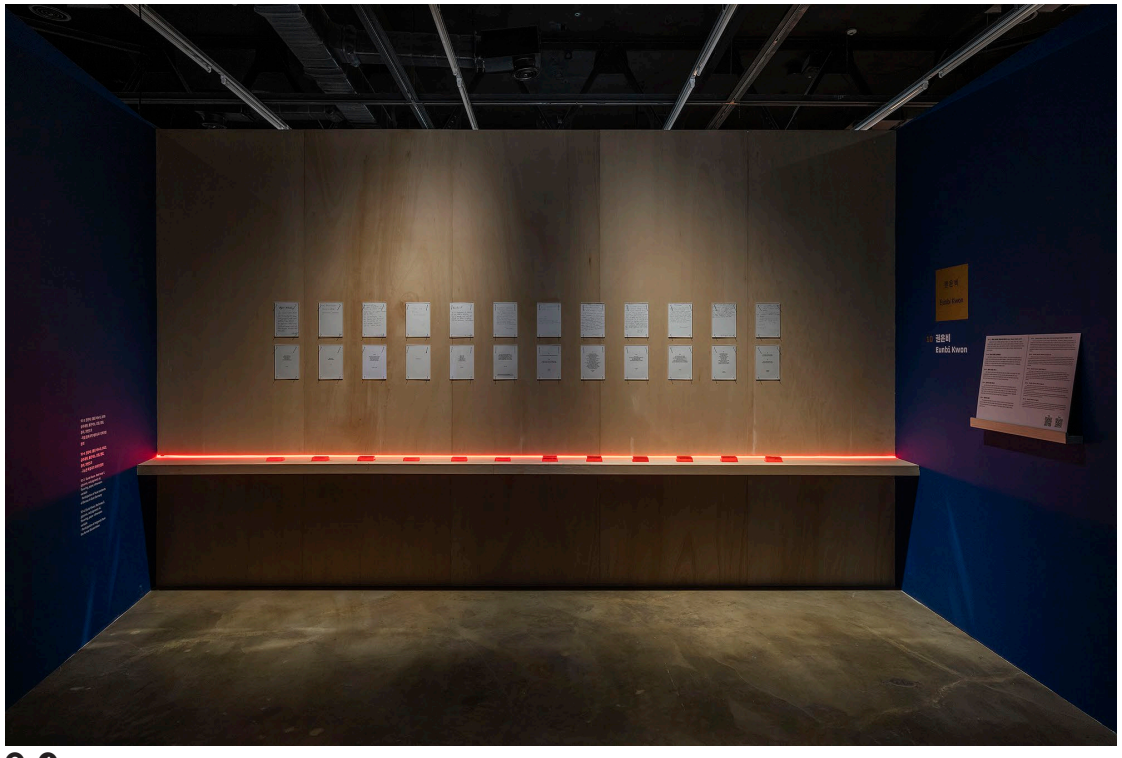
❺ Eunbi Kwon, *Angst*, 2015, inkjet print, 594×841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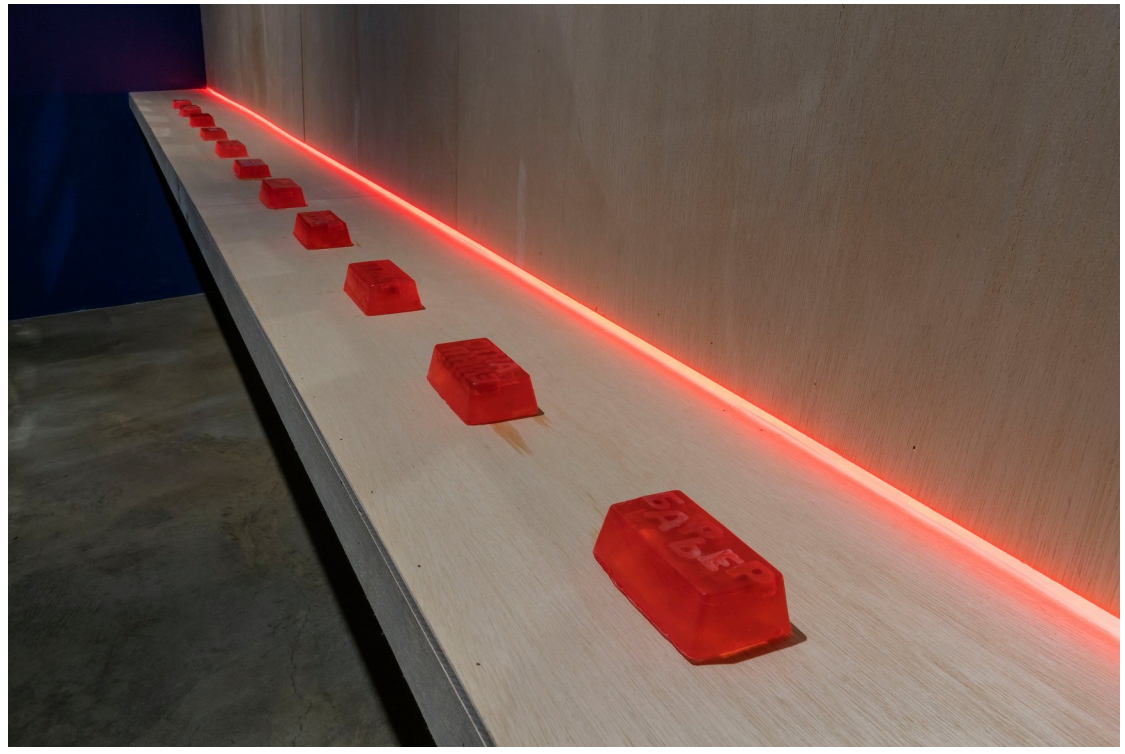
❶, ❷, 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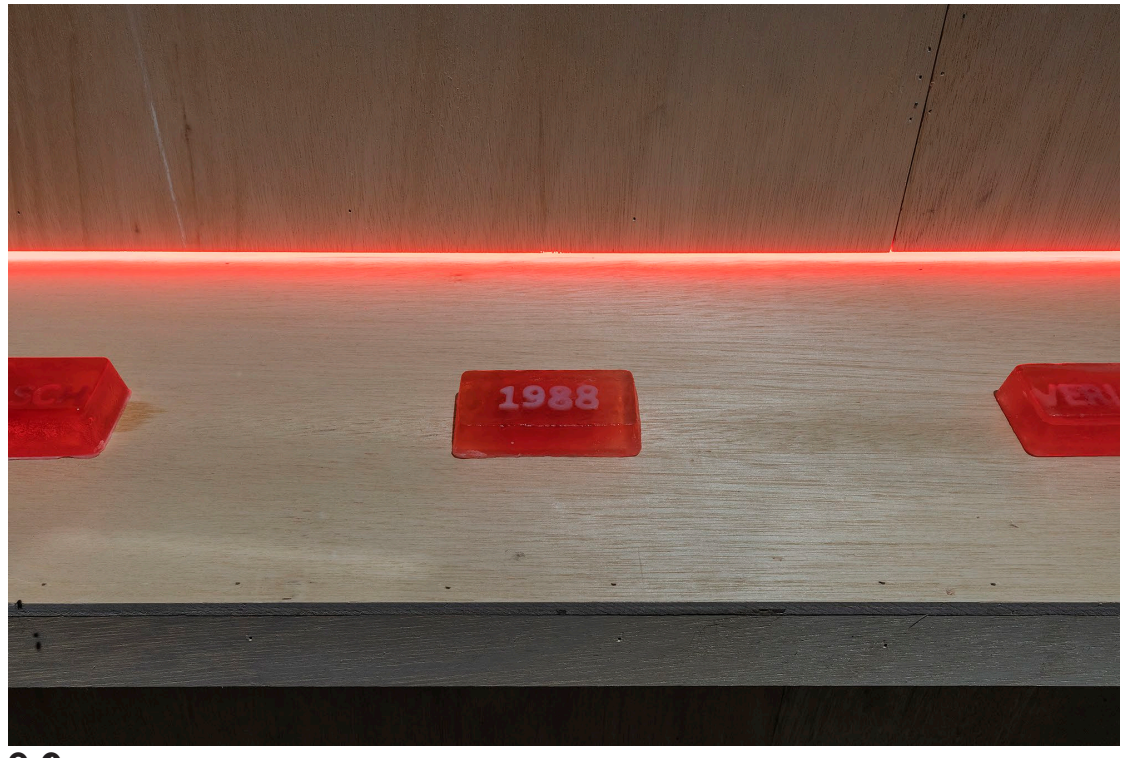
❸, ❹



❸, ❹



❸, ❹



❸, ❹

❶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Angst Essen Seele Auf)〉
처음의 〈빨래 프로젝트〉는 2015년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작가는 분단국가인 남한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신이 얼마만큼 일상적인 전쟁 위협에 적응해왔고, 국가적 대립으로 인한 불안이 얼마만큼 자신에게 내재 되었는지를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을 씻어내고자 했던 작가는 이주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채, 독일에서 전쟁과 냉전, 분단의 역사를 경험한 타인들과 관계 맺고, 그 과정을 통해 서로의 불안을 나누는 제의적 퍼포먼스인 빨래를 시도한다.

❷ 〈빨래 프로젝트2〉
현대의 국가와 국가 간의 폭력은 차별적으로 가해진다. 노인, 어린이, 여성은 특히 그 속에서 가장 많은 폭력에 노출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으로 이주해온 구소련국가의 여성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봄 노동을 해내야 하는 주체이다. 이 작품은 이들과 함께 정주하지 못하는 이주자이자 여성으로서의 불안을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개인들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고자 했다.

❸ 〈붉은 비누1〉
폭력, 전쟁, 분단, 냉전, 통일의 역사를 경험한 독일 베르나우 주민들이 자신의 불안을 이야기하며 비누를 만들었던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녹아 내리는 글리세린 속에 참여자들의 개인 서사가 녹아있다. 비누 제작은 작가가 설정한 제의적 과정을 따르고 있는데,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만든 비누가 자신의 불안을 씻어줄 것이라는 마녀의 주술적인 희망이 담겨있다.

❹ 〈붉은 비누2〉
그간 냉전은 끝났다는 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분쟁은 오랜 기간 계속되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❶ 〈Fear Eats the Soul(Angst Essen Seele Auf)〉
Wash project began in Germany in 2015. Born and raised in South Korea, a divided country, the artist become aware of how much she had adapted to the daily threat of war and how great the anxiety caused by national confrontation is inherent in her. Seeking to wash away this anxiety, the artist with an identity as a migrant, relates with others who have experienced a history of war, the Cold War, and the division in Germany, and shares others' anxiety as a ritual performance through washing.

❷ 〈Wash Project 2〉
Violence between the modern states is discriminatory. The elderly, children, and women, in particular, are the ones who are exposed the most to violence. Since the War in Ukraine began, the Russian women who have emigrated to South Korea are the ones who have to perform the work of caregiving even in difficult circumstances. In *Fear Eats the Soul(Angst Essen Seele Auf)*, the artist talks about her anxiety as a woman and as a migrant who is unable to settle down with them, and seeks to follow the trajectory of the lives of individuals whose lives are bound to be constantly shaken.

❸ 〈Red Soap 1〉
Red Soap 1 is the result of a project in which the residents of Bernau, Germany, who experienced the history of violence, war, division, the Cold War, and reunification, talked about their anxiety and made soap. The participants' personal narratives melted into the melting glycerin. The soapmaking follows the ritual process set by the artist, and it also contains the witch's magical hope that the soap made by exchanging stories with each other will relieve one's anxiety.

❹ 〈Red Soap 2〉
As if to ridicule the declaration that the Cold War was over, the conflict between Ukraine and Russia has continued for a long time. When Russia invaded Ukraine in 2022, the women who moved to South Korea now have a link to

침공하면서 구소련국가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은 어머니의 어머니로 연결된 한반도의 식민역사와의 연결 고리를 지니고 있다. 진행형인 전쟁과 냉전 속에서 거대한 국가적 분쟁과 갈등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집단 폭력의 상흔을 살펴보고, 예술을 통해 가능한 연대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주자들과 함께 비누를 만들었다.

❺ 〈불안〉
작가는 빨래프로젝트를 통해, 개인이 저마다 가진 불안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집단적으로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깨닳았다. 작품 〈불안〉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라는 명제 속에 예술로서 가능한 불안을 씻어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실험이기도 하다.

the colonial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connected by their mother's mother. In the ongoing war and the Cold War, she examines the scars of collective violence that huge national disputes and conflicts have made on individuals, talks about the solidarity made possible through art, and makes soap with migrants. *Red Soap 2* is the result of this project.

❺ 〈Angst〉
Through *Wash project*, the artist comes to realize that the anxiety that an individual has is a complex intertwined sum of the issues that are bound to be collectively affected in a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 *Angst* is also an experiment to explore the process of 'how to wash away anxiety' that is through art in the proposition that 'the personal is political'.

김현주 × 조광희

김현주와 조광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 사회론적 질문과 함께 상실되거나 파편적으로 편재된 현대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땅의 풍경에 주목한다. 이들은 특정 지역 또는 사건에 속한 개개인을 호명하며 구술을 기반으로 개인과 집단의 구체적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지평을 확장해냄으로써 잊히거나 뒤엉킨 삶으로부터 방치된 또 다른 삶의 목소리들을 바깥 세계로 불러 세운다. 2019년부터 미군 부대와 함께 형성된 정착촌 빼뻘에서 〈빼뻘 – 주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미군전용 클럽을 예술공간 삼아 일상적 먹기, 대화하기, 예술적 놀이를 통해 주민과 예술가 간의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빼뻘 – 시공을 몽타쥬하다》(아트캠프 블랙, 2022), 《손-기억과 미래를 더듬다 : 만인의 손 프로젝트》(온라인 전시, 2021), 《따스한 재생》(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1), 《대안영상예술 마을가게미술관》(아르코 공공예술사업, 2021) 등 다수의 그룹전 및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❶ 김현주 × 조광희, 〈빼뻘 아카이브〉, 2022, 멀티미디어 설치, 가변크기, 사진, 주민이 1990~2010년 사이 VHS 비디오로 기록한 마을 영상, 주민이 쓴 글, 낙서, 지폐, 편지 등 수집된 사물들

❷ 김현주 × 조광희, 〈빼뻘 – 시공을 몽타쥬하다〉, 2022, 2채널 영상설치, 가변크기, 22분 2초

❸ 김현주 × 조광희, 〈뺑 뺑뻘 빼뻘〉, 2022, 2채널 영상설치, 가변크기, 여섯 분과의 인터뷰

❹ 김현주 × 조광희, 〈낭독의 방 –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들〉, 2022, 멀티미디어 설치, 관객참여 퍼포먼스, 가변크기, 지역민의 구술이 담긴 낭독책 10권, 오디오, 마이크, 스피커, 보면대

Hyunjoo Kim × Kwanghee Cho

Hyunjoo Kim and Kwanghee Cho focus o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living in modern civilization that was lost or fragmentally maldistributed by questioning the existence and society with "Who am I?", as well as the scenery of the land that these individuals and communities have built. In addition, they name each individual in a certain region or incident and expand the horizons of understanding and sympathy for the detailed lives of individuals and groups through oral history, thereby bringing to the surface the voices of other lives that were forgotten or neglected from tangled life to the outside world. Starting with the *Ppaepeorl - Wrinkles* project at Ppaeppeorl Village in Uijeongbu since 2019, artists and residents are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ing each other by sharing ordinary meals, having conversations, and engaging in art games to experience changes that may or may not be visible. Recently, the two artists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and projects such as *Ppaepeorl - Montage of Time and Space* (Art Camp Black, 2022), *Hands-Touching Memories and the Future: The Manin Hands Project* (Online Exhibition, 2021), *Warm Revitalization* (Gangwon International Biennale, 2021), and *Alt Visual Culture Factory*(ARKO Public Art Project, 2021).

❶ Hyunjoo Kim × Kwanghee Cho, *Ppaepeorl archive*, 2022, multimedia installation, dimension variable, photos, video, text, collected objects – doodles, paper money, letters

❷ Hyunjoo Kim × Kwanghee Cho, *Ppaepeorl – Montage of time and space*, 2022, 2 channel video installation, dimension variable, 22min 2sec

❸ Hyunjoo Kim × Kwanghee Cho, *PPaeng, Ppaengppeol Ppaeppeorl*, 2022, 2 channel video installation, dimension variable, interview with six people

❹ Hyunjoo Kim × Kwanghee Cho, *Room of reading – Voices heard outside*, multimedia installation, audience participation performance, dimension variable, 10 reading books with local dictates, audio, microphone, speaker, st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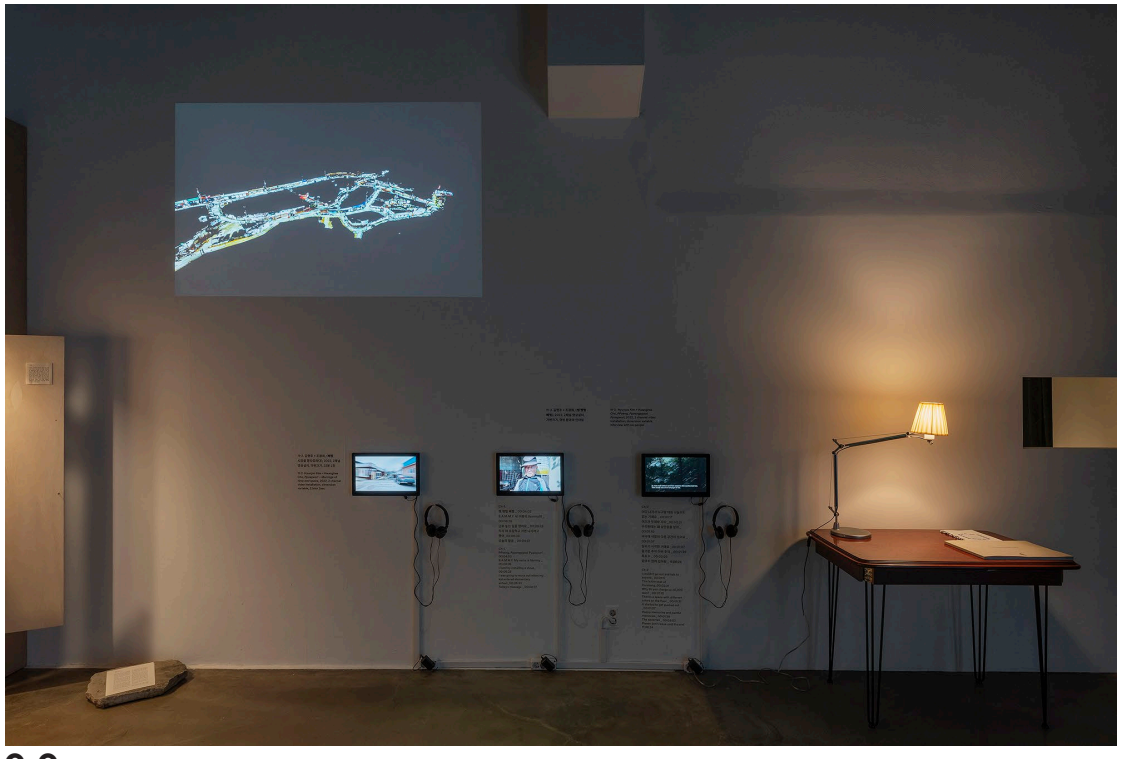




❹



❶



❷, ❸



❹



❹

❶ 〈빼뻘 아카이브〉
의정부 빼뻘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이 주둔했다가 한국전쟁 이후 미군 2사단 포병여단 본부인 캠프스탠리가 들어서면서 형성된 정착촌으로, 전쟁과 폭력에 시달려온 땅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곳이다. 빼뻘은 배나무 밭이 많아 '배밭'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도 하며, '뺑'이라는 식물이 일대에 가득하여 '뺑밭', '뺭뻘'로 불리우다가 '빼뻘'이 되었다고도 한다. 또 한번 들어오면 발을 뺄 수 없는 뻘과 같은 곳이라 하여 빼뻘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마을에 발을 디디면 그만큼 빠져나가기 어려운 기지촌 삶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2000년대 미군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경기 침체와 함께 마을이 쇠락하기 시작했으며, 빼뻘 땅의 소유권과 이를 둘러싼 토지세 인상 및 재개발 문제까지 얽혀 마을 주민들은 이중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빼뻘 아카이브〉는 지역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온 원주민들, 90년대 마을의 여성 및 아이들과 교류해온 기지촌여성활동가, 주민 가옥과 미군전용클럽 등 다양한 사람과 장소들을 만나면서 기록하고 수집한 것을 재구성한 작업이다.
다양한 크기의 문들은 내외부를 가르는 경계이자 통로이면서도 안과 밖 사이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보호체이자 가림막 역할을 한다. 관객이 직접 문을 열어야 볼 수 있는 아카이브들은 눈으로 바로 보이지 않는 빼뻘-땅의 역사와 함께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에 대한 연구의 과정을 드러낸다.

❷ 〈빼뻘-시공을 몽타쥬하다〉
〈빼뻘 – 시공을 몽타쥬하다〉에서는 VR을 통해 마을 곳곳을 담아내고자 했던 일련의 여정이 장소에 얽힌 기억을 현재로 불러들이는 연결과 접속의 과정이면서도, 빽빽하게 뒤엉킨 채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종의 생명체와 같은 곳이 지역-공동체의 장소임을 인식하게 한다. 장소

❶ 〈Ppaepeorl archive〉
Ppaepeorl in Uijeongbu is a place that contains the stories of the land and the people who suffered from war and violence. It was formed as a settlement village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y the Japanese army, and then became the beginning of Camp Stanley, the headquarters of the U.S. 2nd Division's Artillery Brigade after the Korean War. Ppaepeorl is said to be named for the 'Bae(pear) - bat(field)' because there are many pear tree orchards, and it is also said that the area was full of plants called 'Ppaeng(mulberry)', so it was called 'Ppaengbat' or 'Ppaepeorl', and it became 'Ppaepeorl'. On the other hand, it's like 'ppeol(mud)', that you can't get out of once you step in it, so it was called 'Ppaepeorl'. It has the symbolic meaning of life in the military camptown that is difficult to leave after setting foot in the village. In the 2000s, as the reduction of the U.S. military began in earnest, the village began to decline with the economic downturn, the residents suffered a double hardship due to the ownership of the Ppaepeorl land, a land tax increase, and redevelopment issues. *Ppaepeorl Archives* is a reconstruction of what was recorded and collected while meeting various people and visiting various places, such as the indigenous people who lived through their various economic activities in the area, women activists in a military camptown who interacted with the women and children in the village in the 90s, residents' houses and the U.S. military-only club. Doors of various sizes serve as boundaries and passageways that separate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as well as being protectors and barriers that allow psychological and physical distancing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The archives, which can only be seen after the audience opens the door, reveal the process of studying the individual identities and the community, along with the invisible 'Ppaepeorl -history of the land'.

❷ 〈Ppaepeorl-Montage of time and space〉
Ppaepeorl – Montage of time and space, is a series of journeys that sought to capture every

그리고 장소에 대한 기억, 나아가 기록에 대한 실체는 고정된 것이 아닌 파편화된 것에 가깝다.

❸ 〈뺑 뺑뻘 빼뻘〉
이 작업은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터뷰이다. 마을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말'은 기지촌으로 명명되는 고착화된 것을 넘어 '빼뻘'이라는 고유한 삶의 지형을 안내한다. 국방부, 전주 유씨, 전주 이씨, 의정부시, 민간인 등 토지소유주에 따라 마을에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땅의 경계'가 존재해 왔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누군가가 물질로 소유해 버린 땅과 70년 분단의 역사와 함께 형성된 미군 장벽에 대한 경계, 평생 노동을 했음에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된 노동, 땅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고용주와 고용인, 원주민과 이주민으로 대립하면서도 서로 연결되어있는, 모순된 공동체의 서사를 담론화 한다.

❹ 〈낭독의 방 –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들〉
작가들은 2019년 이후 빼뻘에서 만난 주민들의 구술을 담아왔다. 〈낭독의 방-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에서 관객은 모르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낭독하는 화자가 되기도 하고 청자가 되기도 한다.

corner of the village through VR, a process of connecting and accessing that brings the memories of the place into the present. It makes us recognize that a place, like a kind of life that is constantly changing, tangled in a dense way, is a local-community place. The place and the memory of the place show, furthermore, that the substance of the record is not fixed, but rather fragmented.

❸ 〈PPaeng, Ppaengppeol Ppaeppeorl〉
This work is an interview that has been ongoing since 2019. The 'Talk' of the residents who have lived through various economic activities in the village, guides the unique terrain of life called 'Ppaepeorl' beyond its being a fixed military camptown. Depending on the landowners, such a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Jeonju Yu clan, the Jeonju Lee clan, Uijeongbu city, and the civilians, there have been visible and invisible 'land boundaries' in the village. The stories of the residents are the narrative of a contradictory community of opposing sides and are connected by the land that has become someone's property, the boundaries of the U.S. military wall formed along with the 70-year history of the division, the contradictory laborers that have worked all their lives but cannot escape the bondage of poverty, those who have land and those who do not, employers and employees, natives and migrants.

❹ 〈Room of Reading – Voices heard outside〉
The artists have been capturing the oral statements of the residents they have met in Ppaepeorl since 2019. Through *Room of Reading-Voices heard outside*, the audience becomes both a listener and a speaker who recites in the voice of an unknown person.

노뉴워크

노뉴워크(NoNewWork)는 시각 이미지를 만드는 페미니스트 그룹으로 페미니즘과 미술 사이의 작업과 담론, 평론, 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성 작가 엘렌 맥마흔(Ellen McMahon)의 작품명에서 이름을 따온 '노뉴워크'는 가부장적인 제도, 남/여의 역할 및 여성성/남성성으로 구분하는 젠더 무의식들을 녹여낸 맥마흔의 작업에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을 매개 삼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여러 여성 관련 문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해보고자 모였다. 노뉴워크는 수면 위에 떠 오른 많은 페미니즘 이슈에서 시각 예술 분야 종사자가 연대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찾아왔고, 페미니즘과 미술을 기록하고 살펴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 현대미술과 시각 예술 분야 내 궤도의 현시점을 함께 짚어보고 이에 따른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타 예술가, 비평가, 전시 기획자, 활동가와의 교류를 통해 유동적 콜렉티브 방식으로 실행한다. 이번 전시를 위한 '일시적 정치 공동체'에는 만화 그리는 이미선, 판화 작업자 알록, 작가이자 기획자이며 반성폭력 활동가인 송진희, 공연예술창작자이자 활동가인 최미향, 시각예술가이자 매개자인 봄로야, 시각예술가이자 활동가인 자청, 여성주의 현대미술가이자 교육활동가인 이충열, 미술사학자이자 미술비평가인 성지은, 관람가이자 시각미술생산자인 혜원, 시각예술가이자 장례지도사인 김수이가 참여했다.

❶ 노뉴워크, 〈가상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위한 안전망〉

a. 이충열, 자청, 〈가상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위한 안전망〉, 2022, 패브릭 위 프린트, 철 프레임, 240×240×250cm

b. 봄로야, 〈노을에 취약한 눈〉, 2022,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14분 30초 - (사)여성문화네트워크 커미션

c. 송진희, 이충열, 자청, 최미향, 〈가상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위한 안전망 워크숍〉,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5분

d. 자청, 〈a nor b(remastered)〉, 2022, 가족이 쓰던 쿠션솜, 3년전 작업에서 베낀 글과 그림, 50×50cm

NoNewWork

NoNewWork is a feminist group that creates visual images. The group engages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working between feminism and art, discourse, critique, and movements. "No New Work" is also the title of Ellen McMahon's work. The group was formed to sympathize with the works of McMahon who melted the patriarchal order, roles of men and women, and the gender subconscious of dividing femininity and masculinity, and to visually express several ongoing issues related to females by using their own experiences. NoNewWork sought out works in which visual art workers can band together in the many feminist issues that have surfaced, and it has served as a platform to record and examine feminism and art. They stud the current point in the orbit of contemporary art and visual arts, and execute small and large projects through fluid collaborative methods by interacting with other artists, critics, exhibition planners, and activists. People from various fields participated in this temporary political community for this exhibition, including cartoonist Yi mi-sun, printmaker Alo, writer, curator and anti-sexual violence activist Songjinhee, performing arts creator and activist among artists Mihyang Choi, visual artist and mediator Bomroya, visual artist and activist za cheong, feminist modern artist and education activist Choongyeol Lee, art historian and art critic Ji Eun (Camille) Sung, spectator and visual art producer hyewon, and visual artist and funeral director Kim sueyi.

❶ NoNewWork, 〈Safety Net for a Virtual Feminist Artist Residency〉

a. Choongyeol Lee, za cheong, *Safety Net for a Virtual Feminist Artist Residency*, 2022, print on fabric, steel frame, 240×240×250cm

b. Bomroya, *The Eyes Vulnerable to the Sunset*, 2022,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14min 30sec - Commissioned by Women & Culture Network

c. Songjinhee, Choongyeol Lee, za cheong, Mihyang Choi, *Workshop to Make a Safety Net for a Virtual Feminist Artist Residency*,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5min

e. 이충열, 〈잠망경〉, 2018-2021, 혼합재료, 23×162×40cm

f. 이충열, 〈산책〉, 2022, 단채널 비디오, 12분 34초

❷ 노뉴워크, 〈퀴어 페미니스트를 위한 가상 장례식: 알 못〉

a. 김수이, 봄로야, 혜원, 〈퀴어 페미니스트를 위한 가상 장례식: 알 못〉, 2022, 책, 14.8×21cm

b. 김수이, 봄로야, 혜원, 〈퀴어 페미니스트를 위한 가상 장례식: 알 못〉, 2022, 버섯 테라리움, 22×45×34cm

c. 김수이, 봄로야, 혜원, 〈퀴어 페미니스트를 위한 가상 장례식: 알 못〉, 2022,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21분

❸ 노뉴워크, 〈가상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 입주 작가〉

a. 성지은, 〈일시적 거주 일지〉, 2022, 공책에 연필, 9×14cm

b. 이미선, 〈#한쪽하루, 2022.07.18.〉, 2022, 주워 온 나무판, 곰팡이 방지 페인트, 아크릴 물감, 52.6×74.6cm

c. 이미선, 〈에너지 로드〉, 2014, 만화책, 15×21cm, 44쪽

d. 이미선, 〈좋아하는 남의 개들〉, 2020, 포스터 이면지, 연필, 15.4×22.2cm, 10쪽 - 《밀양×강정 우리는 산다》, 강정평화상단,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커미션

e. 이미선, 〈그땐 그랬지〉, 2020, 포스터 이면지, 연필, 15.5×22.2cm, 12쪽 - 《우리집에 놀러와-당신도 줍줍되었습니다》, 그린 군소 반디 커미션

f. 이미선, 〈나, 계급〉, 2020, 포스터 이면지, 연필, 15.7×22.8cm, 20쪽 - 《나는 너》, 전태일 50주기 대전태일문화제 커미션

g. 이미선, 〈#한쪽하루〉, 2021-2022, 포트폴리오 북에 드로잉 원본, 2권

h. 이미선, 〈3022년의 어느 바닷가 마을〉, 2027, 포스터 이면지, 연필, 15.5×23cm, 80쪽

i. 알록, 〈논을 이루는 풍경 1〉, 2022, 장지 위 잉크, 47×60cm

j. 알록, 〈논을 이루는 풍경 2〉, 2022, 장지 위 잉크, 47×60cm

k. 알록, 〈차별금지법 제정〉, 2022, 종이 위 잉크, 21×30cm

l. 알록, 〈도시의 유산〉, 2021, 한지 위 잉크, 35×46cm

m. 알록, 〈겨울 논 썰매〉, 2022, MDF 위 잉크, 22×28cm

n. 알록, 〈씨앗 모종상〉, 2021, MDF 위 잉크, 22×28cm

o. 알록, 〈월동 쪽파 캐기〉, 2022, MDF 위 잉크, 28×22cm

p. 알록, 〈쓰러진 벼 묶기〉, 2022, MDF 위 잉크, 28×22cm

q. 알록, 〈방울토마토와 연장들〉, 2022, MDF 위 잉크, 28×22cm

r. 알록, 〈완두 갈무리〉, 2022, MDF 위 잉크, 28×22cm

❹ 노뉴워크, 〈가상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 2022, 웹 아카이브

❺ 봄로야, 〈관계인구 지도〉, 2022, 벽 위 먹지 드로잉, 가변설치

d. za cheong, *a nor b(remastered)*, 2022, cushion insert that the artist's family used to have, texts and drawings from the artist's works made three years ago, 50×50cm

e. Choongyeol Lee, *Periscope*, A Mirror into Another Perspective, 2018-2021, mixed media, 23×162×40cm

f. Choongyeol Lee, *A Walk*, 2022, Single channel video, 12min 34sec

❷ NoNewWork, 〈A Virtual Funeral for Queer Feminists: 'al m-th〉

a. Kim Sueyi, Bomroya, hyewon, *A Virtual Funeral for Queer Feminists: 'al m-th*, 2022, books, 14.8×21cm

b. Kim Sueyi, Bomroya, hyewon, *A Virtual Funeral for Queer Feminists: 'al m-th*, 2022, mushroom-terrarium, 22×45×34cm

c. Kim Sueyi, Bomroya, hyewon, *A Virtual Funeral for Queer Feminists: 'al m-th*, 2022,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21min

❸ NoNewWork, 〈Artist in Safety Net for a Virtual Feminist Artist Residency〉

a. Ji Eun (Camille) Sung, *Log of a Temporary Resident*, 2022 pencil on notebook, 9×14cm

b. Yi mi-sun, *#onepageaday, 2022.07.18.*, 2022, a found wood panel, fungus resistant paint, acrylic paint, 52.6×74.6cm

c. Yi mi-sun, *Energy Road*, 2014, brochure cartoon, 15×21cm, 44p

d. Yi mi-sun, *Someone's Dogs that I Like*, 2020, reusable poster, pencil, 15.4×22.2cm, 10p - Commissioned by Miryang x Gangjeong We Live, Gangjeong Peace Merchant Cooperative, Committee against the Miryang Power Towers

e. Yi mi-sun, *It Was Like That*, 2020, reusable poster, pencil, 15.5×22.2cm, 12p - Commissioned by Come Play at my Place – You are also picked up, Green Gunso Bandi

f. Yi mi-sun, *Me, the Class*, 2020, reusable poster, pencil, 15.7×22.8cm, 20p - Commissioned by I'm You, Daejeintaeil Festival for the 50th Anniversary of the Death of Chuntaeil

g. Yi mi-sun, *#onepageaday*, 2021-2022, original drawing, portfolio album, 2 books

h. Yi mi-sun, *A Village by the Sea in 3022*, 2027, reusable Poster, pencil, 15.5×23cm, 80p

i. Alo, *The Landscape stems from a Rice Paddy 1*, 2022, ink on chinese paper, 47×60cm

j. Alo, *The landscape stems from a Rice Paddy 2*, 2022, ink on chinese paper, 47×60cm

k. Alo, *The Enactment of Anti-Discrimination Act*, 2022, ink on paper, 21×30cm

l. Alo, *The Heritage of a City*, 2021, ink on korean paper, 35×46cm

m. Alo, *Sled on Winter Paddy*, 2022, ink on MDF, 22×28cm

n. Alo, *A Seedling Seller*, 2021, ink on MDF, 22×28cm

o. Alo, *Harvesting Chives after Winter*, 2022, ink on MDF, 28×22cm

p. Alo, *Tying Bent Rice*, 2022, ink on MDF, 28×22cm

q. Alo, *Grape Tomatoes and Tools*, 2022, ink on MDF, 28×22cm

r. Alo, *Finishing Peas*, 2022, ink on MDF, 28×22cm

❹ NoNewWork, *A Virtual Feminist Artist Residency*, 2022, Web Archive

❺ Bomroya, *The Map of Relational Population*, 2022, Carbon paper drawing on wall, dimension variable



❶-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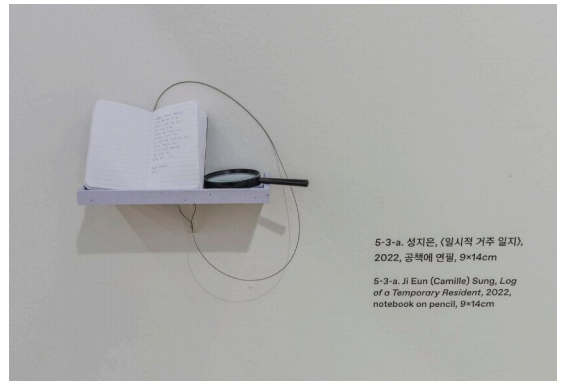
❷



❸-b~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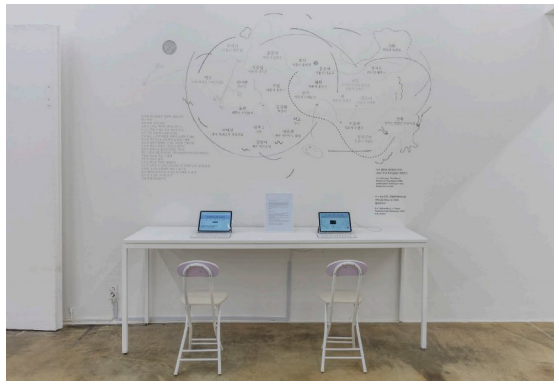
❸-m~r



❸-a



❶-d



❹, ❺



❸-i~r


5-1-e. 이충열, (잠망경),
2018-2021, 혼합재료,
23×162×40cm
5-1-f. 이충열, (산책), 2022,
단채널 영상, 12분 34초
5-1-e. Choongyeol Lee,
Periscope, A Mirror into Another
Perspective, 2018-2021, mixed
media, 23×162×40cm
5-1-f. Choongyeol Lee, A Walk,
2022, single channel video,
12min 34sec

❶-e,f

❶ 〈가상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위한 안전망〉

〈가상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 내 페미니스트 아티스트에게 여전히 부족한 안전망과 연대의 불안정성, 그리고 수도권 중심 정책의 소외에 대항하고, 발화하는 장소이다. 이때 '가상'은 실질적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현실 내 불가능한 지점을 과감하게 전복할 수 있는 서사이며, 창작 공간만의 기능이 아닌 거주, 생존, 생태, 죽음 등의 담론을 언급할 수 있는 미래 시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공간은 공생과 연대가 가진 이상화된 환상이나, 표백된 유토피아적 안전이 아니라 지역, 여성, 예술과 삶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의 충돌을 가시화하고 풀어가는 과정이자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뉴워크와 부산 및 전주의 문화예술 반성폭력 연대 활동가이자 예술인, 그리고 탈-성장과 생태 감수성을 기록해온 예술인이 모여 '일시적 정치 공동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일시적 머무름의 형태로 형성되는 관계망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약속은 중요하다. 우리는 창작과 연대가 일어나는 장으로서의 레지던시라는 점거지를 상상한다. 이를테면 왜 레지던시 공간에 입주 작가와 함께 살아가는 어린이나 반려동물은 머물 수 없는지,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분리되어 창작해야만 하는지, 또 인종과 국적은 고려되지만 성적 지향은 고려되지 않는지 등의 질문을 나누며 배제와 소외가 없는 예술 창작 환경을 위한 안전망을 구성하고자 한다. 약속은 구성원 사이의 경험과 배경의 차이, 때로는 위계의 위험에 대한 예민함을 잊지 않으며 수정과 재합의를 거쳐 변형된다. 그리고 구성원의 정체성과 변화뿐만 아니라, 초대된 관객 스스로 안전망에 참여하고 안전망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열어두고자 한다. 우리가 직조한 이 안전망은 문화예술계 미투 이후 창작 환경과 지원 제도 속에서 반-성폭력의 기반을 만들어온 운동의 연장선에서 흔들리고 접촉하며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❶ 〈Safety Net for a Virtual Feminist Artist Residency〉

Virtual Feminist Artist Residency is a place where feminist artists in a patriarchal capitalist society ignite and fight against the still-lacking safety nets and unstable solidarity, and the marginalization of policies centered on the metropolitan area. In this case, 'virtual' is a narrative that can establish a real network, boldly subvert impossible points in reality, and also a future tense that can refer to discourses such as residence, survival, ecology, death, etc., which are not only functions of the creative space. This time and space are not an idealized illusion or the washed-out utopian safety of symbiosis and solidarity, but rather a process and journey of visualizing and resolving the intertwined conflicts of interest in local-women-art-life. To this end, No New Work and the activists and artists of the cultural art of anti-sexual violence in Busan and Jeonju and the artists who have recorded de-growth and ecological sensitivity will come together to try out a 'temporary political community'. Commitments for the safety of networks and communities formed as temporary stays is important. We imagine that residency, as a place where creation and solidarity take place, is an occupation. For example, they will discuss questions such as why children and pets are not allowed to live with the resident artist in the residency space, whether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should create separately, and whether race and nationality are taken into account when sexual orientation is not taken into account, thus creating a safety net for an environment of artistic creation without exclusion or marginalization. The promise is transformed through revision and renegotiation, not forgetting the difference in the experiences and backgrounds between members, and sometimes a sensitivity to the risk of hierarchies. In addition, the safety net is left open so that it can be added to and extended according to the invited audience, as well as according to the identity and change of the members. This safety net they wove will be shaken and contacted in the extension of the movement that has laid the foundation for anti-sexual violence in the creative environment and as a support system after the MeToo movement in the culture and art world.

❷ 〈퀴어 페미니스트를 위한 가상 장례식: 알 뭇〉

이 작품은 퀴어 페미니스트의 마지막 생을 상상해보는 생태주의적 장례 미사 퍼포먼스 형식 워크숍의 결과물이다. 워크숍 참여자는 노뉴워크의 일시적 정치공동체가 제안하는 생태주의적 장법을 살펴보고, 죽음의 형태를 선택한다. 그리고 갖거나 버리고 싶은 기억, 나이 듦에 관한 자유로운 사유 등을 기록한 문서는 소각 후 버섯을 재배하는 비료로 사용된다. 나아가 가상의 죽음 이후 탈-성장, 에코 페미니즘적 관점을 교차한 다양한 액티비티를 40일 동안의 보시(布施)로 실천하며, 퍼포먼스의 여운 너머 실제의 죽음에 관한 질문과 답을 이어간다. 이를 통해 막연한 미래로부터 독립적이고 비선형적인 퀴어 페미니스트 거주지로서 가상 레지던시에 덧붙는 의미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목의 '알 뭇'은 구약성서에서, 정확한 뜻이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로, '영원히', '죽음으로', '죽음 넘어' 등으로 번역된다.

❷ 〈A Virtual Funeral for Queer Feminists〉

A Virtual Funeral for Queer Feminists: 'al m-th is an ecological funeral Mass performance-type workshop that imagines the end of life for a queer feminist. Workshop participants examine the ecological burial method proposed by the temporary political community of NoNewWork and choose a form of death for her. Documents that recorded memories of wanting to keep or throw away, free thoughts about aging, etc., are used as fertilizer for growing mushrooms after incineration. After her virtual death, various activities across the de-growth, eco-feminist perspectives are practiced as offerings for 40 days, and questions and answers about a real death are continued beyond the lingering effects of the performance. Through this, they intend to explore the meaning of a virtual residency as an independent and non-linear queer feminist residence in the vague future.

*'al m-th' is an enigmatic word that has no precise meaning in the Old Testament, and is translated as 'forever', 'to death', 'beyond death', etc.

❸ 〈가상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 입주 작가〉

가상의 페미니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의 입주 작가인 성지은, 알록, 이미선은 각각 캐나다, 양평 두물머리, 제주 강정마을에 거주하며, 지역 내 자신의 좌표를 글, 판화, 만화 등의 기록 매체로 선보인다. 여기에서 가상의 레지던시가 지닌 트랜스 로컬, 탈-성장, 에코 페미니즘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또한 임시적 거주지에서 부유하는 몸이었던 기억, 페미니스트로서 지역 생활 내 사람을 마주하는 태도, 이방인이자 외지인으로서 지역과의 연대 등 이번 전시의 키워드이자 목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❸ 〈Artist in Safety Net for a Virtual Feminist Artist Residency〉

Virtual Feminist Artist Residency artists Ji Eun(Camille) Sung, Alo, and Yi mi-sun live in Canada, Dumulmeori in Yangpyeong and Gangjeong Village in Jeju, respectively, and present their coordinates in media such as writing, printmaking and cartoons within the local community. Here, the virtual residency's trans-local, de-growth and orientation of eco-feminism can be gauged. They also want to directly reveal the keywords and goals of this exhibition, such as those of temporary residence, where floating bodies dream rather than have residences, the attitude of connecting people in local life as feminists, and relationships in the local area as strangers and outsiders.

다이애나랩

다이애나랩은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는 표현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그룹이다. 미디어아트, 사운드아트, 텍스타일, 사진, 영상 등 개인 작업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콜렉티브로 물리적인 공간부터 순간,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 전체를 섬세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 협력한 우에타 지로는 사진과 영상, 그래픽 디자인을 매개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거나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하는 부분을 조명하는 작업을 해왔다. 도시의 다양한 지역에서 현장이라 불리는 곳에 머무르며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대표적으로 영화 〈소음의 소음〉(나라국제영화제 장편경쟁, 2014) 및 리슨투더시티 〈옥바라지 골목〉(촬영, 연출, 국제실험영화제, 2016) 등이 있다. 또 다른 협력자인 blblbg는 소수이고 이상한 것들을 불특정한 이들에게 배급하고 있다.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안양파빌리온, 2014) 및 《인터넷 블랙마켓》(통의동 보안여관, 2016)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danalab

dianalab is a group that researches and implements expressions together with social minorities. As an collective created by individuals from different fields such as media art, sound art, textiles, photography, and videos, the group finetunes everything, from physical spaces to a fleeting moment, and even the invisible air, to be more delicate. Jiro Ueta, one of the participants in this exhibition, uses photos, videos, and graphic designs to shed light on areas that people do not mind or tend not to mind. They stay in different sites in urban regions to take photos and videos. Their best-known films are *The Noise of the Noises* (Nar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4) and Listen to the City's *Okbaraji Alley* (filmed and produced by Ueta, International Experimental Film Festival, 2016). Another participant, blblbg distributes minor and weird things to random people. They also participated in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Anyang Pavilion, 2014) and the group exhibition *Internet Black Market* (Tongui-dong Boan Inn, 2016)

❶ 다이애나랩 × 우에타 지로, 〈우리는 이미 펜스를 만난 적이 있잖아요〉, 2022,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2시간 39분 4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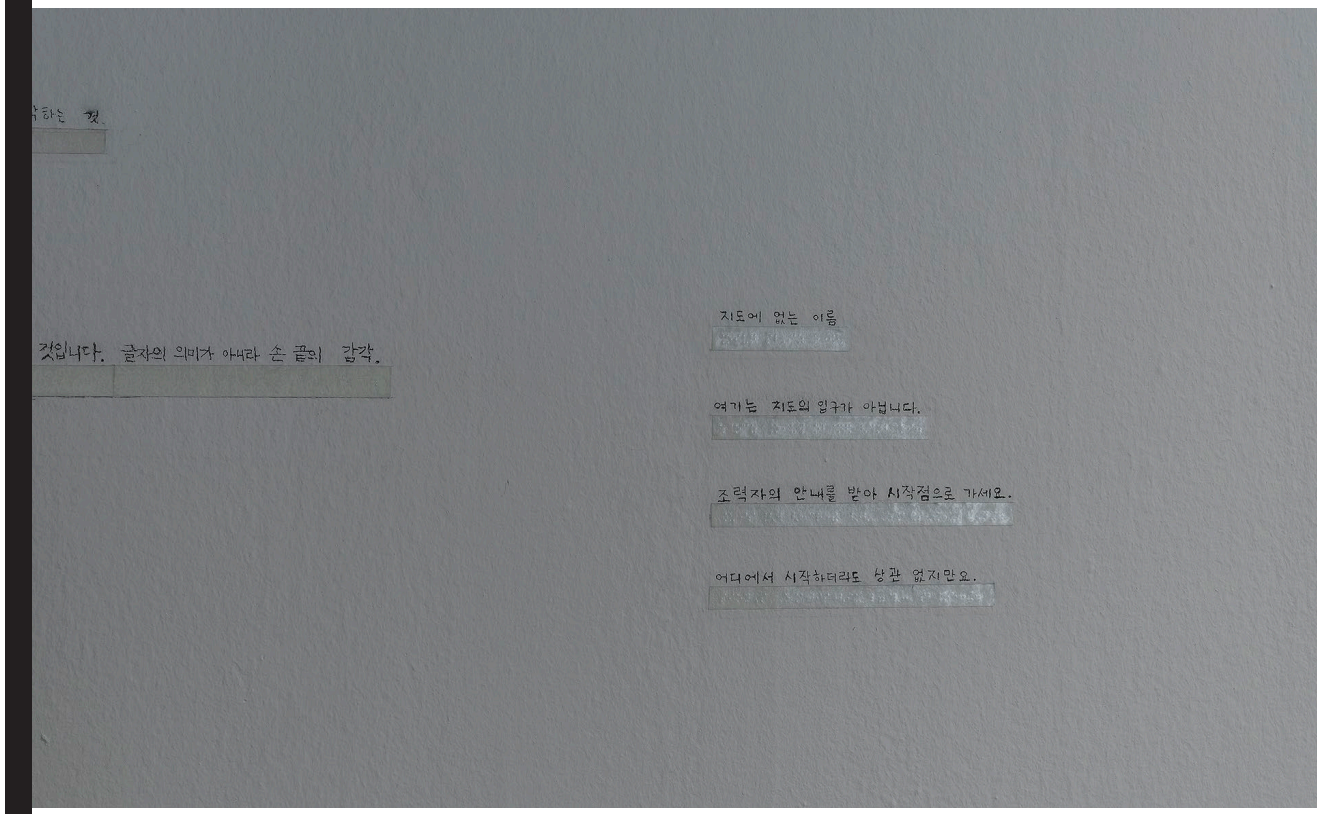
❷ 다이애나랩 × blblbg, 〈지도에 없는 이름〉, 2022, 점자 스티커, 가변크기

❶ dianalab × Ueta Jiro, *We have encountered fences before*, 2022, single channel video, color, sound, 2hr 39min 40sec

❷ dianalab × blblbg, *Nameless on the Map*, 2022, stickers in braille, dimension variable



❷



❷


뭔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대하는 존재들도
없고
And there's nothing that
treats me or anyone else
different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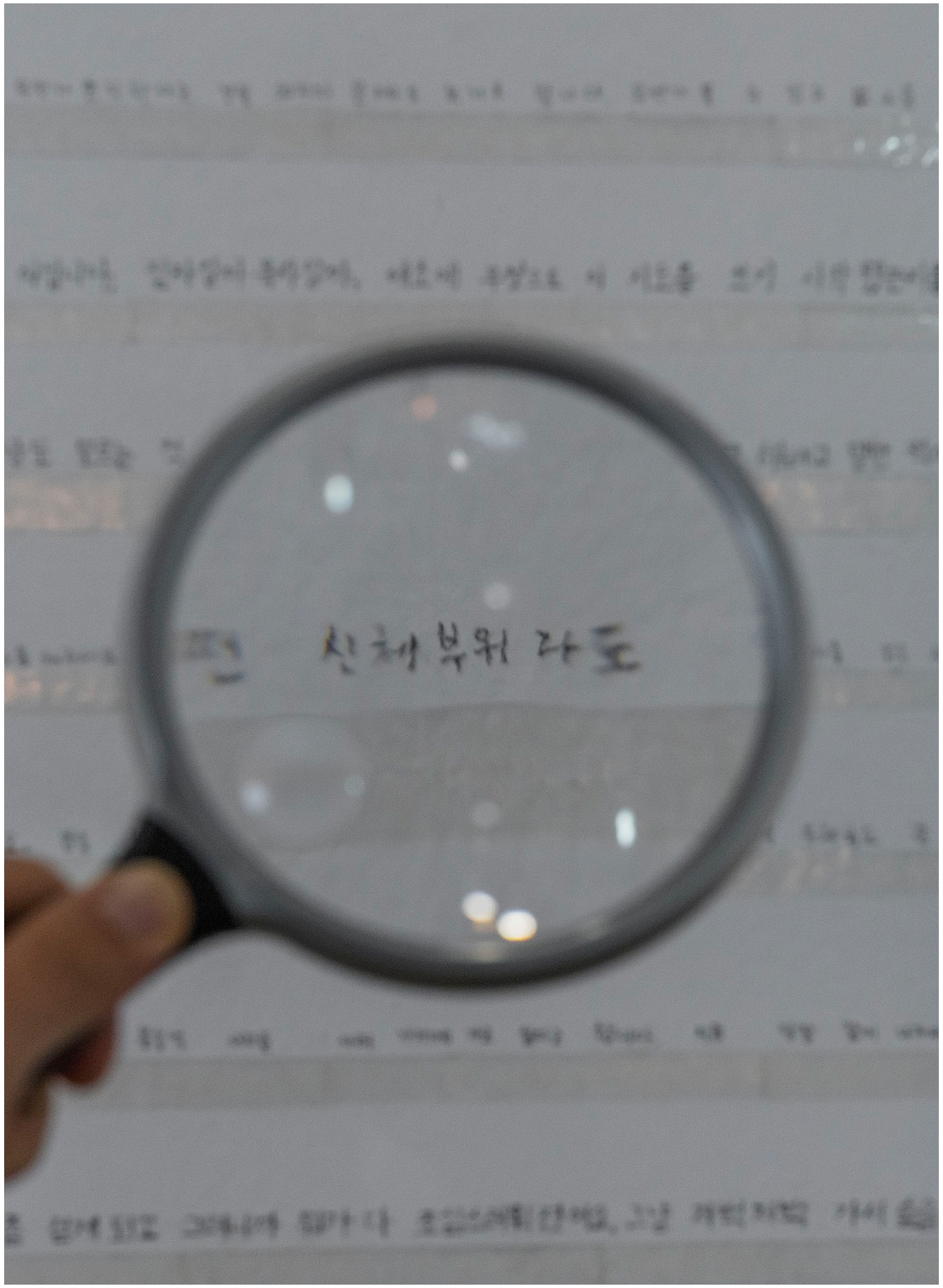
1



1


우리가 돌고래를 비롯한
비인간 존재들을 대하는
태도들은 결국에 다른 사람,
다른 같은 인간종 사이에서
다른 일을 대할 때 고스란히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Our attitude towards
nonhumans are eventually
connected to the ways we
treat people that are
different from us, or of
different ethnicity, etc.
돌고래를 함부로 막
오락거리,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을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필요할 때
쓰고 함부로 버려도 되는
그런 사회의 그런 행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A society that can
consume dolphins for
entertainment or use
them as money-spinner
will treat nonstandard
workers as those who can
be used and disposed of
when no longer deemed
necessary.

1



❷

❶ 〈우리는 이미 펜스를 만난 적이 있잖아요〉
이 작품은 '차별없는가게'라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선, 벽, 경계, 숲, 바람, 바다를 지나가며 다양하게 교차하는 감각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를테면 아주 멀리에 있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존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함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온전히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탐색한다. 본 작품에는 수어, 자막, 음성해설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의 불충분한 지점과 시차, 그리고 어긋난 톱니바퀴의 틈새처럼, 번역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한다.

*차별없는가게는 다이애나랩과 인포숍카페별꼴이 2019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장애인과 소수자가 차별 받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가게의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❷ 〈지도에 없는 이름〉
지도에 없는 이름은 보이지 않고 읽을 수 없는 지도에서 출발한다. 언제, 어디에라는 특정 공간에 대한 지리학적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가 아니라, 흔적들 혹은 있다가 사라진 것들, 언젠가 사라질 것들, 그리고 '차별없는가게'라는 개념을 둘러싼 장소와 순간들을 따라가는 이야기이다. 이 지도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리지 않는 지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마치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접근성이 제한된 웹의 이미지 지도 앞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읽는다는 행위는 무엇일까. 언어가 아닌 다른 감각으로 무언가를 읽고 다시 전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 없는 것들에 대한 지도, 언젠가 만들 것들에 대한 지도를 더듬어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지도 아닌 지도는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놓게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❶ 〈We have encountered fences before〉
We have encountered fences before contains loosely connected human and non-human beings, centered on the project called We Welcome All*. They talk about the various senses that cross with lines, walls, boundaries, forests, winds, and seas. Exploring, for example, how to connect with a strange being so far away that they never met, how to make moments where they feel together and how to communicate things that seem impossible to fully convey. This work has sign language, subtitles, and voiceovers, but talks about things that can't be translated, like its insufficient points, parallax, and gaps in the cogwheel.

*We Welcome All is a project that dianalab and Infoshopbyulkkol have been working on since 2019 to create a map of shops wher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minorities can come and go without discrimination.

❷ 〈Nameless on the Map〉
Nameless on the Map starts from an invisible and illegible map. It is not a map that provides geographic information about a space someday somewhere, but a story that follows traces, things that come and go, things that will one day disappear, and the places and moments surrounding the concept of We Welcome All. This map was started by thinking about how to approach the invisible, untouchable and inaudible map. It's like a visually impaired person in front of a web image map with limited access. What is the act of reading? What does it mean to read and retransmit something with a sense other than language? Can we get there by following a map of places we've never been to, maps of things we don't have, and maps of things we'll make someday? Where will this map that is not a map take us to?

로자바 필름 코뮨

로자바 필름 코뮨은 영화감독으로 구성된 풀뿌리 콜렉티브로 작업 방식은 로자바(시리아 동북부 자치행정부)의 국가 없는 민주주의 결성이라는 더 커다란 정치적 프로젝트에 뿌리를 두고 있다. 로자바 필름 코뮨의 영화들은 영화제작에 있어 직접 임하며 배우는 과정의 일부이자 그들의 투쟁과 복원에 대한 기록이다.

The Rojava Film Commune

The Rojava Film Commune is a collective of grassroots filmmakers whose work methods are rooted in the larger political project of the formation of a stateless democracy in Rojava (Autonomous Administration of North and East Syria). Their films are part of a learning-by-doing process in filmmaking and a record of their struggles and resilience.

❶ 로자바 필름 코뮨, 〈로자바 필름 코뮨 프로젝트 영상〉, 2021, 영상, 13분

❷ 로자바 필름 코뮨, 〈외로운 나무들〉, 2017, HD영상, 43분

❸ 로자바 필름 코뮨, 〈로자바 국제 영화제 포스터〉, 2019-2020

❹ 로자바 필름 코뮨, 〈'로자바를 구하라' 포스터〉,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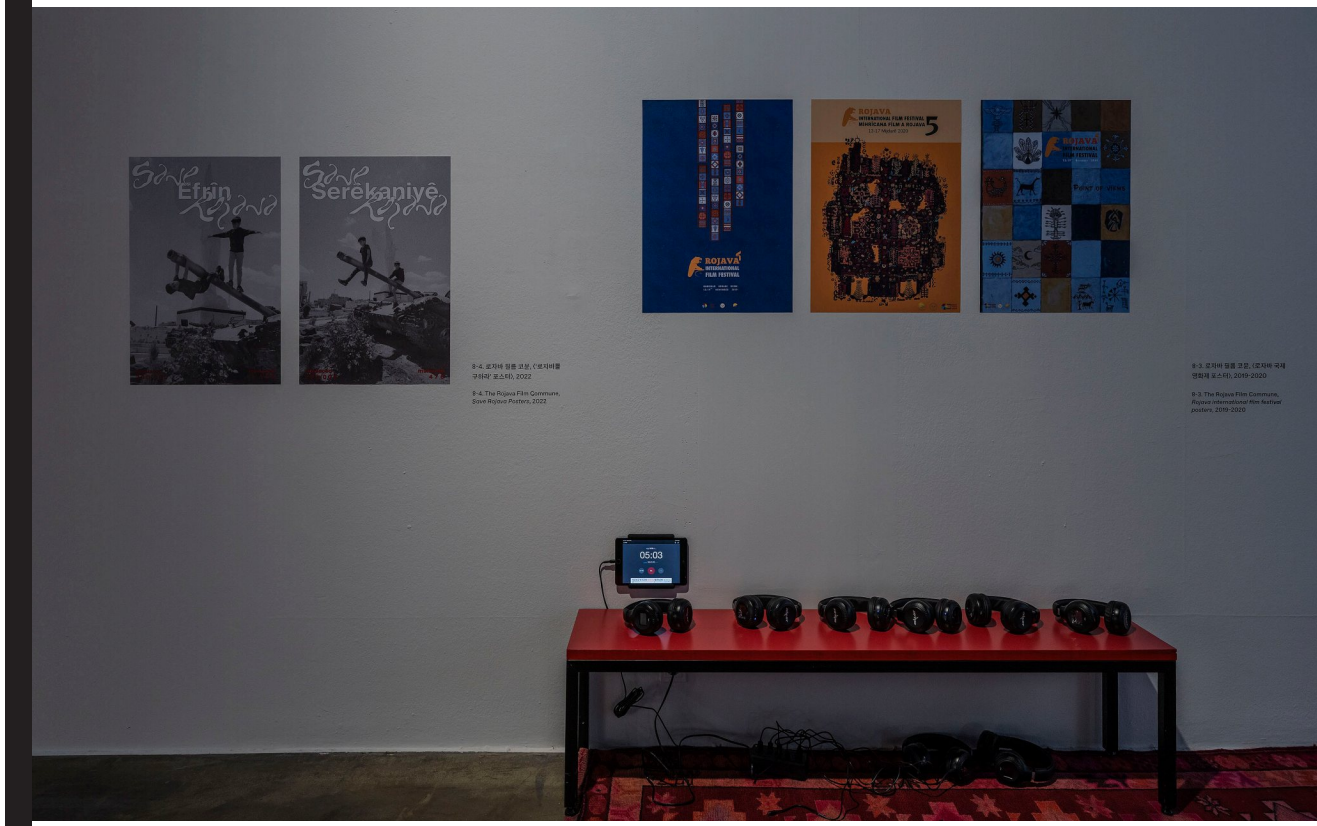
❶ The Rojava Film Commune, *Komina Flim a Rojava Project Video*, 2021, video, 13 min

❷ The Rojava Film Commune, *Lonely Trees*, 2017, HD video, 43min

❸ The Rojava Film Commune, *Rojav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posters*, 2019-2020

❹ The Rojava Film Commune, *'Save Rojava' Posters*, 2022





❸, ❹



❶



❷

❶ 〈로자바 필름 코뮨 프로젝트 영상〉

❷ 〈외로운 나무들〉
쿠르드족의 역사는 지배적으로 그들을 억압한 국가에 의해 쓰여 왔기에, 쿠르드족의 전통 민요는 그 억압에 저항하고, 그들의 역사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해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어왔다. 이 영화는 자연 풍경과 사람들을 아름답게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형식의 영화 스토리텔링을 쿠르드 지역의 가수와 시인, 그리고 전통 유산인 전문 소리꾼 뎅베지와 연결한다.

❸ 〈로자바 국제 영화제 포스터〉
로자바 필름 코뮨은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 그리고 언어를 지닌 로자바 사람들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여러 상징들을 통해 다른 문화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주제의 로자바 국제 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를 제작했다.

❹ 〈'로자바를 구하라' 포스터〉
사진 속의 탱크들은 이슬람 국가(ISIS)와 맞서 싸워 그들을 물리친 시민들이 있는 코바니 시에 있는 것으로, 코바니는 2015년에 해방되었다. 포스터의 숫자는 터키 점령 중 2018년 아프린과 2019년 세레카니예 지역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수를 의미한다.

❶ 〈Komina Flim a Rojava Project Video〉

❷ 〈Lonely Trees〉
As the dominant history of the Kurdish people has been written by the states that oppressed them, traditional Kurdish folk songs have been a tool, a way to resist oppression and to preserve their history, passing it on to future generations. Through beautiful pictures of landscapes and people, this film connects a new of form of cinematic storytelling with that Dengbêj – the heritage of singers, poets and storytellers of the region.

❸ 〈Rojav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posters〉
With different symbols that present the diversity of religion, culture and languages of the people of Rojava, the Rojava Flim Commune proposed these posters to be the official posters of Rojav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main theme of which was that different culture can live together in peace.

❹ 〈'Save Rojava' Posters〉
The pictures of the tanks are from the city of Kobani, the city whose population fought and defeated ISIS. It was liberated in 2015. The numbers present the people who lost their lives in the Turkish occupation in Efrin 2018 and Serekaniye 2019.

브레이크워터 [최영숙 × 태이]

브레이크워터는 런던에 거주하는 한국 디아스포라 작가 듀오 태이와 최영숙의 콜렉티브로 2019년에 결성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코로나 시기를 관통하며 동아시아 이주민들의 위태로운 삶과 상처들을 들여다보는 작업들을 선보인다. 기후변화와 탈식민주의, 노동의 문제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풍경의 정치성, 영적인 지식, 다양한 종 간의 우정과 치유에 관심을 두고, 사회적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21년 리버풀 비엔날레 공공 프로그램에서 '탈식민 보타니 워킹 그룹'을 공동 창립하고 2022년 《카셀 도큐멘타15》에서 〈거절의 오아이스〉 퍼포먼스 작업을 함께 선보였다.

Breakwater [Youngsook Choi × Taey Iohe]

Breakwater is a London-based Korean diaspora artist duo of Taey Iohe and Youngsook Choi. They were organized in 2019. At this exhibition, they will unveil a work that looks back on the perilous life of immigrants from East Asia, and their wounds, going through the COVID-19 pandemic. While acknowledging that climate change, decolonization, and labor issues are closely connected, they are interested in the politics of sceneries, spiritual knowledge, and friendships and caring between various species as they work based on social practices. In 2021, they co-founded the "Decolonising Botany Working Group" at the public program Liverpool Biennial, and jointly performed *Refusing Oasis* at *Kassel Documenta Fifteen*.

❶ 브레이크워터(최영숙 × 태이), 〈켜켜이 꽃〉, 2021, 디지털 프린트와 자수가 혼합된 태피스트리와 민들레 술병이 묻힌 흙더미, 태피스트리 4×3m, 흙더미 5m

❷ 브레이크워터(최영숙 × 태이), 〈샛노랗고 복실복실한 자장가〉, 2021, 스토리텔링 퍼포먼스 녹음본, 약 15분 - 한국어 번안 : 한윤아

❸ 브레이크워터(최영숙 × 태이), 〈숲이 되어간다〉, 2020-2022, 프로젝트 기록사진 슬라이드

❶ Breakwater(Youngsook Choi × Taey Iohe), *Fermented Flower*, 2021, Embroidered tapestry, Digital drawing print on fabric, fermented dandelion liquor half buried in soil, 4×3m wide tapestry, 5m wide soil bed

❷ Breakwater(Youngsook Choi × Taey Iohe), *Yellow Furry Lullaby*, 2021, a recorded version of storytelling performance, approx. 15mins - Adapted to Korean by Yoonah Han

❸ Breakwater(Youngsook Choi × Taey Iohe), *Becoming Forest*, 2020-2022, project documentation, slideshows



❶, 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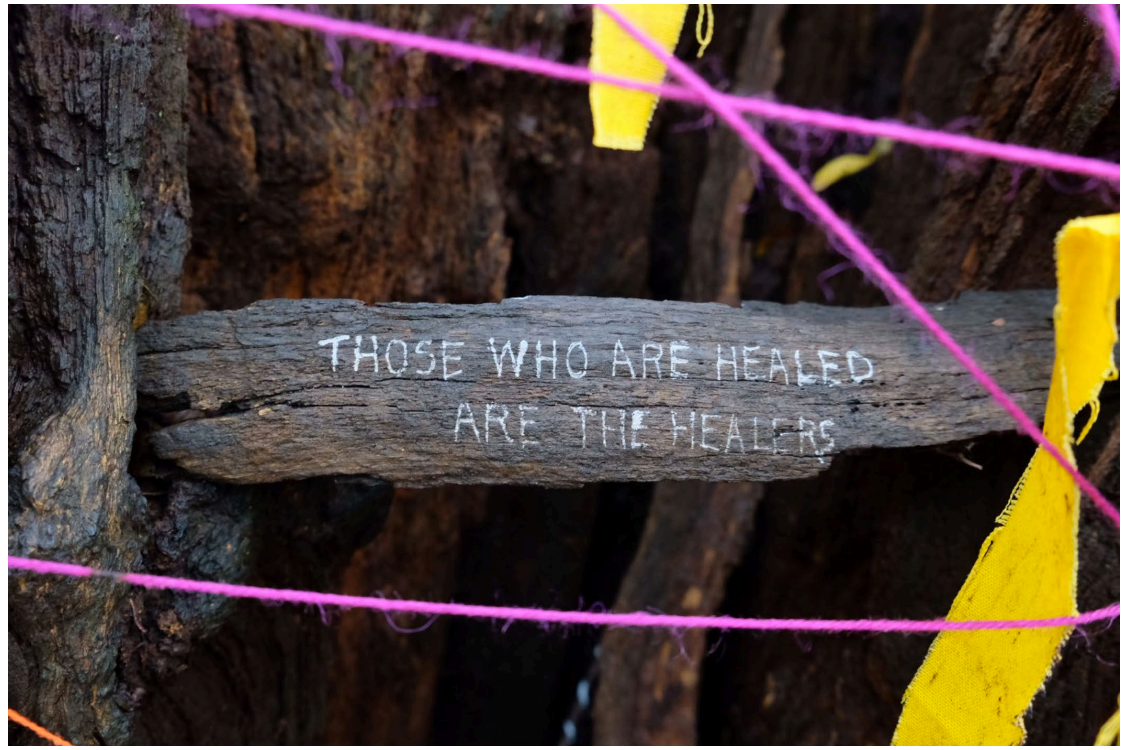
❶



1


BREAK WATER
9 브레이크워터(최양숙 × 태이)
Breakwater
(Youngsook Choi × Taey Iohe)

3


THOSE WHO ARE HEALED
ARE THE HEALERS

3



3

❶ 〈켜켜이 꽃〉
서구 노예제도의 폐지로 인한 노동력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도입된 8년 단위의 계약노동제는 처참한 노동환경 및 그 반인륜적 대우가 노예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아시아의 빈곤계층을 표적으로 시작하여 인도 등 남아시아로 확장하면서 제국의 노동착취 구조를 이어가는 이 과정에서 제대로 기록되지 않거나 주목 받지 못한 아시아 디아스포라 노동자들의 상처를 소환한다. 아울러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착취구조 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죽음과 생존, 회복의 가능성을 함께 묵도하는 주체로 민들레를 상상하고자 한다. 〈켜켜이 꽃〉은 마음의 병을 꽃으로 유인하여 술이 담긴 병에 가둔 뒤 땅에 묻고 이를 통해 미친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굿의 한 형태를 내러티브의 중심에 놓고자 한다. 수많은 상처와 억울한 상실로 점철된 아시아의 이주 노동역사, 그리고 이주커뮤니티를 향한 치유의 가능성을 민들레 자수 한땀 한땀에 수놓고, 여러 계절에 걸쳐 다양한 장소에서 채집하여 담근 민들레 술병에 켜켜이 담았다.

❷ 〈샛노랗고 복실복실한 자장가〉
〈샛노랗고 복실복실한 자장가〉는 일종의 스토리텔링 퍼포먼스이다. 서구 식민열강의 계약노동제로 인해 착취를 겪은 중국 이주 노동자들의 역사와, 그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동시대의 이주노동 구조를 둘러싼 문제를 영국의 어린이 동화인 '우리 곰사냥 간다'와 웅녀가 등장하는 '단군신화'를 함께 엮어 살펴보고자 한다. 사냥이라는 식민 지배의 메타포와, 왕을 잉태하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고 그 이후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 웅녀 이야기를 이주노동자의 경험과 교차시키고, 마지막에 자장가를 부르고 민들레주를 나눠 마시면서 이주공동체 안에 현존하는 트라우마를 묵도하여 다정한 치유의 순간을 시도한다.

❶ 〈Fermented Flower〉
The eight-year indentured labor system, introduced to meet the demands of the labor force caused by the abolition of slavery in the West, was no different from slavery in its miserable working conditions and treatment that went against humanity. In the process of continuing the structure of the empire's labor exploitation by targeting the poor class in East Asia and expanding to South Asian countries, such as India, it summons the wounds of Asian diaspora workers that have not been properly recorded or paid attention to. In addition, they imagine a dandelion as a subject that acquiesces to the possibility of death, survival, and the recovery of migrant workers within the structure of exploitation that continues to this day.
Fermented Flower places at the center of the narrative a form of 'Gut' known for healing madness, luring the heart's illness into flowers, locking it in a bottle of liquor and burying it in the ground, and the history of migrant labor in Asia, dotted with numerous wounds and unfair losses and the possibility of healing for migrant communities in every single stitch of a dandelion embroidery, collected from various places throughout the seasons and placed in a bottle of dandelions soaked in layers.

❷ 〈Yellow Furry Lullaby〉
Yellow Furry Lullaby is a storytelling performance that weaves the history of Chinese migrant workers exploited by Western colonial powers and the issues surrounding contemporary migrant labor structures that lead to their continuation, into a British children's fairy tale 'We're going on a bear hunt' and into the Dangun mythology featuring Ungnyeo. Hunting as a metaphor of the colonial rule, the story of a woman who fulfilled her duties by giving birth to a king and whose life after that does not exist, intersects with the experience of migrant workers and, at the end, we sing a lullaby and share dandelion wine, while meditating on the trauma present in the migrant community and lovingly attempting a moment of healing.

❸ 〈숲이 되어간다〉
이 작품은 팬데믹과 함께 증가한 반아시아인 정서가 한참이던 2020년 초에, 외로움과 고립으로 힘들어하는 아시아 이주민들을 위한 정신적 치유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마음의 고통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결과로 바라보며, 정신 건강을 공동체와 사회적 책임으로 상정하는 이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영국문화예술부의 지원을 받아 2년 동안 진행되었다. 자연과 시간을 치유의 주체로 놓고, 숲과 계절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사계절 숲 걷기,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치유방법론들을 실험하였고, 그 기록들을 모아 커뮤니티 리더들이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툴킷을 발행했다. 슬라이드 영상은 기록 사진들 및 공동체 치유와 관련된 키워드들의 모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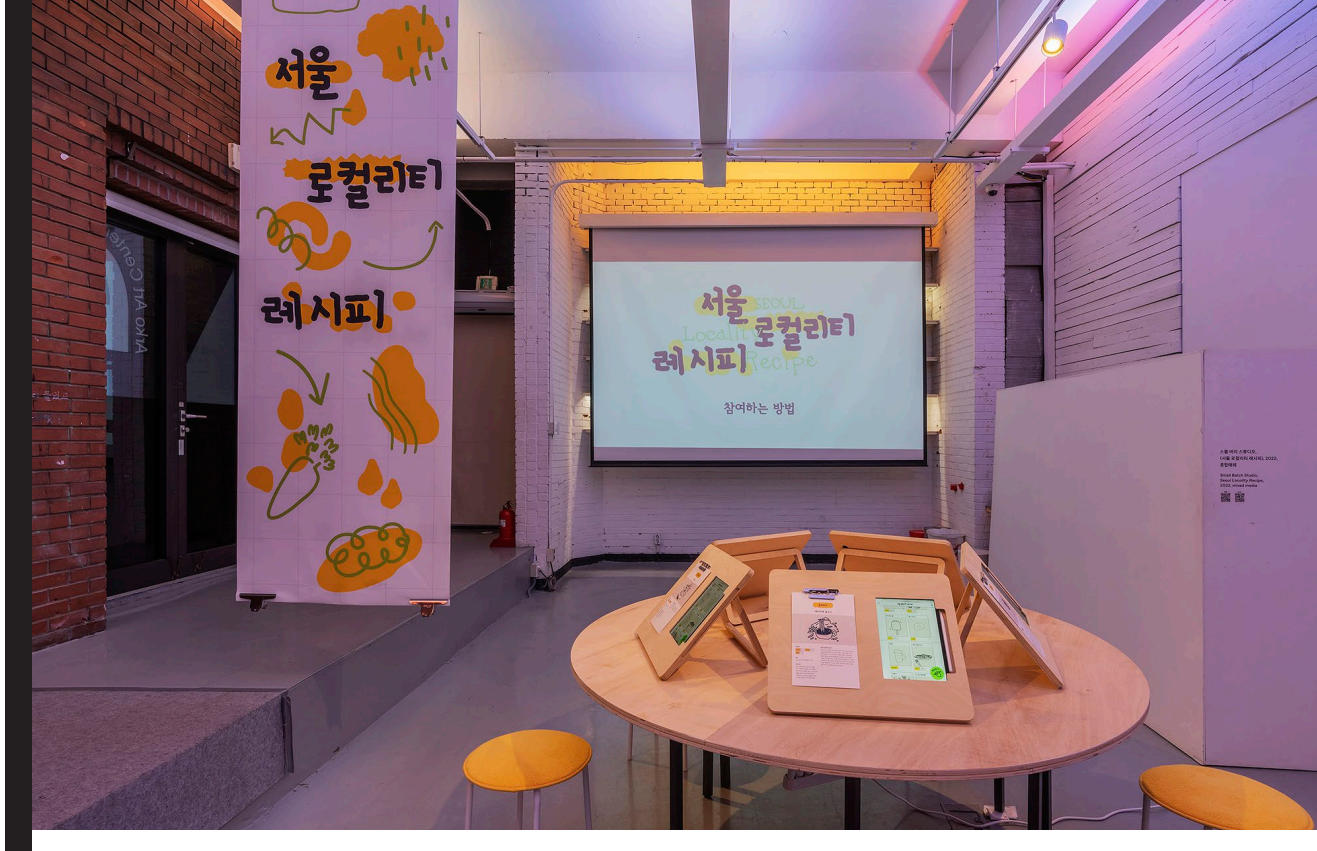
❸ 〈Becoming Forest〉
Becoming Forest was started in early 2020, at a time when anti-Asian sentiment was growing with the spread of Covid-19, with the aim of providing spiritual healing for Asian migrants struggling with loneliness and isolation. The community project, which views heartache as a result of structural social problems rather than individual problems, and posits mental health as a community and social responsibility, was funded by the UK Department for Culture and the Arts for two years. Positioning nature and time as healing agents, the program was organized around the forest and the sense of seasonality, such as four seasons of forest walks, online workshops and various healing methodologies. The records were collected and a toolkit was published for community leaders to put into practice. The slide video is a collection of archival photographs and keywords related to community healing.

스몰 바치 스튜디오

스몰 바치 스튜디오는 식경험 디자이너 강은경이 운영한다. 협업과 리서치를 기반으로, 음식을 매개로 발생하는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현상들에 관심을 두는 경험 디자인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1제곱미터의 우주》(실험실C, 2022), 《돌고 돌고 돌고》(팩토리2, 2021-22) 등 다수의 단체전과 《T for 2》 (우란문화재단, 2021) 등의 프로젝트에서 연구 및 기획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피칸트는 송민선과 최중원이 운영하는 서울 기반 디자인스튜디오로, 포스터와 책, 브랜딩,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등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활동한다. 매콤하고 톡 쏘는 향신료의 맛을 표현하는 독일어 형용사 'pikant'처럼, 디자인스튜디오 피칸트는 생태와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프로젝트에 멋과 풍미를 더하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Small Batch Studio

Small Batch Studio is operated by food experience designer Kang Eun-gyeong. They works on experiential design projects with an interest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nature and people and between people and people, and the phenomena, in which all of these are generated using food as a medium based on collaboration and research. They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cluding *Cosmos in One Square Meter* (Lab C. 2022) and *Turn and Turn and Turn* (Factory 2, 2021–2022), and in projects like *T for 2* (Wooran Foundation, 2021) as a researcher and planner. Pikant, one of the participants of this project, is a Seoul-based design studio run by Song Min-seon and Choi Jung-won. The studio is active in the industry by using a variety of means such as posters, books, branding, animation, and motion graphics. Just like the German adjective "pikant" which is used for expressing the spicy and tangy flavor of spices, design studio Pikant pursues designs that add style and flavor to projects based on its interest in the ecosystem, culture, and arts.





스몰 바치 스튜디오, 〈서울 로컬리티 레시피〉, 2022, 혼합매체

Small Batch Studio, *Seoul Locality Recipe*, 2022, mixed media

〈서울 로컬리티 레시피〉
지역에서 지역의 맛을 찾는 그 시작은 어렵지 않다. 지역 특산물이나 생산물,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먹고 산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이라면 어떨까. 서울의 음식, 서울의 맛을 생각해볼 때 과연 그런 것이 존재할까? 그보다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감각하는 서울의 맛 속에서 과연 서울다움을 찾는 일은 또 어떨까. 도시를 먹여 살리는 식재료들 또한 거의 서울 밖의 것들이라고 할 때, 서울의 맛은 식재료로부터 온다고 할 수 없다. 소위 로컬 푸드로 이야기하는 음식의 지역성은 특산물이 없는 지역, 서울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서울에는 서울 음식이 없고 서울의 맛 또한 없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서울 음식의 지역성을 찾는 여정은 오히려 흥미로워진다. 맛을 통해 서울의 지역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 비물질, 혹은 무형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식재료는 없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으며 먹고 사는 서울 사람들의 입맛에 배어있는 맛의 기억, 그리고 그것의 기록이 레시피이다. 만약 음식의 로컬리티가 식재료에 있다 해도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경험의 기록이 없다면 반쪽의 기록일 것이다. 레시피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만들고 또 먹어온 사람들의 맛의 기억을 통해 전수된, 가장 정확한 기록이자 지시문이다. 그리고 그 레시피 속에는 각자의 삶 속에서 쌓인 식경험들이 이야기하는 시대와 지역,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정체성까지 담겨있을 것이다. 출신 지역 혹은 부모님의 지역성에서 물려받은 음식들, 잠시 머물렀던 장소들에 얽혀있는 기억의 음식에 이르기까지, 서울에 사는 우리 각자의 맛의 미시사가 녹아있는 레시피들 속에서 우리는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로컬리티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서울 로컬리티 레시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지역성이 담긴 내 입맛의 레시피를

〈Seoul Locality Recipe〉
Finding local flavors in the area is not a difficult start because it can start with local specialties, products, and the stories of people who have lived in the area for a long time. But what if it's Seoul? Considering the food of Seoul and the taste of Seoul, does such a thing really exist? More than that, how about finding Seoulness in the taste of the Seoul that we live in today? The ingredients that feed the city are also almost all outside of Seoul, so the taste of Seoul cannot come from the ingredients. The locality of food, the so-called local food, does not exist in Seoul, a region without special products. In that sense, there is no Seoul food in Seoul, and there is no taste of Seoul. But that's where the journey to find the locality of Seoul's food becomes rather interesting. This is because the only traces of Seoul's locality through taste become immaterial and intangible. Although there may not be the ingredients in Seoul, it is a recipe that is a record of the taste and memories that are ingrained in the taste of Seoul people who live in various ways in relationships. Even if the locality of the food is in the ingredients, it is a half-record if there is no record of the experience of people who remember the taste. The recipe itself is perhaps the most accurate record and directive passed down through the taste memories of people who have made and eaten it over and over in the time that has passed. And in the recipe, the food experiences accumulated in each person's life will contain the times, regions, ways of life, values, and identities that are talked about. From where we came from to the food we inherited from our parents' locality, to the foods of memories intertwined with the places we stayed for a while, we may find clues about the locality of the megalopolis of Seoul in the recipes that incorporate the microhistory of each of our tastes in Seoul. Through an online platform, Seoul Locality Recipes allows people living in Seoul to directly share and participate in real-time by leaving a recipe for their taste with the locality, and directly find recipes accumulated by region on the map.

남겨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공유하며, 지도 위에 지역별로 쌓이는 레시피들을 직접 찾아보는 프로젝트이다.

실험실 C

실험실 C는 숲 큐레이터 박미라와 아트 디렉터 창파의 협업으로 '식물', '지역', '예술'을 주요 키워드 삼아 활동하고 있다. 부산의 산과 바다의 한 조각을 오랜 시간 공들여 바라보고 장소에서의 경험을 기획한다. 수정산 일대에서의 《소요의 시간》(2019, 2020), 영도에서의 《부유의 시간》(2021), 다대포에서의 《1제곱미터의 우주》(2022)까지 경험을 기획하는 큐레토리얼 프로그램을 선보여왔다. 이번 전시에는 사운드 설치미술가인 정만영, 설치미술가인 김덕희, 공연을 만드는 이재은, 펜드로잉을 하는 김진주가 함께 참여하였다.

❶ 실험실 C, 델타 스페이스, 2022, 영상, 뷰마스터, 릴, 나무, 상자 외 혼합재료, 가변크기 - 영상 : 미디토리협동조합 / 디자인 : 김은영(항구도시) / 제작 지원 : 김덕희, 김민경, 김종원, 지능디자인 / 자료 지원 : 백소현, 이상정

a. 실험실 C, 〈Lab C 케이스〉, 2022, 리서치 도구와 문서가 있는 설치, 가변크기

b. 실험실 C, 〈매듭 숲〉, 2022, 실, 나무, 3000×1500×30mm(1개), 3000×1000×30mm(2개), 3000×500×30mm(2개), 3000×800×30mm(1개)

c. 실험실 C, 〈델타 개념도〉, 2022, 실, 아크릴, 라이트박스 외 혼합재료, 800×1100×450mm

d. 실험실 C, 〈구술지도〉, 2022, 천에 디지털 인쇄, 3000x 2400mm

e. 실험실 C, 〈VM: 2019~2022〉, 2022, 뷰마스터 2개, 릴마운트 12개, 각 120x 120×80mm

f. 실험실 C, 〈메이킹 영상〉, 2022, 싱글 채널 영상, 20분

❷-a. 김덕희, 〈기억하는 바다〉, 2022, 암석, 해수, 텍스트북, 가변크기 - 사운드 : 정만영

❷-b. 김덕희, 〈바다의 아이들〉, 2021, 퍼포먼스(퍼포머: 홍승이)

❸-a. 김진주, 〈구봉산 그리고〉, 2019, 드로잉북, 200×150mm

❸-b. 김진주, 〈수정산 그리고〉, 2020, 드로잉 아코디언북, 200×150mm

❸-c. 김진주, 〈절영 그리고〉, 2021, 검은 종이에 은색 컬러 인쇄, 드로잉 아코디언북, 200×150mm

❹ 정만영, 〈촉각적 소리〉, 2020, 나무, 모터, 경석고 외 혼합재료, 900×900×820mm

❺ 이재은, 〈서식지 #1, #2, #3, #4〉, 2021, 2채널 영상, 각 1분 1초 / 1분 14초 / 3분 / 1분 48초

Lab C

Lab C is a collaboration between forest curator Park Mi-ra and art director Changpa who work using three keywords: plants, region, and arts. They carefully gaze into a piece of the mountains and seas of Busan to plan experiences in those places. They have unveiled curatorial programs of planning experiences with *Time to Ramble* (2019 and 2020) at the Sujeongsan Mountain area, *Time to Ramble: the Sea* (2021) in Yeongdo-gu, Busan, and *Cosmos in One Square Meter* (2022) at Dadaepo. In this exhibition, sound installation artist Manyoung JUNG, installation artist Doki KIM, performance maker Jeun LEE, and pen drawing artist Jinjoo KIM joined the project.

❶ Lab C, *Delta Space*, 2022, making film, view master, reels, wood, box,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 Video : Meditory / Design : Eunyoung Kim(die hafencity) / Production Support : Doki KIM, Minkyoung GIM, Jongwon KIM, Intelligence Design / Research Support : Sohyun BAEK, Sangjeong LEE

a. Lab C, *Lab C case*, 2022, installation of researched tools and documents, dimension variable

b. Lab C, *knotty wood*, 2022, thread, wood, 3000×1500×30mm(1ea), 3000×1000x 30mm(2ea), 3000×500×30mm(2ea), 3000×800×30mm(1ea)

c. Lab C, *delta diagram*, 2022, acrylic panel, light box, mixed media, 800×1100×450mm

d. Lab C, *oral boundary*, 2022, digital printing on fabric, 3000×2400mm

e. Lab C, *VM: 2019~2022*, 2022, view master 2ea, reel mount 12ea, 120×120×80mm

f. Lab C, *making film*, single channel video, 20minutes

❷-a. Doki KIM, *From The Sea*, 2022, stone, sea water, text book, dimension variable - Sound : Manyoung JUNG

❷-b. Doki KIM, *Children Of The Sea*, 2021, performance(performer: Seungyi Hong)

❸-a. Jinjoo KIM, *Drawing Mt.Gubong*, 2019, drawing accordion book, 200×150mm

❸-b. Jinjoo KIM, *Drawing Mt.Sujeong*, 2020, drawing accordion book, 200×150mm

❸-c. Jinjoo KIM, *Drawing Jeoryeong*, 2021, print on black papers, drawing accordion book, 200×150mm

❹ Manyoung JUNG, *Tactile Sounds*, 2020, wood, motor, plaster, mixed media, 900×900×820mm

❺ Jeun LEE, *Sea hare Practice #1, #2, #3, #4*, 2021, 2 channel video, 1min 1sec / 1min 14sec / 3min / 1min 48sec each





❶-d



❶-a



❶-e



❶-b



❷-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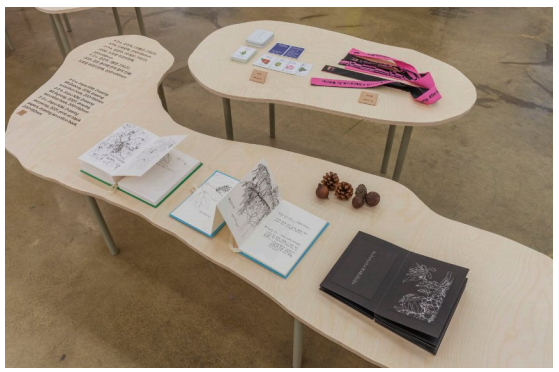
❶-c



❺



❹



❸

❶ 〈델타 스페이스〉
다대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낙동강이 도달하는 끄트머리이다. 강물은 먼 곳에서 오랫동안 지니고 온 다양한 것을 바다 앞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강물과 바닷물이 어우러지는 곳에 나타나는 삼각주, 즉 델타는 하천에 의해 운반된 모래와 자갈이 쌓여 만들어진 지형으로 지금도 늘어나고 자라나는 땅이다. 물리학에서 델타는 기호이다. 정지된 것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시간, 거리, 속도, 자속 등이 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 공간의 역사, 개인의 서사, 자연의 순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부유하던 것의 유속이 달라지고, 어느 순간 정지하며, 그렇게 정지한 것들이 모이고 축적하면서 다양한 요소로 연결되는 장소가 바로 〈델타 스페이스〉이다. 근대도시로 성장한 부산에서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걸으며 관찰하는 리서치는 우리에게 부산의 다양한 지역성과 장소성을 보여주었다. 민둥산에서 푸른 숲이 되고 숲이 마을이 되는 과정이나, 주민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이 도시의 개인의 서사와 식물의 생활사가 중첩되어 있다. 부산의 구봉산, 수정산, 절영로, 몰운대의 리서치는 이번 작업에서 재배치되고 새롭게 배열될 것이다. 델타 스페이스는 부산이자 부산 밖에서 축적된 공간이고, 서울 바깥이자 서울 안에 자라난 땅이다. 저 먼 곳에서부터 흘러와 우리 앞에서 어우러지고 멈춘 이야기들의 땅이다.

❶-a 〈Lab C 케이스〉
리서치 과정은 하나의 공간을 지역, 식물과 동물의 식생, 여러 개인의 이야기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곳은 모든 것들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❶-b 〈매듭 숲〉
수정산 굴참나무 숲에는 사람 가슴 정도의 높이마다 얼굴처럼 동그란 상처가 나 있다.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온 궁핍한 사람들은 도토리라도 많이 얻기를 바라며 돌을 들어 나무를 찍었다. 굴참나무의 상처는 인간과 비인간적

❶ 〈Delta Space〉
Dadaepo is the tip of the Nakdong River, the longest and largest river in Korea. The river lays down before the sea various things that have long been carried from afar. The delta, which appears where the river and sea merge, is a terrain created by the accumulation of sand and gravel carried by rivers, and is still growing and growing. In physics, the delta is a symbol. It refers to a state in which time, distance, speed, magnetic flux, etc., change as a stationary object starts to move. In the flow of the history of a space, the narrative of the individual, and the cycle of nature, the flow rate of the floating things changes, and at some point it stops. *Delta Space* is the place where such stationary things gather and accumulate and connect to various elements. In Busan, a city which has grown into a modern metropolis, the research that we observe while walking along the boundary between the city and nature showed us the diverse localities and the sense of place of Busan. In the process of becoming a green forest from a bare mountain and from a forest into a village, and the stories told by the residents, the personal narrative of the city and the life history of plants overlapped. The research on Gubong Mountain, Sujeong Mountain, Jeolyeong-ro and Molundae in Busan will be realigned and arranged in this work. Delta Space is a space accumulated outside of Busan while still being Busan, and it is a land that grew up in Seoul while being outside of Seoul. It is a land of stories that flow from far away and merged and stopped before us.

❶-a 〈Lab C case〉
The process of research allows us to look at a single space through its localities, plant and animal vegetation, and multiple individual stories and perspectives. This represents the starting point for everything.

❶-b 〈knotty wood〉
In the forest of oriental oaks on Sujeong Mountain, there are round scars on the trees, like a face at every level of a person's chest. The impoverished people who fled to Busan

존재가 관계한 하나의 매듭이자 결정을 의미한다.

❶-c 〈델타 개념도〉
델타 개념도는 델타 스페이스의 개념도이다. 델타 스페이스는 실험실 C가 그 동안 리서치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관계 맺는 장소와 식물, 그리고 사람의 중첩된 지점을 찾고 이들의 흔적을 현장에서 기록해 온 그간의 활동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서사이면서 부산이라는 도시의 어느 시대의 정체성이자 장소성이 된다. 개념도가 아우르는 이야기는 실험실 C가 진행해 온 〈소요의 시간〉, 〈부유의 시간〉, 『절영로 식물오감』, 〈1제곱미터의 우주〉라는 프로젝트에서 발굴하고 축적한 부산의 생활사, 식물 문화사, 구술사 중에서 선별한 것이다. 이들의 재편집 과정을 통해 로컬 내부에서 획득하는 장소의 서사가 로컬 바깥에서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고 동시대 공통의 감각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하고자 한다.

❶-d 〈구술지도〉
이 지도는 벽면에서 바닥으로 연결되는 낙동강 하구에 자리한 삼각주인 김해, 명지, 을숙도, 맹금머리등, 백합등, 도요등, 대마등, 신자도, 장자도, 진우도를 모티브로 한다. 이들은 약 8만 년 전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지형을 드러냈으며, 현재도 자라는 곳이다. 한때 사람이 거주했고, 소금배가 지나는 길목이었으며, 철새도래지로 생태보호구역이 되었으나 행정상 서로 다른 지역의 지번으로 관리되는 공간이다. 이곳의 지형 위에 초량, 수정, 영도, 다대포에서 리서치하며 수집된 이야기를 옮겨 놓고자 한다. 그리고 삼각주를 구성하는 섬과 등마다 수정산의 물길과 굴참나무, 절영도의 해녀, 해안의 기복 등 수집된 아카이브와 협업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during the Korean War picked up stones and struck the trees hoping their acorns would be opened. The wound of the oriental oaks means a knot and a decision in which human and non-human beings are related.

❶-c 〈delta diagram〉
Delta diagram is a conceptual diagram of delta space. Delta Space is a schematic diagram of the activities that Lab C has been doing while researching, finding the overlapping points of places, plants, and people that are connected and related to each other, and recording the traces of the past on the site. And this becomes both an individual narrative and an identity and a sense of place of a certain era in the city of Busan. The story encompassed by the conceptual map is selected from the life history, plant cultural history, and oral history of Busan discovered and accumulated by the project carried out by Lab C, and questions how the narrative of a place acquired inside the local through the process of re-editing can form new relationships outside the local and become a common sense of the contemporary.

❶-d 〈oral boundary〉
The motif of this map is a delta of Gimhae, Myeongji, Eulsukdo, Maenggeummeorideung, Baekapdeung, Doyodeung, Daemadeung, Shinjado, Jangjado, Jinwoodo, located at the mouth of the Nakdong River, which connects from the cliff to the bottom. The islands and sand bars of the delta began to form about 80,000 years ago, revealing the topography of the islands and sand bars over a long period of time, and they are still growing. It was once inhabited by people, a path for salt boats, and became an ecologically protected area as a habitat for migratory birds, but a space managed by different local areas administratively. On the terrain here, the stories collected through research in Chorayng, Sujeong, Yeongdo and Dadaepo will be transferred. In each of the islands and sand bars that make up the delta, collected archives and works by collaborators, such as the waterways of Sujeong Mountain and

❷-a 〈기억하는 바다〉
수천만 년 지층의 역사에 둘러싸인 몰운대 바다와 자갈과 바위, 그리고 식물들 사이에 인간이 있었다. 바다를 한없이 바라보다 때로는 잠이 들고, 물장구를 치다가 돌을 던지기도 하는, 이러한 인간의 몸짓을 작가는 엄마의 품에서 한껏 호기로워지는 어린아이처럼, 혹은 그리운 무언가를 향한 애절한 몸짓으로 느꼈다. 작업은 이러한 몸짓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한 안내서이다. 바다에서 인간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여정을 추적하며 잃어버린 근원의 감각을 찾아 탐색하듯 읽고 상상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한다.

❸-a, b 〈구봉산 그리고〉, 〈수정산 그리고〉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며 충실히 살아갈 뿐인데, 식물의 생존방식은 다른 생물에 득이 된다. 이는 곧 자연의 질서이자 법칙이다. 이 작품에서는 식물과 작은 동물들의 모습, 그리고 그 생활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다. 〈구봉산 그리고〉, 〈수정산 그리고〉는 구봉산과 수정산을 관찰하는 동안 알게 되었던 사전적이고 방대한 설명보다 직접 보았던 숲의 식물과 곤충을 묘사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 자연과 자연의 관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담아낸다.

❸-c 〈절영 그리고〉
지구상에 모든 생물이 다 그렇겠지만, 해양 생물 역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식물과 동물들은 척박한 땅 위에서 모진 환경을 견뎌내며 살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같은 지역이 전혀 다른 곳으로, 이를테면 바다가 되었다가 물이 되는 환경으로 변하는 곳에서 적응해 살고 있다. 사람의 인생만큼이나 어쩌면 그들이 더욱 치열하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절영 그리고〉를 위해 리서치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과 저의 발걸음을 연결시켜, 낯설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oriental oaks, the green-banded swallowtail of Democracy Park, the woman divers called 'haenyeo' of Jeolyeongdo, and the undulations of the coast, are installed.

❷-a 〈From The Sea〉
There has been human between sea, gravel, rocks and plants of Molundae that are surrounded by millions of years of stratospheric history. Sometimes falling asleep while endlessly looking at the sea, and sometimes throwing stones while playing in the water, these human gestures were felt by the artist as a child's gallantness in her mother's arms, or as a mournful gesture towards something longed-for. The work is a guide to finding the meaning of these gestures. Tracing the journey of life from the sea to humans and looking forward to reading, imagining and experiencing as if searching for the sense of the lost source.

❸-a, b 〈Drawing Mt.Gubong〉, 〈Drawing Mt.Sujeong〉
All beings lives faithfully, doing their part in their place, but the plants have their own way of survival that benefits other creatures. This is the order and law of nature. In this work, the appearance and life of plants and small animals were rendered in an easy-to-understand manner. In *Drawing Mt.Gubong* and *Drawing Mt.Sujeong*, the artist portrays the plants and insects she saw directly in the forest rather than using the dictionary and extensive description, telling the st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nature, and nature and nature.

❸-c 〈Drawing Jeoryeong〉
Like all living things on earth, marine life does not live alone, but in close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that surrounds it. Plants lived on the barren land, tolerating the harsh environment, and there were plants and animals living in a place where the same area changes into a completely different area several times a day, like the environment that turns into water from the sea. They might live as fiercely as people's lives. The process of finding

하지만 모두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 매력적인 친구들을 이번 작업에 고스란히 담았다.

❹ 〈촉각적 소리〉
수정산 등산로를 따라 답사하는 길을 맨발로 걸어보았다. 발바닥에 느껴지는 수정산의 질감 차이는 자연스럽게 소리의 파형을 연상시켰고, 질감을 소리로 연결하면서 마치 몸이 레코드판에 올려진 바늘이 되어,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수정산의 여러 질감의 길과 골을 따라 돌아다닌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정산의 여러 소리와 그 질감을 맨발바닥으로부터 듣고 다녔다. 촉각적 소리에서 소리는 생명의 '보이지 않는 나이테'이다. 수정산 곳곳의 질감을 채집하고 회전판 위에 올려 소리로 변환하여 그 시간의 나이테를 함께 들어보고자 한다.

❺ 〈서식지〉
작은 식물을 볼록렌즈 종류인 루페로 바라보다 고개를 잠시 돌렸더니 탁 트인 너른 바다와 정박되어 있는 거대한 배들이 눈앞에 나타났고, 그 극대화된 원근감의 경험과 이미지의 대비가 절영로에서 느낀 가장 강렬한 감각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으로 인해 장소, 위치, 영역의 의미로 서식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부유했다. 비디오 작업인 〈서식지〉는 얕은 물 속에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바다달팽이인 군소의 감각 활동과 움직임에 영감을 받았다. 자연의 소리와 움직임, 고유한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대비를 이루는 듯하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문 존재들과의 공존과 순환을 담았다. 산책하는 시간 순서에 따른 네 가지 안무 영상이 다양한 원근감으로 부산 영도 절영로의 특정 공간에 대한 시청각 경험을 이끌어낸다.

a research location for *Drawing Jeoryeong* was anything but smooth. Therefore, in this work, the charming friends who may seem unfamiliar and strange, but fulfilling their roles were properly captured by connecting their lives and one's steps.

❹ 〈Tactile Sounds〉
The artist walked barefoot along the Sujeong Mountain hiking trail. The difference in the texture of the Sujeong Mountain on the soles of the feet was naturally reminiscent of a sound waveform, and by connecting the textures with sound, he came to think that the body became a needle on a vinyl record, moving along the various textured paths that people had made in advance. He listened to the various sounds and textures of Sujeong Mountain from the bottom of his bare feet. In Tactile Sounds, sound is the 'invisible tree ring' of life. He tried to collect textures from all over the Sujeong Mountain and placed them on a rotating disc to convert them into sound, and to listen to the tree rings of that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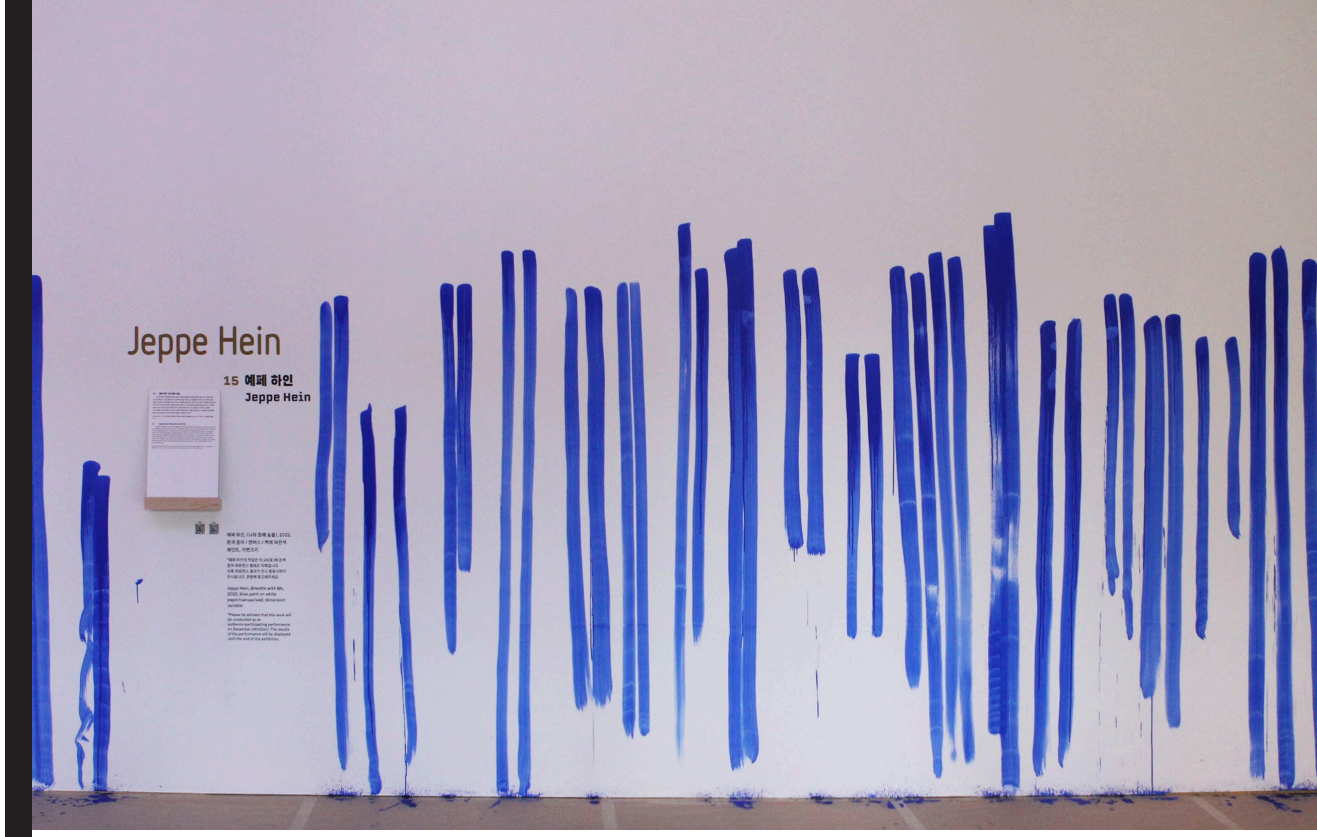
❺ 〈Sea hare Practice〉
Looking at the small plant with a convex lens called a loupe, the artist only turned her head for a moment and saw the wide open sea and the huge ships anchored. The contrast between the experience and the image of the maximized perspective was the most intense moment for her in Jeolyeong-ro. And because of that moment, the word habitat floated in her mind in the sense of each place, location, and territory. The video work *Sea hare Practice* was inspired by the sensory activities and movements of sea hare/marine snails that exist organically in shallow water. It contains the sounds, movements of nature and a coexistence and circulation with the beings who seem to be in contrast but have stayed where they should. The four choreography videos, ordered according to time propose an audiovisual experience of a specific space in Jeolyeong-ro, Yeongdo, Busan, with various perspectives.

예페 하인

Jeppe Hein

예페 하인은 1974년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덴마크 아티스트이다. 코펜하겐에 있는 덴마크 왕립 미술학교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있는 고등 예술학교에서 수학했다. 예페 하인은 미술과 건축, 그리고 기술적 창작물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경험적이고 인터렉티브한 작업을 해왔다. 독특한 형식적 단순성과 종종 유머러스한 특징을 보이는 그의 작업은 1970년대의 미니멀리스트 조각 및 개념 미술과 접점을 지닌다. 그리고 관객을 이벤트의 중심에 두고 주변 공간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지각에 초점을 맞추는 작업들을 선보인다.

Jeppe Hein born in 1974 in Copenhagen, Denmark, is a Danish artist based in Berlin. He studied at the Royal Danish Academy of Arts in Copenhagen and the Städel State University of Fine Arts at Frankfurt. Jeppe Hein is widely known for his production of experiential and interactive artworks that can be positioned at the junction where art, architecture, and technical inventions intersect. Unique in their formal simplicity and notable for their frequent use of humor, his works engage in a lively dialogue with the traditions of Minimalist sculpture and Conceptual art of the 1970s. Jeppe Hein's works often feature surprising and captivating elements which place spectators at the center of events and focus on their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the surrounding space.





예페하인, 〈나와 함께 숨을〉, 2022, 흰색 종이 / 캔버스 / 벽에 파란색 페인트, 가변크기

Jeppe Hein, *Breathe with Me*, 2022, blue paint on white paper/canvas/wall, dimension variable



〈나와 함께 숨을〉

이 프로젝트는 관객들을 초청해 그들의 '호흡'을 색칠해서 함께 작품을 만들어 내는 글로벌 참여 아트 프로젝트이다. 모든 호흡은 하얀 표면에 색칠된 파란색 선의 형태를 갖게 된다. 참여자들은 숨을 내쉬면서 아래로 길게 붓질을 하여 연속적인 벽화를 만들어낸다. 붓질 한 번이 한 명의 호흡을 의미하지만 각각의 선은 하나의 보편적인 전체의 일부를 이룬다. 모든 참여자들의 채색된 호흡을 하나로 모은 예술 작품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 자각뿐 아니라, 커뮤니티와 사회 그리고 환경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적이면서도 보다 큰 커뮤니티를 표현하는 작품을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각 개인의 참여와 책임을 시각화한다.

〈Breathe with Me〉

Breathe with Me is a global participatory art project that invites audiences to create a work of art together by painting their 'breath'. Every breath takes the form of a painted blue line on a white surface: participants paint as they exhale in long downward brushstrokes, creating a continuous mural. One stroke represents a singular person's breath, yet each line forms part of a universal whole. Gathering together the painted breath of every participant, the artwork visualizes not only our individual awareness of ourselves, but also our communities, societies, and environment. In collectively creating a work that is both deeply personal and representative of a larger community, *Breathe with Me* helps to visualize each individual's participation in and responsibility for the world around them.

오버랩

오버랩은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큐레이터 그룹으로, 독립기획자와 연구자 그리고 창작자와 협업을 통한 창·제작과 지역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2015년에 결성된 오버랩은 김선영, 박유영 큐레이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광주 월산동에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거점으로 한 예비 독립 기획자/연구자 프로그램 'ICC(Independent Curator Collaboration)'와 창작자들에게 협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 'ACX(Artist Collaboration eXchange)'를 운영 중이다. 그 외에도 《월산부르스; 전복된 도시》(월산동 일대, 2020), 《공감본능》(ACC 복합6관, 2021), 《도시직조》(weavinglab.creato rlink.net, 2022) 등 지역성과 역사성을 품고 있는 도시의 공간/주제의 협업형 전시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의 두 작가, 김도경, 서지수와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작가인 준준 몬텔리바노와 조쉬 세라핀이 참여했다.

❶ 오버랩, 〈더 사이클스(순환, 주기) : 사이클 001-006 아카이브〉, 2022

❷ 오버랩, 〈사이클 007〉

❷-a 김도경 × 서지수 × 준준 몬텔리바노 × 조쉬 세라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2022, 영상, 5분 25초, (좌)

❷-b 준준 몬텔리바노 × 조쉬 세라핀 × 김도경 × 서지수, 〈팡루가야원(오디세이/긴 여정)〉, 2022, 영상, 2분 48초, (우)

OverLab.

OverLab. is an independent group of Gwangju-based curators that was organized in 2015. They focus on the creation, production, and local research through collaborative works with independent planners, researchers, and creators. The group, which is operated by Kim Sun-young and Park Yooyoung, has been based in Weolsan-dong, Gwangju since 2017 where it runs the pre-independent planner/researcher program "Independent Curator Collaboration (ICC)" and the program that suggests collaboration to creators, "Artist Collaboration eXchange (ACX)". OverLab. also engaged in collaborative exhibition projects on urban spaces and themes containing locality and history, including *Weolsan Blues, Overturned City* (Weolsan-dong area, 2020), *Empathy Instinct* (Asia Culture Center Creation Space 6, 2021), and *WeavingLab*. (weavinglab.creatorlink.net, 2022). In this exhibition, two Korean artists, Dokyung Kim and Jisoo Seo and Filipino artists, JunJun Montelibano and Joshua Serafin particip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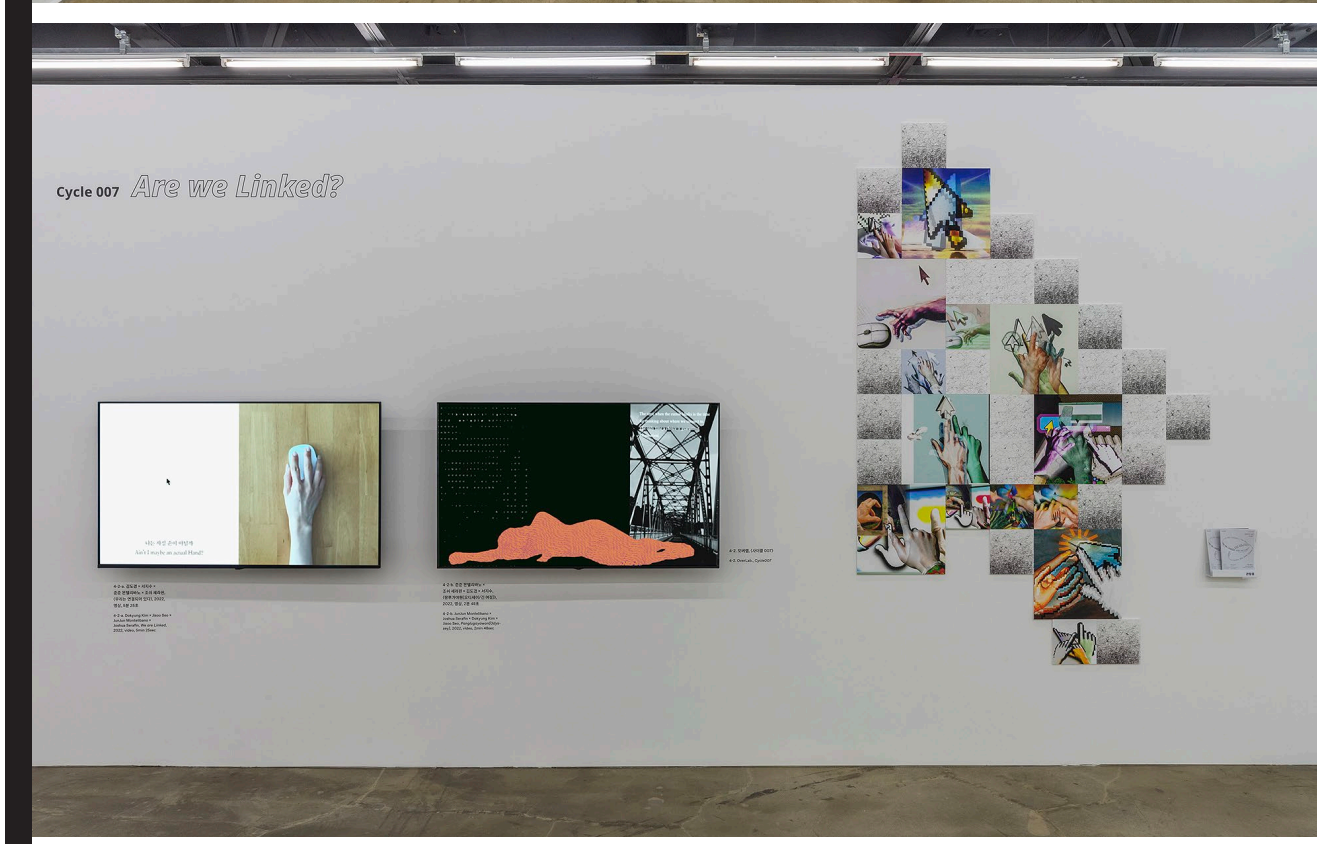
❶ OverLab., *The Cycles : Archive for Cycle001-006*, 2022

❷ OverLab., 〈Cycle007〉

❷-a Dokyung Kim × Jisoo Seo × JunJun Montelibano × Joshua Serafin, *We are Linked*, 2022, video, 5min 25sec, (left)

❷-b JunJun Montelibano x Joshua Serafin × Dokyung Kim × Jisoo Seo, *Panglugayawon(Odyssey)*, 2022, video, 2min 48sec, (right)





❷-a,b


The Cycles
OverLab.
Gwang-ju,
Korea
Iloilo, Bacolod
Philippines
VIVA ExCON
2016
The Cycles
Workshop
레지던시
Residency
Cycle 002 BALANCE
온라인 공동창·제작
Online Collaboration

1


Cycle 007 Are we Linked?
OverLab.

2


The Cycles
OverLab.
Gwang-ju,
Korea
Iloilo, Bacolod
Philippines
VIVA ExCON
2016
The Cycles is a creation and production program in which artists from Gwangju (S. Korea) and Bacolod (Philippines) collaborate.
Since 2016, we have been trying to change the system of collaboration from workshops to residency to online collaboration, and in our exchanges, putting an emphasis on communication and process.
This is a temporary intervention to experiment with various themes and methodologies of artistic creation. It is an artistic accompaniment and practice for individuals and communities beyond exchanges through multi-faceted contacts and encounters based on hospitality and friendship.
Cycle 001
Workshop
Cycle Next

1

❶ 〈더 사이클스(순환,주기) : 사이클 001-006 아카이브〉
순환 혹은 주기라는 뜻의 〈The Cycles〉는 탄생과 죽음을 반복하는 우리의 삶과 환경을 대변하는 의미로 차용되어,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과 소통, 그리고 예술 협업과 레지던시를 통한 교류를 바탕으로 예술가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는 오버랩의 지역 교류 프로그램이자 2016년의 제14회 '비바엑스콘', 즉 필리핀 중부 비사야 제도에서 개최되는 시각예술 비엔날레에서의 국제교류전 《Cycle001》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되는 프로젝트이다. 이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바콜로드의 라살대학 및 오렌지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오버랩의 아티스트 협력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 예술가들이 광주와 바콜로드에서 함께 머물며 공동창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2020년 세계적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향후 국제 예술 교류의 방향과 협업, 나아가 트랜스 로컬 아트 프로젝트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비롯하여 온라인 소통을 통한 비대면 공동창작으로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❷-a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 작품은 사람과 가상 공간의 관계,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준준 몬텔리바노와 조쉬 세라핀 작가가 1차로 협업한 영상작업은 작가의 실제 퍼포먼스가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신자에 의해 몸의 이미지가 인터넷과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번역되어 원래의 질감과 의도를 잃고 몸처럼 움직이는 디지털 이미지로 조작되는 과정을 담았다. 이를 전달받은 김도경, 서지수 작가는 반대로 '디지털 이미지가 질감을 입고 현실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다소 엉뚱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했다. 영상은 한국 작가의 1차 작업에서 빈 공간, 선택할 시간, 자기 몸을 인식할 기회를 주는 요소로 택했던 커서가 주체가 되어 손이 되고자 하는 이야기를 나타낸다.

❶ 〈The Cycles : Archive for Cycle 001-006〉
The Cycles, which means cycle or period, represents our life and environment which repeats birth and death, and is designed to contribute to the empowerment of artists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cultural diversity, communication, and exchange through art collaboration and residency. This is a regional exchange program by OverLab and an ongoing project starting with *Cycle 001* in the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of the 14th VIVA ExCON, Visual Arts Biennale held in the Visayas in the central Philippines in 2016. From 2017 to 2019, it expanded to OverLab.'s Artist Collaborative Residency Program in collaboration with La Salle University and the Orange Project in Bacolod, so artists stayed together in Gwangju and Bacolod to conduct co-creation. In 2020, as they faced the global pandemic situation, they continued their activities without face-to-face contact through online, starting from concerns about the direction of international art exchange and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on.

❷-a 〈We are Linked〉
This work connects the st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virtual space and their identity. This first video work that JunJun Montelibano and Joshua Serafin collaborated on contains the process of translating body images into the Internet and data algorithms by receivers who were delivered the artist's actual performance online, losing the original texture and intention and manipulating it into a digital image that moves like the body. Conversely, the receivers Dokyoung Kim and Jisoo Seo, who received this, start with a rather absurd question: 'Can digital images enter the real world with texture?' The video is a story about the cursor, which was chosen as an empty space, a time to choose, and an element that presents the chance to recognize one's body. It becomes the main body and wants to become a hand in the first work of the Korean artists. In everyday life, the hand has the possibility of choice and decision, and the cursor that moves with the hand also plays the same role as the hand in a virtual space. In the video, the hand and the cursor begin as if they were completely connected, but, as we all know, the cursor is not a hand and can never be the hand itself. Finally, it all ends with a happening that stems from the cursor's misunderstanding.

일상에서 손은 선택과 결정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손이 움직이는 커서 역시, 가상공간 속에서 손과 같은 역할을 해낸다. 영상에서 손과 커서는 완전히 연결된 듯 시작하지만, 커서는 손이 아니며 결코 손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결국 모든 게 커서의 착각에서 비롯한 해프닝으로 끝난다.

❷-b 〈팡루가야원 (오디세이/긴 여정)〉
이 작품은 지역 또는 수신자 간에 데이터 및 정보가 작성되어 연결되는 여정에서 잠시 멈추는 순간을 이야기한다. 김도경, 서지수 작가는 1차 영상작업에서 오늘날 인터넷 환경을 통해 서로 다른 지역 및 공간들이 한계 없이 연결되는 지점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연결이 시작되기 전, 메시지를 작성하기 위해 커서가 깜박이는 공백의 순간과 인공적이며 자연적인 물질성이 교차하는 순간을 보여주며 우리 삶 속 무수한 연결의 가능성을 담았다. 이를 준준 몬텔리바노, 조쉬 세라핀 작가는 사람이 메시지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시간 지연과 공백, 혹은 그 메시지가 가상에 놓일 때의 시점으로 재해석하여 데이터가 전송되는 순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팡루가야원"은 필리핀 비사야제도에서 쓰이는 힐리가이 논어로 장기간의 긴 여정을 뜻한다. 필리핀 작가의 1차 영상에서, 움직이던 작가의 몸은 자신의 생각을 가상의 긴 여정을 떠나기 전 생각하는 인간으로 상징화하여 재해석된다. 그리고 그의 이미지는 그래픽 선과 피부 색조로 뒤덮이며, 몸을 흐르는 지문 무늬는 사람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입력하기 전, 찰나의 순간을 강조하고 있다.

❷-b 〈Panglugayawon(Odyssey)〉
This work tells the story of a moment of pause in the journey at the time when data and information are created and connected between regions or receivers. In the first video work, Dokyoung Kim and Jisoo Seo were interested in the point where different regions and spaces are connected without limits through today's Internet environment. Before the connection begins, the cursor flashes to write a message. It shows the moment of blankness and the intersection of artificial and natural materiality and contains the myriad possibilities of connection in our lives. Artists JunJun Montelibano and Joshua Serafin reinterpret this as the time delay, blank or point in time when the message is placed virtually. It shows what happens when a person writes a message and visually expresses the moment that the data is transmitted. "Panglugayawon" is a Hiligaynon language spoken in the Visayan Islands of the Philippines and means a long journey. In the first video of the Filipino artists, the artist's moving body is symbolized and re-embodied as his thoughts: what a person is thinking before leaving on a long virtual journey. His images are covered in graphic lines and skin tones, and the fingerprint patterns flowing through the body highlight the fleeting moment before a human finger touches the keyboard.

우 말리 × 밤부 커튼 스튜디오

우 말리는 대만의 큐레이터이자 설치 작가이며 사회 참여적 개념 미술가이다. 그리고 사회와 환경, 생태 문제를 다루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기획한 페미니스트 아티스트이기도 하다. 우 말리의 작품은 《후쿠오카 아시안 트리엔날레》(2005), 《타이베이 비엔날레》(2008), 《싱가포르 비엔날레》(2022) 등에 전시되었다. 2016년 대만 국립미술상(Taiwan National Visual Art Award)을 수상했으며 2018년 《타이베이 비엔날레》에 공동 전시기획자로 참여했다. 한편, 1995년에 설립된 밤부 커튼 스튜디오는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 예술 공간 중 하나로, 전 세계 예술인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 대만 최초의 공식 기관이다.

Wu Mali × The Bamboo Curtain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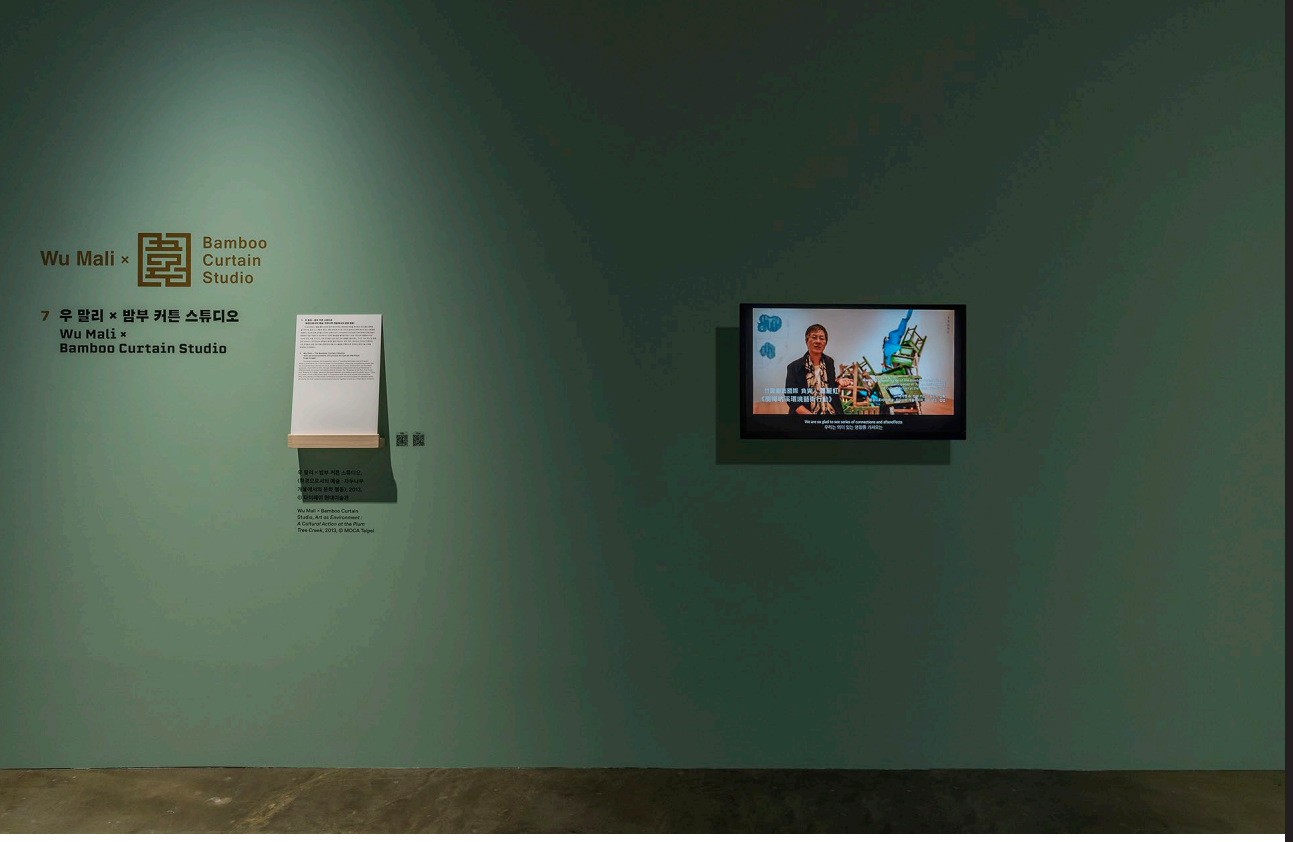
Wu Mali is a Taiwanese curator, installation, and socially engaged and conceptual artist. A committed feminist artist who developed numerous projects dealing with social,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issues. Her works has been exhibited in *Fukuoka Asian Triennale* in 2005, *Taipei Biennale* in 2008, and *Singapore Biennale* in 2022, etc. She was the recipient of Taiwan National Visual Art Award in 2016 and cocurated the *Taipei Biennale 2018*. The Bamboo Curtain Studio, established in 1995,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ultural and art spaces in Taiwan. It was also the first officially registered organization in the country who provided services for creative professionals worldwide.





우 말리 × 밤부 커튼 스튜디오, 〈환경으로서의 예술: 자두나무 개울에서의 문화 행동〉, 2013, ©타이페이 현대미술관

Wu Mali × Bamboo Curtain Studio, *Art as Environment : A Cultural Action at the Plum Tree Creek*, 2013, © MOCA Taipei





〈환경으로서의 예술: 자두나무 개울에서의 문화 행동〉

이 프로젝트는 '물을 통한 손상된 땅의 개선'이라는 창의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물은 생명에 필수적이며, 물은 도시 개발과 끝없는 팽창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모으며 경계 넘기를 시도하는 능력이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휴하여 공동 작업한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행동들을 불러일으켰다. 이 중 '자두나무 개울에서 아침 식사하기'와 '마을 가꾸기'는 지역 주민들과 공공 부문 간의 대화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문 앞에 강이 있어요'는 지역 학교와 대학들이 참여한 협력 작업이다. 밤부 커튼 스튜디오는 2012년 이후부터 지역 주민들과 생태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개울 감시 활동을 진행하도록 격려하는 환경 미술 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

〈Art as Environment : A Cultural Action at the Plum Tree Creek〉

'Art as Environment: A Cultural Action at the Plum Tree Creek' proposes the imaginative vision of "mending the broken land with water." Water is essential to life. It has the ability to cross borders, connecting and gathering people that are concerned about the land we live in, as well as issues of urban development and boundless expansion.

From 2010 to 2012, through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among professionals in different fields, the project has initiated diverse actions. The "Breakfast at the Plum Tree Creek" and "Shaping of a Village" generate dialogue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the public sector. 'There is a Creek in Front of My School Gate' is in cooperation with local schools and universities.

After 2012, Bamboo Curtain Studio continues to promote the environmental art education which stimulates the local residents and ecological experts together to build up a Creek Watch Initiative.

젤리장 × 띵크앤메이크

젤리장 × 띵크앤메이크는 공공캠페인 활동 팀이다.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역의 시민과 함께 주도적 실천 방식으로 고민한다. 공공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절한 그릇(미디어)에 담아내는 운동을 전개한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마을에서 버스정류장 줄서기 '괄호 라인 캠페인', 공원소음 질서 권유 'I want to fall asleep 캠페인' 등 시민 대상 캠페인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했다. 현재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의 캠페인 방법을 제공하고 독려하는 '시민 리빙랩 프로그램'을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제주생활공론', 충남사회혁신센터 '보통의 혁신가' 등에서 전개하고 있다.

Jelly Jang × tnknmke

The two teamed up to engage in public campaigns. They contemplate leading active practices with local residents to solve public issues. They unfold movements to convey the message they want to tell the public using an appropriate vessel (media). They held numerous campaigns targeting citizens, such as the "Parentheses Line Campaign," a campaign of standing in line at bus stations in villages around Seoul, and the "I want to fall asleep campaign" which urges to keep quiet at parks. They are currently working on the Citizen Living Lab program that provides and encourages campaign methods for the little things in life at the Jeju Communication Cooperation Center "Jeju Life Public Opinion" and the Chungnam Social Innovation Center "Everyday Innovator", among others.

젤리장 × 띵크앤메이크, 〈랜덤 이웃〉, 2022, 캠페인, 가변설치

Jelly Jang × tnktmke, *Random Neighbor Project*, 2022, campaign, dimension variable







〈랜덤 이웃〉

우리 주변 이웃은 얼마나 다양한 이웃으로 연결되어 있을까. 랜덤 이웃은 이번 전시에서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이웃을 인지할 수 있는 캠페인 도구를 선보인다. 이곳을 오가는 시민은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이웃'을 알아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그리고 주어진 단어를 무작위로 조합해 새로운 이웃을 발견한다. 참여를 통해 발견하고 완성한 이웃을 다른 관객도 볼 수 있도록 공유한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록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이웃이 모이면서 실제 우리 주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서로 다른 이웃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Random Neighbor Project〉

How are the diverse neighbors in our surroundings connected? In this exhibition, the Random Neighbor project will present a campaign tool that allows citizens to recognize their diverse neighbors. Citizens who come and go here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recognize and think about their 'Diverse Neighbors' through the campaign, or find a new neighbor by randomly combining the words given here. People can also share discovered and completed neighbors through participation so that other audiences can see them. If more citizens participate, unexpected diverse neighbors will come together and create a community that is not much different from what it actually is all around us. This campaign expects that all participants will have time to think about the right direction for a community of different neighbors.

코무니타스 구부악 코피[1]

예술 및 미디어 지식 개발 연구소 '구부악 코피 커뮤니티(Gubuak Kopi Community)'로 더 잘 알려진 구부악 코피는 인도네시아 솔록에 기반을 둔 비영리 문화 단체로 2011년에 설립되었다. 이 그룹은 서부 수마트라의 지역 도시인 솔록에서 예술과 미디어 지식 연구 및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부악 코피는 창의적 활동을 통해 미디어 지식을 생산 및 보급하고, 지역 환경과 문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예술가, 작가, 연구원)와 주민 간의 협업을 조직하며, 대체 미디어 및 아카이브 시스템을 개발하고, 청소년 역량 개발을 위한 공간을 구축했다. 구부악 코피 커뮤니티는 2017년부터 서부 수마트라 전반, 특히 솔록 지역의 농업 공동체에서 발전한 문화를 연구하는 '다우르 수부르(Daur Subur)' 플랫폼을 큰 주제로 삼고 출발했다. '다우르 수부르'는 농업 공동체의 다양한 문화적 사건들로부터 얻은 지식과 그 지속 가능성을 탐구하고, 그들을 제시하여 오늘날의 문제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1) 알버트 라흐만 푸트라, 비아릴 바드리, 비키 와비함디카, 하피잔, 무함마드 리스키, 볼타 아마드 조네바, 제칼버 무하람

Komunitas Gubuak Kopi[1]

Gubuak Kopi, or better known as the Gubuak Kopi Community, a non-profit cultural organization based in Solok, Indonesia, was founded in 2011. This group focuse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rt and media knowledge in the local city of Solok, West Sumatra. Gubuak Kopi produces and distributes media literacy knowledge through creative activities, organizes collaborations between professionals (artists, writers, and researchers) and residents in responding to local environmental and cultural issues, develops alternative media and archiving systems, and builds space for youth capacity development. Since 2017, the Gubuak Kopi Community has initiated a 'Daur Subur' platform as a big theme, a study of the culture that develops in agricultural communities, in Solok in particular and West Sumatra in general. 'Daur Subur' seeks to explore aspects of knowledge from various cultural events of the agricultural community, their sustainability, and package them to understand today's problems.

1) Albert Rahman Putra, Biahlil Badri, Biki Wabihamdika, Hafizan, Muhammad Riski, Volta Ahmad Jonneva, Zekalver Muharam

❶ 코무니타스 구부악 코피, 〈포스 론다 프로젝트〉, 2022, 펜통간(공동경보 시스템으로서 소리를 내는 대나무 튜브), 포스 론다 방 설치, 포스 론다 상징 트로피, 헌장, 커뮤니티 사진, 피켓 일정, 피켓 목록, 달력, 회비 장부, 보안 장비, 손전등, 기도 도구 세트, 농기구, 구급상자, 시계, 도미노, 게임 카드, TV, 도미노 게임 테이블, 6×6m - 공동작업 : RW 06 캄풍 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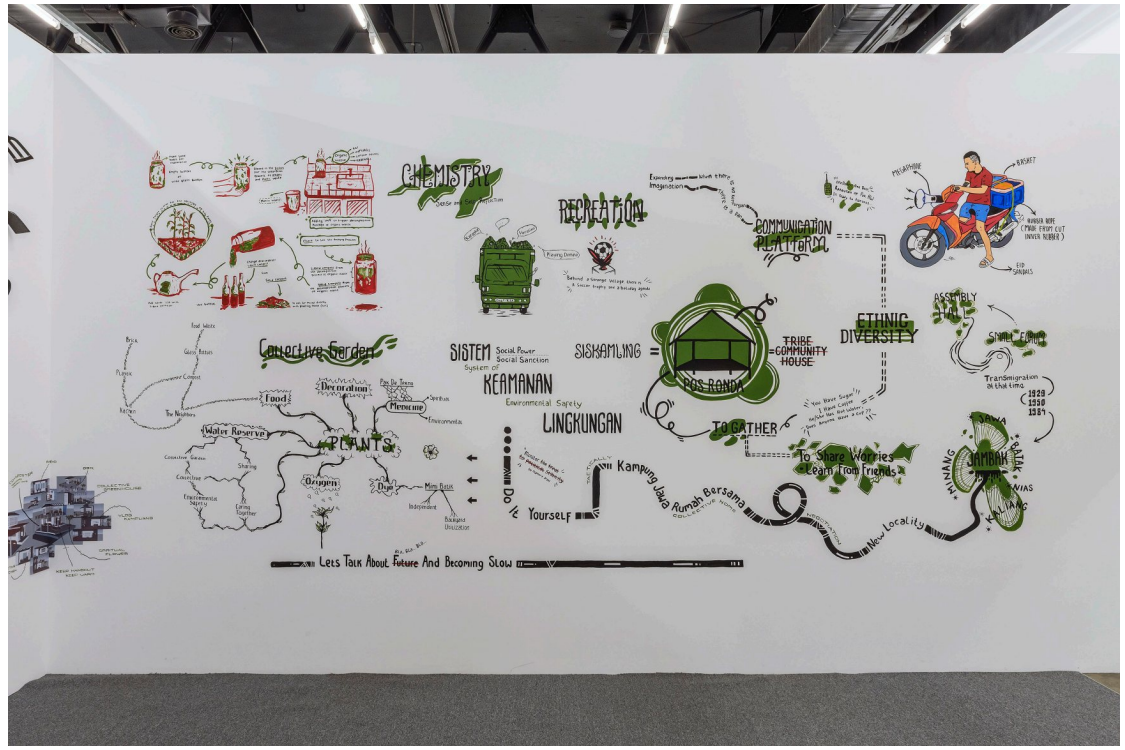
❷ 코무니타스 구부악 코피 × 타우피쿠라만 키푸, 〈실라투라흐미(만남과 인사)〉, 2021, 텍스타일 설치 5장, 1×2m

❶ Komunitas Gubuak Kopi, *The Pos Ronda Project*, 2022, Pentongan (a bamboo tube that produces sound as a communal alarming system), Pos Ronda room installation, Pos Ronda attributes trophy, charter, community photo, picket schedule, picket list, calendar, dues book, security equipment, flashlight, prayer tool set, farming tools, first aid kit, clock, dominoes, game cards, TV, domino game table, 6×6m - Collaborator : RW 06 Kampung Jawa

❷ Komunitas Gubuak Kopi × Taufiqurrahman Kiffu, *Silaturahmi (Meet and Greet)*, 2021, 5 sheet textile installation, 1×2m



❶



❶



1-1. 코무니타스 구부악 코피, 〈포스 론다 프로젝트〉, 2022, 펜통간(공동 경보 시스템으로서 소리를 내는 대나무 튜브), 포스 론다 방 설치, 포스 론다 상징 트로피, 헌장, 커뮤니티 사진, 피켓 일정, 피켓 목록, 달력, 회비 장부, 보안 장비, 손전등, 기도 도구 세트, 농기구, 구급상자, 시계, 도미노, 게임 카드, TV, 도미노 게임 테이블, 6×6m
공동작업 : RW 06 캄퐁 자와

1-2. 코무니타스 구부악 코피 × 타우피쿠라만 키푸, 〈실라투라흐미(만남과 인사)〉, 2021, 텍스타일 설치 3장, 1×2m

1-1. Komunitas Gubuak Kopi, *The Pos Ronda Project*, 2022, Pentongan (a bamboo tube that produces sound as a communal alarming system), Pos Ronda room installation, Pos Ronda attributes trophy, charter, community photo, picket schedule, picket list, calendar, dues book, security equipment, flashlight, prayer tool set, farming tools, first aid kit, clock, dominoes, game cards, TV, domino game table, 6×6m
- Collaborator : RW 06 Kampung Jawa

1-2. Komunitas Gubuak Kopi × Taufiqurrahman Kiftu, *Silaturahmi (Meet and Greet)*, 2021, 3 sheet textile installation, 1×2m

❶



❷



❶

❶ 〈포스 론다 프로젝트〉

〈포스 론다 프로젝트〉는 코무니타스 구부악 코피가 오늘날의 지역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포스 론다라는 공간을 활성화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기록은 지역의 지혜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현대적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시각적으로는 연구 노트를 비롯하여 포스 론다에서의 활동의 결과들을 보여주며, 솔록에서의 포스 론다의 역할, 이를테면 대화, 놀이, 모임을 위한 미팅룸을 재현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에서 본 프로젝트를 재현하는 것이 서울의 공공적 맥락과 연동되기를 바란다. 또 이번 계기로 관객들에게 포스 론다가 다른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도구로 경험되기를 바라며, 그 역할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❷ 〈실라투라흐미(만남과 인사)〉

〈실라투라흐미〉는 캄풍 자와 솔록 시 주민들과의 만남에 대한 일련의 기록이다. 이 천들은 캄풍 자와 지역 환경에서 모임의 전통에 부합하는 사물들의 제스처를 스케치해서 보여준다.

❶ 〈The Pos Ronda Project〉

This presentation presents notes on the process of the Gubuak Kopi Community in activating Pos Ronda as an agenda for addressing local problems today, while remaining aware of local wisdom,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contemporary developments. Visually, this presentation will bring forth findings that are relevant to practices at Pos Ronda, research notes, and simulations of meeting rooms(dialogue, play, and gathering) that allow them to be used according to their function in Solok and in connection with the public context of Seoul, Korea. This presentation is expected to ignite the public to be involved in experiencing Pos Ronda as a form of tools to build social relations with fellow citizens.

❷ 〈Silaturahmi (Meet and Greet)〉

A series of notes on meetings and with the residents of Kampung Jawa Solok. This cloth presents gesture sketches of objects that are identical to the tradition of gathering in the Kampung Jawa environment.

전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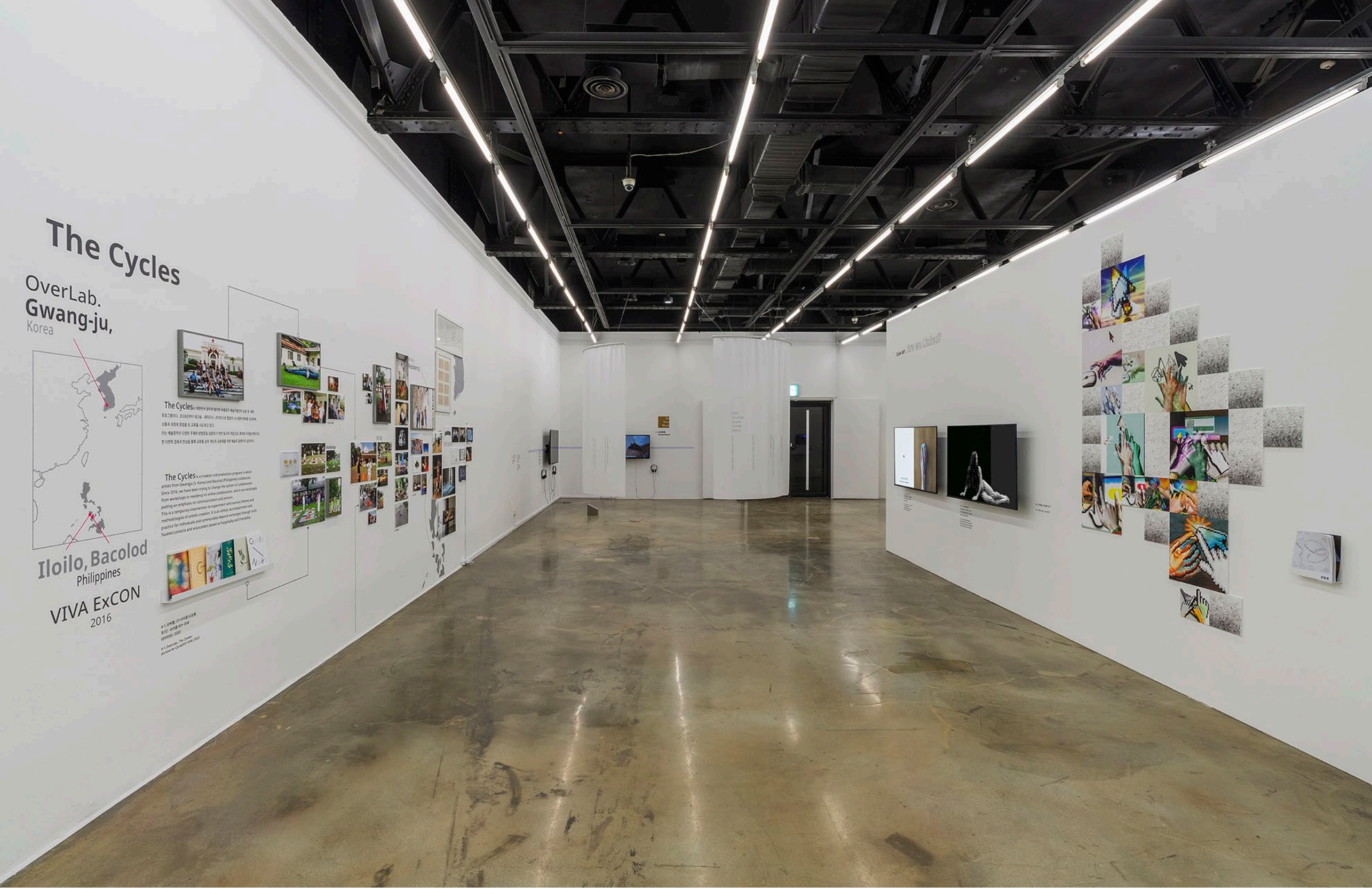
Exhibition Views

전시 기록영상
Exhibition Video


입구 Entrance
LOCAL IN THE MAKING
일시적 개입
아르코미술관 제1, 2 전시실
스페이스 필룩스
ARKO Art Center, Gallery 1, 2
SpaceFeelux
2022.11.18-
2023.1.21
CCTV 설치 / 녹화
목적
미술관 시설 안전,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됩니다.
촬영범위
전시장 및 주요시설물
책임
아르코미술관 02-760-4525
일시적 개입
LOCAL IN THE MAKING
2022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ARKO Art Center Thematic Exhibition
일시적 개입 Local in the Making
2022·11·18 - 2023·1·21


JADWAL RONDA
KODE KENTONGAN
RYTHM
Let's Talk About Future And Becoming Slow
Do It Yourself
Kamping Ibu Rumah Bersama
Local in the Making
Water Reserve
Dragon
Tradisi
Trandisi
Trandisi
Trand


거제 섬도
2 거제 섬도
GEOJE SUMDO
1F
IN


The Cycles
OverLab.
Gwang-ju,
Korea
Iloilo, Bacolod
Philippines
VIVA ExCON
2016
The Cycles
The Cycles is a creation and production program in which
artists from Gwangju (S. Korea) and Bacolod (Philippines) collaborate.
Since 2014, we have been trying to change the system of collaboration
from workshops to residency to online collaboration, and in our exchange,
putting an emphasis on communication and process.
This is a temporary intervention to experiment with various themes and
methodologies of artistic creation. It is an artistic accompaniment and
practice for individuals and communities beyond exchanges through multi-
faceted contacts and encounters based on hospitality and friendship.


왜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대하는 존재들도
없고
And there's nothing that
treats me or anyone else
differently



10-5 권은비, 〈불안〉, 2015, 잉크젯 프린트, 594×841mm

10-5. Eunbi Kwon, *Angst*, 2015, inkjet print, 594×841mm

12 리딩룸
Reading Room


Jeppe Hein
참여하는 방법
How to participate
서울 로컬리티 레시피
SEOUL
Locality
Recipe
서울에는 서울 사람이 없고,
서울에는 서울 음식도 없다.
하지만 서울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맛, 그 맛의 기억의 기록인 레시피라면 어떨까? 레시피 속에는 각자의 삶 속에서 쌓인 식경험들이 이야기하는 시대와 지역, 삶의 방식과 가치관, 정체성까지 담겨있을 것이다.
출신 지역에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안의 식문화, 잠시 머물렀던 장소들에 얽혀 있는 기억의 음식들에 이르기까지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맛의 미시사 속에 녹아있는 단서들을 통해 우리는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의 로컬리티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다.
There are no Seoulites in Seoul
and there are no Seoul foods in Seoul.
But what about recipes that are the tastes of various people living together in Seoul, which are also records of the memories of those tastes? Recipes contain aspects of generation, locality, lifestyle, value, and even identity through food experiences accumulated in each person's life.
Through the clues melted in each of our microhistory of tastes living in Seoul from the family food culture inherited from hometowns and from parents, and even foods of memories intertwined with areas that we stayed in temporarily, we may be able to find hints about locality in the massive metropolis of Seoul.
pikant


Cycle 007 Are we Linked?
OverLab




혼자 산 지 18년쯤 됐고요.
I've lived alone for about 18 years.
그리고 활동한 지도 그 정도 됐습니다.
That's how long I've been an activist.
장애 여성 단체에서 장애여성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자립 생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I engaged in the human rights movement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t first, and now I'm doing Independent Living mov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전시 연계 프로그램

Exhibition Related Programs

연계 프로그램 영상
Related Programs Video

다이애나랩 〈지도에 없는 이름〉 연계 퍼포먼스 “이 문장은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장소 아르코미술관 제2전시실
출연 김상희, 보라, 성수연
함께 만드는 사람들
109(김지영), 성수연, 오하나, 우에타 지로, 유선, 이야기, 조세영, 진해정
일시 2023. 1. 6(금) 14:00-16:00

다이애나랩은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는 표현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그룹으로, 미디어아트 · 사운드아트 · 텍스타일 · 사진 · 영상 등 개인 작업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콜렉티브다. 〈지도에 없는 이름〉 연계 퍼포먼스 “이 문장은 빨간색으로 썼습니다”는 언어가 아닌 다른 감각으로 무언가를 읽고 전달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보이지 않고 읽을 수 없는 지도를 세 명의 퍼포머와 세 명의 속기사, 세 명의 수어통역사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읽고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 퍼포먼스는 소수자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리어컨셔스(barrier-conscious)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릴랙스드(relaxed) 퍼포먼스로, 수어통역, 문자통역, 음성해설이 있으며 휠체어와 유아차 입장이 가능하다. 관람객은 퍼포먼스를 자유롭게 관람하며, 지도 아닌 지도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놓을지 경험한다.

dianalab 〈Nameless on the Map〉 Related Performance “This Sentence Was Written In Red”

Venue Arko Art Center Gallery 2
Cast Sanghee Kim, Bora, Seong Soo Yeon
Participated People 109(Kim Jiyeong), Seong Soo Yeon, Oh Hana, Ueta Jiro, Yousun, Yiyagi, Jo Seyoung, Jin Hae-jeong
Date Jan 6(Fri) 2023, 2PM-4PM

Dianalab is a collective created by various people who work individually in media art, sound art, textiles, photography and video, that studies and practices expressions sharing with social minorities. “This sentence is written in red,” which is the performance linked to 〈Nameless on the Map〉, contains concerns about reading and delivering something with a sense other than language. Three performers, three stenographers, and three sign language interpreters read and interpret the map that is invisible and unreadable in different ways. In addition, this performance is a relaxed performance that is conducted in a barrier-conscious manner for minority audience to participate, which include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text interpretation, and audio commentary, and wheelchairs and strollers are available. The audience can freely watch the performance and experience where an unreadable map will lead us.





스몰 바치 스튜디오
‘서울 로컬리티 레시피 워크숍’

장소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필룩스
일시 [1회차] 2022. 12. 7(수) 13:00-14:00
[2회차] 2023. 1. 7(금) 12:00, 13:00, 14:00, 15:00

스몰 바치 스튜디오는 음식을 통해 발생하는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현상들에 주목한다. 〈서울 로컬리티 레시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객들이 직접 지역성이 담긴 레시피를 글과 손그림으로 남겨 공유하는 프로젝트로, 음식을 만들고 먹어온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 전수된 가장 정확한 레시피를 기록한다. 출신 지역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뿌리를 둔 조리법과 잠시 머물렀던 장소의 기억 속 음식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으며 먹고 사는 서울 사람들 각각의 맛의 기억에서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로컬리티를 살펴본다.

특히 베트남, 카자흐스탄, 중국, 홍콩, 일본 등에서 서울로 이주해온 하나다문화센터 다린의 가족분들과 함께 각자 공유하고 싶은 로컬리티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모국을 떠나 새롭게 집이 된 서울에서 떠올리는 추억의 음식, 재료, 맛과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경험에 대한 소중한 기억과 감정들을 〈서울 로컬리티 레시피〉에 남긴다.

Small Batch Studio
‘Seoul Locality Recipe Workshop’

Venue SpaceFeelux, ARKO Art Center
Date [1st] Dec 7(Wed) 2022, 1PM-2PM
[2nd] Jan 7(Fri) 2023, 12PM, 1PM, 2PM, 3PM

Small Batch Studio focuses on relationships and phenomena between nature and people and between people and people caused by food. 〈Seoul Locality Recipe〉 is a project in which the audience shares recipes containing locality in writing and drawing through an online platform, recording the most accurate recipes that were handed down through the memories of people who have made and eaten their own food. Seoul’s locality can only be found in the memories of each taste of Seoulites who make relationships in various ways, from recipes rooted from their parents to food in memories of places where they stopped over.

In particular, members of Hana Multicultural Center Darin, who moved to Seoul from various countries such as Vietnam, Kazakhstan, China, Hong Kong, and Japan, share local recipes. Precious memories and feelings about food, ingredients, taste, and the experience of all of these in Seoul, which has become a new home after leaving their home countries, are recorded in 〈Seoul Locality Recipe〉.





실험실 C ‘델타 스페이스 × 김덕희 작가 〈바다의 아이들〉’ 연계 퍼포먼스

장소 아르코미술관 제1전시실
일시 2022. 12. 3(토), 12. 4(일) 14:00, 16:00

기획 김덕희(설치 미술가.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 자연, 생명 등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고 탐구한다.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경의와 경외를 이끌어내는 근원적 힘에 관심이 있다. 그러한 힘을 사유하는 매개로써 열, 중력, 빛과 같은 자연의 비물질적 요소를 사용하여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변화무쌍한 찰나의 순간들을 형상화한다.)

퍼포머 홍승이(극단 밖 배우. 일 밀리미터씩 극장 안과 밖의 경계를 탐색하며 언어로 명명되지 못하거나 될 수 없는 인간과 사회의 절박함에 관심을 두고 감각된 것들을 발산 중이다.)

〈바다의 아이들〉은 부산 절영로 바닷가에서 상연되었던 작품으로, 모노드라마 형식을 빌린 관객참여형 1인극 퍼포먼스이다.



물고기 여인이라 불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 관객들과 퍼포먼스 참여자는 물고기 여인에게서 자신이 태어난 바다와 그곳의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로 변하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로 변하기도 하는 이 이야기는 낯설고 기이하게 들리지만, 바다에서 일어나는 해양 생물들의 실제 이야기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감성돔, 흰동가리는 성전환하는 대표적인 수생 생물이다.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성적 지향성과 성별 정체성은 원시 해양에서 시작하여 생명 진화의 줄기를 이어가는 인간이라는 종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적 다양성은 금기와 차별, 비판의 대상으로 숨기고 감추어야 하는 불치의 병으로 간주된다.

넓고 깊은 절영로 바닷가를 바라보며, 태초의 생명이 탄생한 순간을 상상해 본다. 우리는 결국 모두 바다에서 태어나지 않았는가.
새우도, 굴도, 혹돔도.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다.
그리고 사회 안에 감추어진 모든 그들 또한 바다로부터 태어난 바다의 아이들이다.
(퍼포먼스 기획자 글 중)

Lab C ‘Delta Space × Doki KIM’s ⟨Children of the Sea⟩’ Performance

Venue Arko Art Center Gallery 1
Date Dec 3(Sat), 4(Sun) 2022, 2PM, 4PM

Production Doki Kim (Installation artist who contemplates and explores the essence of the world surrounding us, such as materials and energy, time and space, nature, and life. She is interested in how the world exists and the fundamental power of bringing about respect and awe from people. She uses natural non-material elements like heat, gravity, and light as media for thinking about such power to give shape to the ever-changing moments revealed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materials.)

Performer Seungyi Hong (An actor outside the theater. Exploring the boundaries inside and outside the theater every millimeter to pay attention to the desperation of human and society, which are beyond description, and to release sensory things.)

⟨Children of the Sea⟩ is an audience-participating one-man performance in the form of a monodrama, which was performed on Jeolyeong-ro beach, Busan.

It begins with a person called a fish lady. The audience and performance participants listen to stories about the sea where she was born and the children from there. This story, which is about a boy turning into a girl and a girl turning into a boy, sounds strange and bizarre, but it is a true story of marine life happening in the sea.

Black sea bream and clownfish, which are familiar to us, are representative aquatic organisms that change sex. The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of various creatures in the natural world started in the primitive ocean and are revealed also in the species of human continuing the evolution of life. However, sexual diversity in our society is regarded as an incurable disease that must be concealed and hidden as a target of taboo, discrimination, and criticism.

Looking at the wide and deep Jeolyeong-ro beach, we imagine the moment the primal life goes out into the world.
Aren’t we all born in the sea after all?
Even shrimp, oyster, and Asian sheepshead wrasse.
Even every child and the aged.
And all of them hidden in society are also children of the sea born in the sea.
(In the article of the director)





예페 하인 ‘Breathe with Me’ 글로벌 액츠 프로젝트

장소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필룩스
일시 2022. 12. 24(토) 14:00, 15:30, 17:00

예페 하인은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덴마크 출신 미술 작가로, 관객을 이벤트의 중심에 두고 주변 공간에 대한 그들의 경험과 지각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미술 작업을 주로 선보인다.

예페 하인의 글로벌 액츠 프로젝트 ‘Breathe with Me’는 우리가 같은 공기를 마시며 현재와 미래의 세상을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일깨우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상상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객들은 각자의 ‘호흡’을 색칠하며 함께 작품을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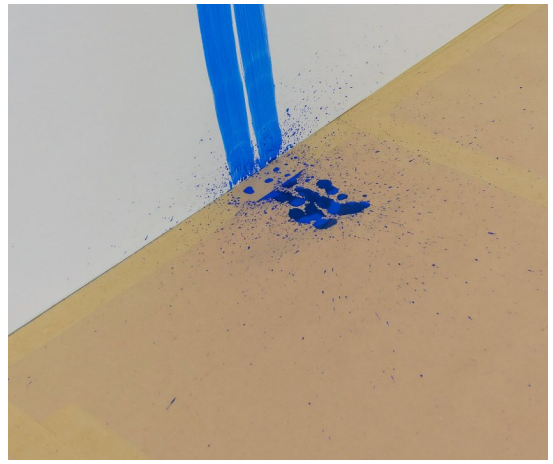
Jeppe Heine ‘Breathe with Me’ Global Acts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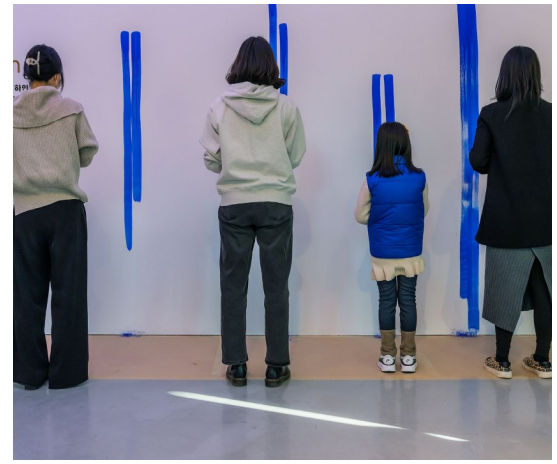
Venue SpaceFeelux, ARKO Art Center
Date Dec 24(Sat) 2022, 2PM, 3:30PM, 5PM

Jeppe Hein is a Danish artist based in Berlin. Jeppe Hein’s works often feature surprising and captivating elements which place spectators at the center of events and focus on their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the surrounding space.

Jeppe Hein’s global acts project ‘Breathe with Me’ is in progress around the world to make us aware of the fact that we breathe the same air, share the present and future worlds, and imagine a sustainable world.

The audience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color each of their ‘breath’ and complete the work together.





젤리장 × 띵크앤메이크 ‘랜덤 이웃 : 누군가를 위한 다정한 태도’ 워크숍

장소 아르코미술관 스페이스필룩스
일시 [1회차] 2022. 12. 9(금) 15:00-15:40
[2회차] 2022. 12. 23(금) 15:00-15:40
[3회차] 2022. 12. 30(금) 15:00-15:40
[4회차] 2023. 1. 4(수) 15:00-15:40
진행 젤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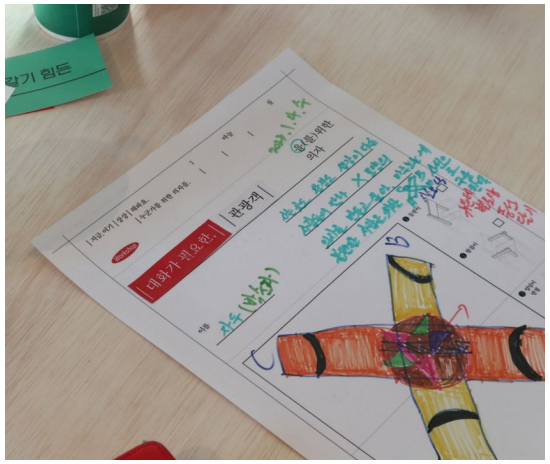
젤리장 × 띵크앤메이크는 공공 캠페인 활동을 이어온 팀으로, 이번 〈랜덤 이웃 : 누군가를위한 다정한 태도 워크숍〉에서는 다양한 이웃을 발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무작위로 뽑은 단어의 조합을 통해 뜻밖의 이웃을 떠올려보고, 다정한 태도로 그 누군가를 위한 의자를 상상하고 그려보는 ‘의자 상상 페이퍼’를 채워본다. 워크숍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두루 살피고 다정한 공동체를 바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

Jelly Jang x tnknmke ‘Random Neighbor : A Caring Attitude For Someone’ Workshop

Venue SpaceFeelux, ARKO Art Center
Date Dec 9(Fri), 23(Fri), 30(Fri) 2022,
Jan 4(Wed) 2023, 15:00-15:40
Directed by
Jelly Jang

Jelly Jang × tnknmke is a team that has carried out public campaign activities, and in this 〈Random Neighborhood: Friendly manner workshop for someone〉, the campaign to find various neighbors is conducted. We think of an unexpected neighbor through a combination of randomly selected words and fill in the ‘chair imagination paper’, which imagines and draws a chair for someone in a friendly manner. We look at people around us through the workshop and share stories hoping for a friendly community.





코무니타스 구부악 코피 ‘포스 론다’ 연계 퍼포먼스 & 게임 워크숍

장소 아르코미술관 제1전시실
일시 2022. 11. 20(일) 14:00-17:00
진행 코무니타스 구부악 코피

코무니타스 구부악 코피는 인도네시아 솔록 시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촌 지역의 전통 문화와 지식을 보존하고 오늘날의 맥락 안에서 재해석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콜렉티브로, 인도네시아의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퍼포먼스와 도미노 게임 워크숍을 진행한다.

도미노 게임의 최종 우승자에게는 솔록 시 커뮤니티 가든에 새롭게 심을 나무의 공동 소유권과 캄풍자와 마을 이장이 서명한 증서가 수여된다. 워크숍을 통해 솔록 시 캄풍 자와의 주민들과 연결되는 기쁨을 느껴보고, ‘나’와 ‘서울’을 대표하여 자라날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해 솔록 시 환경 개선에 동참한다.

Komunitas Gubuak Kopi ‘Pos Ronda’ Related Performance & Game Workshop

Venue Arko Art Center Gallery 1
Date Nov 20 (Sun), 2022, 2PM-5PM
Directed by
Komunitas Gubuak Kopi

Komunitas Gubuak Kopi is a collective that continuously preserves traditional culture and knowledge in rural areas and reinterprets them in today’s context with villagers in Solok, Indonesia, and it hosts performances playing traditional Indonesian instruments and domino game workshops.

The final winner of the domino game is awarded a joint ownership of a tree to be planted in Solok City Community Garden and a certificate signed by the village head of Kampung Jawa. The workshop presents the joy of connecting with the residents of Kampung Jawa, Solok City, and involve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Solok City through a tree that will grow on behalf of ‘I’ and ‘Seoul’.





현대미술학회 2022년 추계 학술대회 “움직이는 경계들”

아르코미술관•현대미술학회 공동 심포지엄

장소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
일시 2022. 11. 19(토) 13:00-18:00

참여 사회 - 윤주한(대구대학교),
조선령(부산대학교)
발제 - 정현주(서울대학교),
문재원(부산대학교), 박소영(영남대학교),
정종은(상지대학교),
김동일(대구 가톨릭대학교),
용해숙(‘분홍공장’ 운영자, 작가)
패널 – 발제자 6인,
김현주×조광희(전시 참여작가),
차승주(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심포지엄 〈움직이는 경계들〉은 아르코미술관과 현대미술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주제는 ‘트랜스 로컬리티와 문화행동’이다. 학계 인사들과 더불어 전시 참여 작가인 김현주×조광희와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가 참여해 ‘로컬리티’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살펴본다.

Society Of Contemporary Art Science 2022 Autumn Symposium 〈Moving Boundaries〉

Arko Art Center × SOCAS Joint Symposium

Venue Arko Art Center 3F Seminar Room
Date Nov 19 (Sat), 2022, 1PM-6PM

Participants Moderator - Yoon Juhan (Daegu University), Seon-Ryeong Cho (Pusan National University) / Presenter - Hyunjoo 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Mun Jae-Won(Pusan National University), Park Soyoung(Yeungnam University), Chung Jong-Eun (Sangji University), Dong-il Kim (Daegu Catholic University), Yong Hae Sook (CEO of Pink Factory, Author) / Panel – 6 Presenters, Hyunjoo Kim × Gwanghee Cho (Exhibition Artist), Seungjoo Cha (Arko Art Center Curator)

The symposium 〈Moving Boundaries〉 is an academic conference jointly held by Arko Art Center and Society Of Contemporary Art Science (SOCAS), and its theme is ‘trans-locality and cultural behavior’. Kim Hyunjoo × Jo Gwanghee, the artists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exhibition along with academic figures, and curators who organized the exhibition will participate to examine various discourses on ‘locality’.





프로그램 소개

1부 발표 / 사회 : 윤주한(대구대학교)

13:00-13:20 (20분) 개회사(아르코미술관장, 현대미술학회장) 13:20-13:50 (30분)
정현주(서울대학교) “관계적 공간, 유연한 경계: 페미니스트 포스트영토주의 접근”

13:50-14:20 (30분) 문재원(부산대학교) “트랜스로컬 주체성과 경계의 재구성”

14:20-14:50 (30분) 박소영(영남대학교) “1999년 《글로벌 개념주의》 전시의 미술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 개념주의의 다중심적 실천”

14:50-15:00 (10분) 휴식

15:00-15:30 (30분) 정종은(상지대학교) “시민 거버넌스와 도시 브랜딩의 융합: 강원도 법정 문화도시들을 중심으로”

15:30-16:00 (30분) 김동일(대구 가톨릭대학교) “예술가의 사회적 실천의 의미와 조건들”

16:00-16:30 (30분) 용해숙(‘분홍공장’ 운영자, 작가) “액션과 인터액션(action & interaction)”

16:30-16:45 (15분) 휴식 및 장내 정리

2부 라운드테이블 / 사회 : 조선령(부산대학교)

16:45-17:45 (60분) 패널: 발제자 6인, 김현주&조광희(클리나멘)(전시 참여작가),
차승주(아르코미술관 큐레이터)

17:45 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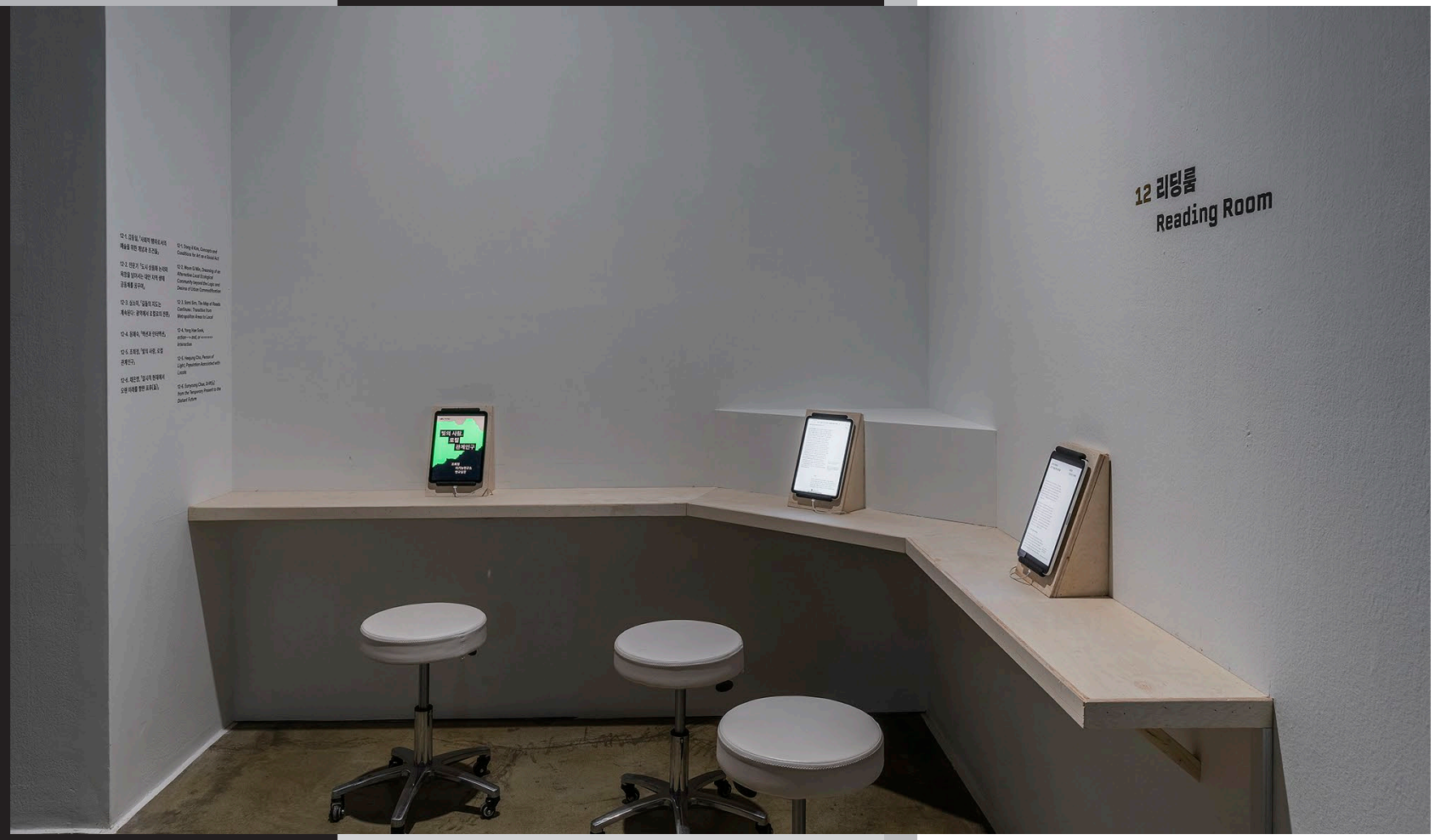


리딩룸

Reading Room

리딩룸에서는 전시 주제와 연장선에서 새로 집필한 필진 여섯 명의 글을 만나본다. 예술의 사회적 활동 및 지역적 역할 고찰, 도시공간과 예술 실천의 관계, 가치와 방식을 지향하는 로컬 활동, 트랜스 로컬리티 등을 주제로 리서치 기반 활동을 추진하고 연구해온 기획자와 연구자의 글이 소개된다.

The Reading Room presents articles newly written by six writers as an extension of the theme of the exhibition. It introduces writings by curators and researchers who have promoted and studied research-based activities under the theme of reviewing the social and regional roles of art,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space and art practice, local activities aimed at values and methods, and translocality.



❶ 김동일, 「사회적 행위로서의 예술을 위한 개념과 조건들」

Dong-il Kim, *Concepts and Conditions for Arts as a Social Act*

❷ 민운기, 「도시 상품화 논리와 욕망을 넘어서는 대안 지역 생태 공동체를 꿈꾸며」

Woon Gi Min, *Dreaming of an Alternative Local Ecological Community beyond the Logic and Desires of Urban Commodification*

❸ 심소미, 「길들의 지도는 계속된다 : 광역에서 로컬로의 전환」

Somi Sim, *The Map of Roads Continues : Transition from Metropolitan Areas to Local*

❹ 용해숙, 「액션과 인터액션」

Yong Hae Sook, *action ---> and, or <======> interaction*

❺ 조희정, 「빛의 사람, 로컬 관계인구」

Heejung Cho, *Person of Light, Population Associated with Locals*

❻ 채은영, 「일시적 현재에서 오랜 미래를 향한 표류(들)」

Eunyoung Chae, *Drift(s) from the Temporary Present to the Distant Future*

리딩룸 텍스트
Reading Room Articles

2022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일시적 개입

2022년 11월 18일 – 2023년 1월 21일
아르코미술관 제1,2전시실
스페이스 필룩스

전시
거제 섬도
권은비
김현주 × 조광희
노뉴워크
다이애나랩
로자바 필름 코뮨
브레이크워터 (최영숙 × 태이)
스몰 바치 스튜디오
실험실 C
예페 하인
오버랩
우 말리 × 밤부 커튼 스튜디오
젤리장
코무니타스 구부악 코피

리딩룸 필진
김동일, 민운기, 심소미, 용해숙, 조희정, 채은영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미술관장
임근혜

미술관운영부장
최혜주

큐레이터
차승주

코디네이터
이해빈, 우정원, 이다영

인턴
강수빈

홍보
박상은

미술관 매니저
이상미

관리요원
권재현 , 김현서, 박상언, 박재은, 변동규, 신나래, 신윤수, 심세연, 조수아, 최보라, 최유라, 한다은, 한희숙

시설 지원
윤천학

그래픽 디자인
개미그래픽스

필진글 편집 디자인
금재성

장비 설치
주식회사 씨투아테크놀러지

전시장 조성
주식회사 스페이스다울

작품 자막 번역
이혜림

작품 자막 제작
기노 스튜디오

작품 운송·설치
아트인

번역
대한번역개발원, 라이온코리아, 오즈번역회사

사진 기록
조준용

영상 제작
보이드 스튜디오, 윤재민, 신시가지

도록

글
김종길, 임근혜, 조선령, 차승주

책임 편집
차승주

편집 보조
이다영

영문 번역
대한번역개발원

디자인
개미그래픽스

사진 촬영
조준용

인쇄
으뜸프로세스

발행인
정병국

발행일
2023년 2월 14일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 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에서 제작하였으며, 책과 이미지의 저작권은 아르코미술관과 작가 및 필자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3 (03087)
전화 02 760 4850
팩스 02 760 4780
www.arko.or.kr/artcenter

2022 ARKO Thematic Exhibition
Local in the Making

November 18, 2022 – January 21, 2023
ARKO Art Center Gallery 1,2, SpaceFeelux

Exhibition	GEOJE SUMDO Eunbi Kwon Hyunjoo Kim × Kwanghee Cho NoNewWork dianalab Rojava Film Commune Breakwater (Youngsook Choi × Taey Iohe) Small Batch Studio Lab C Jeppe Hein OverLab. Wu Mali × Bamboo Curtain Studio Jelly Jang Komunitas Gubuak Kopi
Reading Room Writers	Dong-il Kim, Woon Gi Min, Somi Sim, Yong Hae Sook, Heejung Cho, Eunyoung Chae
Hosted By	Arts Council Korea
Chairman	Choung, Byoung-Gug
Director of General of ARKO Art Center	Jade Keunhye Lim
Director of Operations	Hyeju Choi
Curator	Seungjoo Cha
Coordinator	Haebin Lee, Jungwon Woo, Dayoung Lee
Intern	Subin Kang
PR Communications	Sangeun Park
Museum Manager	Sangmi Lee
Management Staff	Jaehyeon Kwon, Hyunseo Kim, Sangeon Park, Jaeeun Park, Dongkyu Byeon, Narae Shin, Yunsoo Shin, Seyeon Shim, SooA Cho, Bora Choi, Yura Choi, Daeun Han, Huisuk Han
Facility Manager	Cheonhak Yoon
Graphic Design	Ant Graphics
Text Editorial Design	Jaeseong Keum
Media Solution	C2 Artechnolozy Inc.
Construction	Space Dawol Inc.
Video Translation	Hyerim lee
Video Captioning	Kino Kim
Artworks Transportation ·Installation	ArtIn
Translation	FTRANS KOREA, LioNKOREA, OZ Trans
Photography	Junyong Cho
Videography	Void Studio, Jaemin Yoon, sinsigaji

Publication

Text	Gim Jonggil, Jade Keunhye Lim, Cho Seon-Ryeong, Seungjoo Cha
Editor	Seungjoo Cha
Editorial Assistant	Dayoung Lee
English Translator	FTRANS KOREA
Design	Ant Graphics
Photography	Junyong Cho
Printing	Top Process Cp., Ltd
Publisher	Choung, Byoung-Gug
Publication Date	February 14, 2023
Published by	Arts Council Korea ARKO Art Center

© 2023 Arts Council Korea ARKO Art Center
The copyright of the book and images is retained by the author, owner of copyright and ARKO Art Center.
All rights reserved.
No Reproduction, copy or transmission of this publication may be made without permission of the publisher.

3 Dongsung-gil, Jongno-gu, Seoul, 03087,
Republic of Korea
Tel +82-2-760-4850
Fax +82-2-760-4780
www.arko.or.kr/artcenter

ISBN 978-89-6583-180-8
03600
값 20,000원

아르코미술관